



2

주체 89 (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2호

(루계 제628호)

## ◆◆◆◆◆◆◆◆◆◆ 차 례 ◆◆◆◆◆◆◆◆◆◆

봄날의 꽃속에 젊어제시라.....	4
2월 16일.....	5
백두산의 기질 .....	8
2월의 아침에 .....	11
작가들이여, 락원의 새로운 봉화따라 작품창작에서 전환을 가져오자.....	12
명언해설 .....	14
주체의 락원 가꾸시는 행복의 창조자.....	15
바다는 멀리 있지 않다.....	16
자랑찬 위훈의 창조자로... ..	17
20 세기를 빛나게 장식한 기념비적명작 .....	18
남이 알아듣게 말을 하려면 .....	23
미래에 살자 .....	24
풍어기는 날리지 않아도 .....	35
2월과 백두산 .....	36
호수가의 생각 .....	38
정열, 실력, 소원- 석윤기.....	39

나는 이런 사람 .....	47
기뻐하라, 축복하노라 2000 년대여 .....	48
백두령장의 고지는 숨쉰다 .....	51
8 도와 13 도 .....	54
두번째 기자회견 .....	55
새봄 .....	64
5 살난 신동 .....	72
젊은 탄광지배인 .....	73

# 봄날의 꽃속에 젊어계시라

정성환

봄날이 꽃을 피운다지만  
2월의 꽃은 봄을 싣고왔습니다  
거리에 집집에 꽃이 피니  
계절도 눈석을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은인의 탄생절에  
우리 다른것  
그 무엇을 드릴수 있겠습니까  
철을 앞당겨 피운 꽃이  
온 나라에 송이송이 향기를 풍깁니다

초소와 초소에도 피었습니다  
일터와 일터에도 피었습니다  
기계를 돌리며  
책장을 번지며  
생산도 탐구도 생활의 목표도  
2월의 봄명절 오늘에 걸고  
인민이 피워올린 꽃바다입니다

천지개벽한 강원땅에서도  
장군님의 그 은정 잊지를 못해  
고마움의 인사를 꽃에 담았습니다  
풍어의 꿈을 실은 양어장에서도  
그 사랑을 노래부르며  
뜨거운 마음을 꽃에 담았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오늘은 누구나 오직 한생각  
장군님생각뿐입니다

전선길 굽이굽이  
천만굽이 넘으시며  
공장길 농장길  
천리만리 걸으시며  
온 겨울  
찬눈 찬비로 헤쳐오신 장군님

이 하루만이라도  
이 아침만이라도  
꽃속에 향기속에 몸을 녹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의 꽃입니다

21세기의 문어귀  
2000년 2월 16일  
시대의 영웅들을 따라  
준마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의 신념이  
이 꽃잎마다 어리였거니

새 세기의  
제일 조선을 위하여  
로고 많으신 장군님이시여  
부디 잠시라도  
이 꽃향기속에 즐겁게 웃으시며  
편한 순간을 보내시라

아버이장군님의 건강을 바라는  
우리의 뜨거운 축원속에  
봄날처럼 영원히 젊어계시라

무릇 력사에는 성인이라고 하는 위인들이 적지 않게 배출되었으나 그들이 출생한 고향이 다 성지로 된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인 예수가 출생하였다는 팔레스티나의 베드레헴이나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태어났다는 룸비니정원이나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고향인 로나라의 추(중국 산둥성 사수현)도 다 성지라고 부르는것은 아니니 성지라 함은 지맥으로부터 앓음새와 땅색갈이며 물빛까지도 정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 소백수골은 지형, 지세로부터 물빛, 땅색갈에 이르기까지 어느 모로 보나 성지가 틀림없으니 우리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하늘이 정해준 성지라고 칭송하여마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전설들을 전해오고있다.

마찬가지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도 성인이 하늘에서 강림한 성탄일이라고 신성시하면서 많은 전설을 전하고있으니 그것 또한 이날이 범상한 날이 아니요 하늘이 정해준 날이기때문인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주체원년인 1912년 4월 15일도 성탄일로서 극적인 사변이 일어난 날이니 사람들은 이날을 맞으면 절로 경사로움과 함께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것이다.

자본주의가 승승장구하던 당시, 지구상에는 단 하나의 사회주의나라도 없던 그때에 북대서양을 횡단하던 발전된 자본주의세계의 자랑인 대형러객선 《타이태닉》호가 침몰되어 바다에 수장된것이 바로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경이다.

이날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고 그우에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중임을 지니시고 우리 수령님께서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로,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였으니 얼마나 신기한 일치인가!

생각할수록 신비한 생각에 잠기게 한다.

그럼 주체31(1942)년 2월 16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지는 흥미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하늘이 백두산의 소백수골을 성지로 정한지 퍼그나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해 겨울이었다.

하늘나라왕인 옥황상제는 선관과 신선들을 급히 백옥루로 불러들이었다.

하늘나라에서 이런 일은 극히 드물었다.

《옥황마마께서 왜 부르시우?》

《글쎄 나도 모르겠소이다.》

선관과 신선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서로 물어보며 수군거렸다.

이때 옥황이 거룩하게 나타나 통상에 앉으니 궁성안은 물뿌린듯 조용하고 선관과 신선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앉아 문안을 드리었다.

옥황은 편전에 꿇어엎딘 신선들을 굽어보며 입을 열었다.

《내 그대들을 급히 부른것은 긴히 의논할 일이 있어 그런것이니라. 이제 저 어지러운 땅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화복과 우애와 행복을 가져다줄 성인이 백두의 성지에 내리시게 되었은즉 바로 그날을 정하자는것이로다. 어느날이 합당하겠는지 스스로없이 자기 의향들을 말하여 길일을 택하도록 할지어다.》

선관과 신선들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어떻게 할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아 옥황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러자 옥황은 머리를 좌우로 설레설레 흔들며 《허허, 안되겠군. 그럼 춘하추동 사시절중에서 어느 계절로 택함이 좋겠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해보도록 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여는 신선이 없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한 선관이 일어나 이렇게 아뢰었다.

《옥황마마, 제가 먼저 소견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저의 짧은 생각엔 봄계절로 정함이 어떨가 하옵니다. 봄으로 말하면 부드럽고 따듯한 별으로 대지를 어루만지여 만물을 소생시켜주고 온갖 꽃을 아름답게 피워 그 향기가 천지간에 그윽하니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은 사시절중에 없다고 보나이다.》

《아, 아니올시다.》

이어 다른 선관이 또 자기 의향을 말하였다.

《백두산성지는 좀 추운 고장이라 여름이 적합한가 하나이다. 만물을 무성하게 자래우는 여름은 정열의 계절이라 백두산마루의 흰눈과 깊은 골짜기의 얼음은 오직 여름만이 녹일수 있는즉 여름이 적합하다고 보나이다.》

그러자 이번엔 다른 선관이 벌떡 일어섰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하늘나라에 사는 신신으로서 그래 일년중에 풍만한 열매를 견어들이는 가을이 제일 좋은 계절이라는것을 모른단 말이시오? 옥황마마! 용서하시오이다. 내 계절을 맡은 선

관으로서 가을을 너무도 홀시하니 잠시 분별을 잃었나이다. 제 소견엔 뽀뽀뽀해도 봄과 여름은 모두 가을을 위해 필요하고 존재하는것인즉 년중에 황금의 계절이라 부르는것은 가을밖에 없나이다. 그러니 가을로 정하는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나이다.》

선관과 신선들은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였다.

옥황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그들의 말을 듣고만있었다.

이윽고 눈을 뜬 하늘나라왕은 떠들어대는 신선들을 한참동안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들에게 내 의향을 말하겠노라. 성인께서 내리실 날을 겨울과 봄으로 정함이 좋을가 하노라.》

그러자 신선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어찌하여 상제께서는 성인이 내리실 날을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닌 겨울과 봄의 두 계절을 함께 정하려 하시나이까?》

어느 한 신선이 이렇게 묻자 옥황은

《눈과 얼음이 뒤덮인 겨울만이 백두산의 기상을 만공에 펼치는즉 하늘높이 치닫는 거센 찬 눈보라와 티 한점 없이 깨끗한 흰눈이 뒤덮인 백두산의 숨업한 자태는 그대로 이제 내리실 성인의 기상이요, 정기인지라 겨울로 정함이 어느모로 보나 리치에 당한 일이요, 봄은 세상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이니 두 계절을 다 안고있는 시절로 정하려 하노라.》

그제야 선관과 신선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참으로 현명하고 지당하신 말씀이오이다.》 하며 찬성하였다.

《그러면 계절은 정하였으니 이제 어느 달을 택하는것이 옳겠는고? 궁리가 당는대로 서슴없이 말하십시오.》

옥황의 어명이 떨어지자 신선들은 저저마다 일어나 자기 소견을 말하였다.

《상제마마! 겨울이라 함은 설달이라고 하는 12월부터 정월이온즉 이 석달중에도 대소한을 품고있는 달은 정월이오니 겨울의 역센 기상이 제일 극치에 달하는줄로 아옵니다. 그러니 년의 시작인 1월로 택함이 좋을가 하나이다.》

《1월은 겨울만이 완전하니 어찌하겠는고?》

그러자 다른 신선이 일어나 아뢰었다.

《상제마마, 제 의향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소신의 생각엔 2월로 정함이 좋은줄로 아옵니다.》

그러자 옥황은 《그대는 왜 하필이면 정월을 마다하고 2월로 정하려 하는고?》 하고 물었다.

《2월은 립춘이 첫머리에 있는 달로서 겨울이 완전하나 봄이 태동하는 달이옵니다. 백두의 역센 기상과 세상만물에 새 생명을 주는 봄이 지척에 있는

달로서 위인이 내리시는 달로는 가장 안성맞춤인 줄로 아옵니다.》

《그대의 말이 일리가 있도다. 파인의 생각도 그러하니 경들은 다른 의견이 없는고?》

《상제마마의 고견을 따르겠나이다.》

선관과 신선들은 입을 모아 찬성하였다.

《그렇다면 2월로 정하도록 하자. 다음은 어느날로 정하는것이 합당하겠는지 의논을 더 할지이다.》

선관과 신선들은 모두 상제의 말에 병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서로서로 마주 쳐다보기만 하였다.

별로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오랜 침묵끝에 한 신선이 아뢰었다.

《옥황마마의 명철하신 의향을 먼저 듣고싶나이다.》

그러자 옥황은 기다리기라도 한듯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두 같은 의향인고? 그렇다면 내 먼저 말하겠노라. 파인은 성인이 내리실 날을 16일로 정하자고 하노라.》

신선들은 또다시 술렁거리었다.

《옥황마마께서 하많은 날중에서도 16일로 정하심은 깊은 뜻이 담겨져있겠사오나 궁양이 조롱박처럼 작은 저희들로서는 미처 그 뜻을 헤아릴수 없나이다. 황송하오나 그 뜻을 알려주시면 받아안은 성인을 무상의 영광으로 알겠나이다.》

옥황은 좌우에 배알한 신선들을 일별하고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16일로 정함은 깊은 뜻이 있노라. 이해의 2월 16일은 월요일인즉 이미 백두산에 성인들이 내리신 날은 모두 월요일이였노라. 백두산대장수님이 내리신 4월 15일도 월요일이요, 백두산녀장수님이 내리신 12월 24일도 월요일이노라. 월요일은 한주일의 시작이니 희망의 끝없음을 알리는 요일로서 성인이 내리시는 요일로 이미 점지되어있느니라. 그러니 이번에 내리실 백두산 새 장수님도 월요일로 정함이 옳을가 하노라.》

신선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런데 한 신선만은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그대는 무엇이 석연치 않는것이 있는고?》

옥황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머리우에서 울렸다. 그 신선은 몸을 웅송그리고 이렇게 아뢰었다.

《옥황님의 말씀은 천만번 지당하옵니다. 허나 저의 궁양이 모자라 깊은 뜻을 들여다보기엔 맑은 하늘에 안개가 낀것처럼 투명치 못한것이 있사오니 무엄하게 발설하는 소신을 너그러이 용서하여주사이다. 2월달에 월요일은 16일뿐이 아니요 2일과 9일, 23일도 모두 월요일이온데 어이하야 상제마마



계서는 세번째 월요일로 정하시옵는지 소신의 좁은 머리로 미처 그 뜻을 헤아릴수 없나이다.》

그러자 다른 신선들도 일제히 옥황의 룡안을 올려다보았다.

그들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것은 마찬가지였던것이다.

《그것 또한 깊은 뜻이 있으니 명심하여 들을지이다. 백두산대장수님이 내리신 날이 세번째 월요일이니 그분의 뜻을 이으실 백두광명성장수님도 세번째 월요일에 내리심은 자명한 일이요. 또 2월 16일을 나란히 하면 216인즉 앞의 두 수자는 21세기를 뜻하는것이요, 둘째와 셋째 수자인 16은 월요일인지라 21세기가 시작됨을 상징하는것이니 그것은 세기의 해돋이를 의미하는것이요, 바로 태양을 뜻하는것이노라. 이는 곧 21세기의 태양을 말하는것이니 앞으로 내리실 성인은 21세기를 밝혀줄 태양이시라는 의미를 담고져 함이로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로소이다. 미련한 저의 눈에도 옥황님의 깊은 뜻이 수정처럼 맑게 헤아려지나이다.》

그 신선은 머리를 몇번이고 조아리었다.

《모두 같은 생각이라면 2월 16일로 정하도록 할지이다.》

옥황의 말이 떨어지자 백옥루의 선녀들이 《백두산에 광명성장수님이 내리실 날을 2월 16일로 정하였노라!》하고 일시에 합창하여 이 경사의 날을 하늘땅과 온 우주에 알리었다.

이때였다.

성인이 내리실 성지에 무엇이 미흡한것이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백두산에 내려갔던 땅을 맡은 지관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 올라왔다.

《옥황마마, 참으로 신기한 일이옵니다. 성지로 정한 백두산 소백수골에 솟아있는 장수봉의 높이가 216.42미터인즉 방금 정한 성인이 내리실 1942년 2월 16일과 신통히도 수자가 같사옵니다.》

지관은 눈이 휘둥그래서 상제에게 아뢰었다.

그러나 옥황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그윽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수염을 천천히 내리쫓았다.

《그것은 벌써 짐이 아득한 옛날에 성지를 정할 때 성인이 내리실 날도 미리 정하고 그날을 뜻하는

봉우리를 탑으로 세워놓은것이니라.》

《그럼 옥황마마께서는 성인이 내리실 날을 이미 정해놓고 저희들과 의논하셨나이까?》

《어찌 성인이 내리실 경사로온 날을 소홀하게 내 생각으로만 정하겠는고. 그날을 정하는것은 절대로 가벼이 대할수 없은즉 온 하늘의 뜻을 담아 심중히 정하자는 짐의 뜻이었으니 과히 섭섭해말지이다.》

《옥황마마의 그 웅심깊은 뜻에 실로 감복하나이다.》

선관과 신선들은 옥황을 우러러보며 깊은 감동에 휩싸여있었다.

그리하여 하늘의 뜻을 담아 이 땅에 성인이 내리실 날을 1942년 2월 16일로 정하였다고 한다.

이 전설을 수집하면서 필자가 느낀바를 부언한다면 구술자들은 이것을 전설로가 아니라 사실로 믿고있는듯하였다는것이다.

그들은 주체31(1942)년 2월 16일-이 경사의 날에 있었던 천지조화를 두고 어떻게 우연이겠는가고 하였다.

그전날까지 세찬 광풍이 휘몰아치던 백두산밀영 지구에 갑자기 승엄한 정적이 깃들고 밤하늘에 처음 보는 새별이 나타나 2시간동안이나 눈부신 빛을 뿌리였으며 이날의 해돋이와 해지는 시간이 여느 해에 비해 퍼그나 길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화성과 목성, 토성이 차례로 백두의 하늘중천에 떠올라 다음날 새벽까지 유난히 밝은 광채를 뿌리고 때아닌 쌍무지개가 비졌는가 하면 나무마다 서리꽃이 피고 만병초꽃이 피어나 향기가 그윽하였으며 세계 여러 대륙에서는 폭풍이 일고 바다에서는 세찬 격랑이 일어났다고 하니 하늘땅의 축복이 분명할진대 하늘이 정한 날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천지조화가 있을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필자도 이것을 패히 수궁하고 전설로가 아니라 사실로 믿고 정리하였음을 숨기지 않는다.

바로 하늘이 낸 이날에 대성인이신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정기를 안고 탄생하시었으니 그이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도 신것은 참으로 인류의 무한한 영광이고 행복이다.

**김우경**

## 백두산의 기질

김일규

백두산!

한번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배심이 만만해지고 천하를 거머쥐고 흔들어놓을 힘과 열정이 샘솟는 백두산.

사랑하고 의지하고 온 넋으로 숭배하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든든히 뿌리내린 신념과 의지의 산악이기에 강성대국건설의 한길로 줄달음쳐가는 주체조선의 준마의 기상에 백두산의 기질이 나래친다.

준엄했던 현세기의 피어린 준령들을 넘고넘으며 불어치는 폭풍을 맞받아 뚫고 걸음걸음 승리해온 조선의 기질은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백두산의 기질이다.

### 1

우리는 백두산을 사랑한다.

우리의 신념과 의지의 메부리로 솟고 장군숭배의 성산으로 그 준엄 누리에 떨치는 백두산.

예로부터 백두산을 안고살다가 백두산을 베고 죽으리라던 민심이나 천불교의 관계인물인 천하도인에 의하여 장군봉 천지기슥바위의 비석에 새겨진 《대태백 대택수 통신비각》 즉 천지의 통신이 영원히 이 나라를 지키고 부흥케 해달라는 글만 보아도 금세기의 백두산은 조종의 산으로써뿐만 아니라 조선의 시원과 무궁부흥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의 기원속에 솟아있었다.

세기를 거슬러올라가도 고려의 윤관과 리조의 김종서도 백두산에 올라 보국개척의 뜻을 펼쳤고 남이장군 역시 백두산 부석우에서 천하를 평정할 웅대한 꿈을 꾸었다는것만 레증해도 민족의 뜻과 애국혼도 백두산의 그 억세인 준엄과 기질에 있었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역사적사실이다.

세계를 굽어보면 나라와 민족마다 자랑하며 숭배하는 산들이 있다. 불랑산이나 주무랑마봉, 깡까즈의 엘부루스산만 놓고보아도 원시림의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움, 자기 민족의 신화와 결부된 전설적인 산들로서 그 민족의 선산으로 불리워지고있다.

허나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높이나 눈과 얼음의 산악에 대한 한갓 숭상의 대상에 불과한것이다.

그러나 백두산! 조선의 백두산은 그 모든 아름다움과 력사, 전설적인 숭배의 높이우에 솟아있으며 그 자연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른 산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고유한 기질이 있고 시대를 포용하는 넋이 있으며 삶의 숨결이 있다.

백두산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장쾌한 아침해돋이를 그려보게 된다.

한순간에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며 지구를 휘감는 눈부신 노을의 그 포용력에 심혼을 맡기고 바라보면 환희로운 래일이 눈앞에 보인다.

한번 터치면 산상의 바위도 휘뿌리고 천하를 들었다놓는 눈사태를 몰아오는 백두산눈보라의 그 거세참, 눈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뜨거운 온천을 뿜어올리는 그 자애로움과 열정을 안고 천리수해우에 구름을 휘감고솟아 세계를 굽어보는 그 거연함에 심장이 커지는 호방함을 금할수 없다.

하루에도 1년 4계절 24절기가 다 오고가는 그 천변만화, 엄엄한 기상과 자태를 비껴안고 천년푸르른 천지의 그 순결함.

정녕 이것이 이 세상 그 어느 산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백두산고유의 기질이 아니겠는가.

일찌기 혁명시인 조기천은 서사시 《백두산》에서 이렇게 웅했다.

...

만리 창공에 백발을 휘날리며  
아득한 태고로부터  
이 나라 풍상의 나날을 날날이 굽어  
천상성악아, 백두산아

...

오늘은 너의 천지에 채운이 서리우고

...

창창한 대공이 열렸거니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어떻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솟았느냐  
떨어졌던 태양이 다시 솟는 그때  
네 누구를 맞이했느냐

그렇다. 력사와 민족의 숙망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붉은기의 세찬 퍼덕임속에 백두의 폭풍을 휘감아 이 땅을 칭칭 옥죄었던 망국수난의 철쇄를 흔날려버리신 백두산의 대장군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위업으로 세기의 창공에 준엄높이 머리 치여든 백두산!

암흑의 먹장구름을 불칼로 쳐가르며 천하를 진동시키는 백두산의 우뢰처럼 단 한방의 총성으로도 대적의 총검을 짓누르며 천상에 도도한 천연바위처럼 수령결사옹위의 첫 방패로 그 이름 떨친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뜻으로 그 자욱



력력한 백두산!

승리와 번영으로 이어준 우리 혁명의 첫자욱은 백두산에 새겨져있다.

가야 할 주체혁명위업의 그 한길도 백두산에 이어져있다.

혁명가의 참된 생활과 투쟁의 진리도 백두의 그 길에 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들고갈 우리의 목숨같은 기발도 백두에서 추켜든 붉은기이다.

백두산에는 죽어도 배고 죽을 이 나라의 님과 영원한 세월에 피줄기처럼 이어진 조선의 고유한 기질의 맥동이 있다.

하거늘 찬란한 조선의 미래의 해돋이가 여기서 펼쳐졌으니 백두산이여, 너의 존엄과 영광이 빛바치는 그 끝은 어디에나.

그 해돋이를 펼치자고 지심깊은 화산의 불물로 깨끗이 씻은 돌우에 수수천년 다듬은 천태만상의 아름다움과 고유의 기질을 안고 그토록 고대하며 다듬어 솟은 조종의 산에 만대에 불멸할 주체위업의 반석을 다졌으니 흘러간 세월과 흘러갈 세월이 환호했다, 백두산의 2월 16일을!

그날은 눈꽃이 류달리 아름답고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그 흐름 멈추지 않는 소백수의 물소리도 환희로운 봄노래로 유정했다.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부 귀틀집추녀우에 나뭇기는 붉은기는 더욱더 붉게 타고 항일대전의 총포성에 함께 되성치던 백두의 눈보라도 정일봉기슭에 잠시 깃을 접었었다.

백두산은 드디어 자기의 위대한 아들을 받들어 올려 력사의 소원을 성취했으니-

아,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동지의 탄생은 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미래의 탄생이었다.

《백두산의 호랑이》로, 무적의 백두산대장군으로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의 면상을 후려치여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장군상에 대하여 하신 교시가 시대의 하늘가에 메아리쳐온다.

**《김정일동지는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타고난 장군입니다.》**

명산에서 명인이 난다고 백두산이 안아올린 백두산의 기질을 타고난 백두산형의 장군 **김정일**동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드눌줄 모르는 불변의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강의한 의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영웅호걸다운 배짱과 무비의 담력,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끝없이 썸썸은 무한대의 열정과 지략과 전법이 뛰어난 백두산형의 장군을 받들어올렸으니 오, 조선의 행운을 더쳐올린 백두산아-

사랑과 숭배의 천하제일봉이여!

휘익-

백두산바람이 불어내린다.

노도치는 철의 대오 근위사단들의 행군길에 백두산의 폭풍이 숨신다.

최전연의 산발들에 번쩍이는 총대마다 백두산의 우리가 운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발걸음높이 위훈의 새 봉화를 지퍼올린 락원의 드넓은 공장구내길에도 백두산의 기상이 내려친다.

대홍단의 드넓은 백두삼천리벌과 세벌농사의 꽃을 피운 장강땅에도 쇠물끓는 김철의 전기로와 탐구의 열정 드높은 과학지구에도 백두의 병기창에 울리던 마치소리가 높이 울린다.

일년 삼백예순다섯날 어느 하루 변함없이 조국의 최북단에서 최전연 고지우로, 동해의 기슭에서 서해의 이름없는 섬초소에 이르기까지 쉬임없이 가고 가시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따라 백두산의 숨결이 드높이 이어진다.

그 숨결을 호흡하여 중소형발전소들의 동음소리 높고 지심깊은 막장의 착암기소리가 그리도 기세차며 그 어떤 강적도 발아래로 굽어보는 이 나라 병사들의 배짱이 그리도 든든하다.

우리는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산다.

백두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장군님을 생각하게 되고 장군님의 그 영상 우리를 때면 백두산을 그려보게 되는 우리 인민이다.

때로 맨주먹뿐인 자신들앞에 아름찬 일감이 생겨도 거둬드는 실패와 우여곡절속에 마음의 동요가 생길 때도 우리 인민은 백두산을 바라본다.

물아치는 역풍과 광풍에 주위세계가 휘말려 자빠지고 무너질 때도 자신과 가정과 래일에 대한 우려가 마음 한구석에 깃들 때도 백두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거대한 기둥이 마음에 든든히 내려지고 힘이 생기고 방법론이 생기고 가야 할 래일이 환히 비치왔다.

가슴은 벅차오르고 신심은 백배해진다.

가는 길 험난하고 시련의 고비고비가 천만준령으로 막아서도 기어이 뚫고나갈 용기 백배해지고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건설한 강성대국에서 누릴 행복한 세월이 가슴부풀게 한다.

그렇다. 세계유일초대국도 내려다보는 만만한 배심,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 원쑤와는 단호히 결판을 내고야마는 무자비성, 무에서도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성은 백두에서 이어받은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전통이며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과 건설을 해오는 과정에 체질화된 조선의 기질이다.

이 땅은 백두산에 혁명의 태를 묻은 백두산형의

인간들이 사는 나라이다.

옷을 입어도 백두의 풀물오른 보위색군복을 좋아하고 노래를 불러도 백두의 밀림에 높이 울리던 혁명가를 즐겨부른다.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에서 울리는 청년돌격대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산악도 순간에 허물고 강물도 단숨에 뛰어넘으며 이렇게 곧추, 이렇게 넓게 쪽쪽 밀고나가는 공격정신이 장군님 품에서 익힌 우리의 일본새입니다. 쫓물쫓하고 오물쫓물하며 홍타령같은것은 우리의 대오에 슴벨 틈조차 없습니다.

결심도 실천도 통이 크고 단숨에 해제끼는것이 우리 장군님 청춘들의 기질이 아닙니까.》

그렇다. 결심도 실천도 통이 크게 주저없이 해제끼는것이 우리의 기질, 백두의 기질이다.

백두산장군의 품속에서 자라며 백두산장군의 기질을 닮은것이 우리 인민의 모습이다.

어찌다 한번 침대에 누우셨다가도 오히려 불편하다고, 현지지도의 차안에서 잠시 드시는 쪽잠이 제일 좋다고 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모습을 우러르며 백두의 가랑이를 깔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전식숙영법에 습관된 우리 인민이다.

밤도 없이 낮도 없이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에 이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최후돌격전의 돌과구를 여시며 눈바람 몰아치는 전선길을 이어가실 때 우리 장군님 드신 제기밥을 생각하며 백두의 군용밥통에 통강냉이 한줌을 두고 끓여 온 작업반이 돌리며 들었어도 백두산시절의 한흙의 미시가루처럼 조금도 줄지 않던 나날이 우리에게 있었다.

폭스가 떨어진 해탄로에 책상과 이불장, 밥상까지 넣으면서도 목숨같은 불은 끄지 않고 기어이 지켜낸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속에는 백두산이 솟아있는 한 조선은 기어이 강성대국으로 일떠선다는 백두의 신념과 의지의 불길이 타번지었기때문이다. 거듭되는 자연재해와 고립압살이라는 낱말들을 어린 자식들에게 설명하며 조여낸 허리띠를 다시 또 조여야 했던 최악의 조건속에서도 주저않지도 않았으며 남에게 구걸하지도 않았으며 비판하지도 않고 과감하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위한 험난한 길을 웃으며 당당히 헤쳐 온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백두산이 솟아있었다.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진 폭풍을 휘몰아 날려보낼것은 다 날려보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늘가에 우뚝 머리쳐든 백두의 메부리처럼 적아를 명백히 가르고 더욱더 순결해지고 백배로 강해진 일심단결과 신념을 주었다.

불어치는 역풍에 흔들려 사상의 자부를 잃고 신념을 버린자들도 있었고 몇푼의 팔라에 유혹되어

량심과 의리를 버린 배신자들도 있었다.

때를 만난듯이 본색을 드러낸 제국직원썩들도 있었다.

허나 백두의 거세찬 폭풍으로 시대의 온갖 오물과 잡쓰레기들을 다 날려버리고 더더욱 순결해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대오는 신심드높이 밝아오는 새 세기를 바라보며 20세기의 마지막언덕우에 당당하게 올라섰다.

남들같으면 열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조건에서도 일터와 마을에 웃음과 노래소리는 그칠줄 몰랐으며 하늘높이 날아오른 체육경기장의 룡구공이 신념과 랑만의 웃음덩이처럼 봉쇄와 전쟁의 검은구름 장막에 구멍을 내며 산산이 찢어 흩날려버렸다.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우리는 동면하지 않았으며 불가능이란 말을 차던지고 맞바나나 승리의 돌과구를 열어제끼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우리 나라가 당당한 위성보유국으로 되는 기적을 펼쳤으며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마련하였다. 나라의 자주권이 엄중히 위협당하던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안길 철추를 내림으로써 무적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시위한것 역시 언제나 싸우면 이기는 백두산장군의 그 싸움법이 안아온 승리가 아닌가.

그렇다. 백두산의 기질을 지니신 령장을 모셨기에 그 기질로 이기고 존엄떨치는 우리 인민이 있고 우리 조국이 있다.

생각해보라. 날바다 한가운데서 도끼 한자루를 가지고 대적의 오금을 꺾어놓고 적후에서 홀로 장군님 병사의 기상을 펼치고 돌아오던 나 어린 인민군병사의 기질은 어디에 뿌리를 둔것이기에 그렇듯 당당했는가.

손에 쥔것은 마치고 정대뿐이었어도 장군님 결심하시고 장군님 가르쳐주신 일본새가 있었기에 중소형발전소들을 기어이 건설하여 전기화의 현실을 안아온 대흥단과 자강도의 현실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백두산의 장군 김정일동지만 계시면 저 하늘이 통채로 무너져도 우리의 하늘을 펼칠수 있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도 안아내릴수 있다는 그 신심에 무적장군인 우리 군대의 위력이 있고 력사에 그 류례가 없고 있을수도 없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위훈의 서사시가 현 세기를 빛나게 장식하고 있다.

세계마라손강자들이 20세기의 왕관을 노리고 다 모여든 세빌라의 무더위속 105리의 주로-

그 주로에는 악랄한 제국주의반동들의 모략도 있었고 팔라의 보따리를 흔들며 잔피를 부린 너절한 추태도 있었고 걸음걸음 참기 어려운 최대의 극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나 어린 처녀 정성옥선수는 장군님만을 생각하며 장군님 기다리시는 결승선을 향해 질풍같이 달려 세계 《마라손녀왕》이 되었으며 저물어가는 20세기의 하늘높이 인류의 눈길을 모아 세우고 내 조국의 국기를 자랑높이 올려 조선인민의 이기는 기질을 만방에 펼치었다.

그렇다. 한번 노하면 칼벼랑도 산산이 흩날려 버리고 천하를 울리며 내닫는 백두산의 폭풍으로 원쑤의 아성을 밀뿌리채 뒤흔들어놓으시는 백두산장군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무적의 기질을 세계는 똑똑히 보았다.

과연 조선이 어떻게 되어 지구의 그 어디서나 것처럼 호언장담하며 전쟁과 파괴도 서슴지 않던 미제가 무릎을 꿇었는지.

그처럼 모질게 봉쇄와 압살의 율가미를 조이고

조여도 오히려 호호탕탕 웃으며 웨치며 전진하며 이기는지.

력사의 20세기는 말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무적필승의 장군이시며 빨찌산의 아들이신 **김정일**동지의 백두산기질은 영원히 이기는 승리의 기질이라고-

보라. 무적의 총대가 번쩍이는 우리의 천리방선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발구름소리높이 새 세기로 비약하는 조선의 현실을!

리수복형의 육탄정신, 길영조형의 자폭정신으로 장군님만을 결사옹위하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로 숨결높이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에 백두산의 기질이 내려친다.

그렇다. 강성대국으로 그 이름 떨칠 주체조선의 기질은 백두산의 기질, **김정일**동지의 기질이다.

## 2월의 아침에

### 와실까 니끼포로바

동녘하늘이 밝아옵니다

대지위에 노을이 붉게 타오릅니다

인류의 봄을 싣고 동터오는

2월의 아침에

주체의 조국을 그리며

**김정일**동지를 우러릅니다

여기 발칸반도의 눈덮인 전야

파도 설레이는 흑해의 기슭에서

이 나라의 이름없는 한 공민이

2월의 명절을 노래합니다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미래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

그 이름 누리에 떨치시는 **김정일**동지

혁명의 폭풍속에서 키우신 뜻 꽃피우시며

주체의 새 시대를 빛내여가십니다

불타는 혁명적열정, 비범한 예지로

천재적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시고

현명한 령도와 비상한 전개력으로

거창한 창조와 건설을 펼쳐가십니다

그이의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그이의 손길따라

온 겨레가 나아갑니다

통일의 한길로 승리의 한길로

**김일성**주주의 붉은 기치 높이 드시고

세기의 령마루에 높이 서시여

대양과 대륙을 굽어보시며

인류의 영원한 봄 꽃피우십니다

찬란한 공산주의 새날을 앞당기십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는 이 아침

다함없는 흥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여

친근한 그이께 영광의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필자는 벨라리아공민임)

## 작가들이여, 락원의 새로운 봉화따라 작품창작에서 전환을 가져오자.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으로 승리와 영광의 자욱만을 새기며 흘러온 20세기의 마지막령마루에 올라선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준마타고 구보로 달려나가고있다. 이 대고조의 앞장에는 장군님께서 전국에 내세워주신 락원의 로동계급이 새로운 봉화를 추켜들고 나가고있다.

감회도 새로운 주체88(1999)년 7월 바람 한점 없는 무더운 열풍속에서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의 원대한 구상을 현지에서 펼쳐나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락원의 로동계급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줄 그 누가 알았으랴.

이날 락원기계공장은 락원의 10명당원들을 배출한 력사가 있는 공장이라고, 락원기계공장에서 성강에서 지퍼올린 봉화를 넘겨받아 전국에 다시 호소하여 새로운 봉화가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은 전화의 나날과 천리마대고조시기 당이 준 과업을 단 한번도 관철하지 못한적이 없는 락원의 로동계급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락원사람들이 오늘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다시한번 락원의 전통을 대를 이어 지키고 빛내어나가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의 표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속에는 성강에서 타오른 오늘의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줄을 계속 전국에 더 높이 타오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과 의지가 어려있다. 또한 여기에는 혁명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장군님을 따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투쟁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락원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충성심과 불굴의 투지가 담겨있다.

당은 언제나 락원의 로동계급을 믿는다시며 자기들의 심장에 또다시 대고조의 새로운 봉화를 지퍼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락원은 이미 대답했다.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물리치고 자체의 기술과 자재로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전자유압조종식굴착기를 만든 기적으로!

이것은 전화의 나날과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되었던 락원의 10명당원들의 결사관철의 전통을 이어받은 새 세대 락원로동계급의 충성심과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며 락원의 봉화가 올린 첫 섬광으로 된다.

락원의 봉화! 이는 성강의 봉화와 더불어 제2의

천리마대고조의 새로운 봉화이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안아오기 위한 위대한 전환과 비약의 봉화이다.

락원에서 지퍼올린 충성과 자력갱생의 봉화를 추켜들고 온 나라가 주체조선 준마의 발구름소리 높이 울리며 세기를 주름잡아 질풍같이 달린다. 하여 온 나라에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만이 맥맥히 흐른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그 시각을 향해 총진격해가는 이 땅 그 어디를 보아도 랑만과 희열에 넘친 사람들의 모습, 걸음새와 일본새가 생기발랄하고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에 일떠서는 새로운 창조물들로 천지개벽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이렇듯 아름답고 역동적이며 랑만적이고 전투적이다.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현실은 마를줄 모르는 형상원천이다. 그러므로 들끓는 시대와 현실의 부름앞에 작가들은 시대와 인민의 혁명적사상감정에 맞는 명작창작으로 화답해야 할것이다.

성강과 락원의 혁명적열풍으로 들끓는 현실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당창건 55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 인민을 다시한번 천리마대고조어로 고무추동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명작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한다.

작가들은 1950년대 천리마를 타고 달리며 창작하던 그 기백, 그 기세로 최근 몇해어간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안고 작품창작전투를 왕성하게 벌려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특히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 장편기행런시 《강성대국행진곡》, 시조 《강원땅의 새 노래》, 서정시 《철령》, 《최전선에 부치는 편지》, 가사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등 시기분야에서 특출한 성과들이 일어났고 장편소설 《지금은 봄이다》, 《열망》은 오늘 사람들에게 특출한 사상예술적감흥을 주고있다.

날로 높아지는 시대의 요구에 비해볼 때 우리 작가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작품창작에서 다시한번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계속 당과 수령의 의도와 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

## 에 대답하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현시기 락원의 봉화따라 대고조의 거세 찬 열풍을 일으키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전환을 가져오는데서 중요한것은 작품창작에서 시대정신이 나래치도록 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오늘의 천리마대진군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 운동을 계속 즐기치게 떠밀고나가고있는 결정적요인, 그 거대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중점을 두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본성에 있어서 당의 문학, 수령의 문학이다.

거듭되는 자연재해, 적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과 우리 나라에 대한 고립압살 및 경제봉쇄 책동으로 원료와 자재, 식량난 등 우리 나라에 일시적난관이 조성되었을 때 이 땅에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에 이어 천리마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올리신분은 과연 누구인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 수령님식으로만 해나가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다.

적들이 사면팔방으로 덤벼들던 전후시기 반혁명의 공세를 몰아내고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그 기적같은 힘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천리마대고조였다면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 수령님의 유훈인 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는 힘도 바로 그때의 천리마대고조와 같은 혁명적대고조에 있다는것이 바로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이고 확신이었다.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사상의지에 의해 성장에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봉화가 타올랐으며 또다시 락원의 새로운 봉화로 천리마대진군의 불길은 더 높이높이 타오르게 되었다.

북방의 머나먼 자강땅에서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량강도로로, 멀리 대흥단군에서 강원도로, 김철과 황철, 회천과 덕천, 평안북도 등 동서남북으로 뻗어간 갈래많은 이 나라의 길들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언제나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고싶으신것이 소원이라시며 천리마의 전설을 창조하시는 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맞고 맞으신 차디찬 눈비는 그 얼마이며 뜨거운 폭양속에 걸으신 그 길은 얼마이던가. 그 길에 끼니를 건느시고 달게 드시던 쪽잠마저 드시지 못한 날들은 얼마인가.

우리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 나래치는 사색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군님의 현지도사육마다 자랑찬 현실이 꽃피나고 그 위대한 사랑이 낳은 혁명적대고조의 불바람은 거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이 땅에 몰아치는 대고조의 열풍은 그대로 온 녀을 조국애와 인민애로 불태우시며 낮이나 밤이나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숨결이다.

작가들은 장군님의 현지도의 날들에 깃들어있는 력사적사실을 품위있게 예술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언제나 위대한 혁명적변혁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진정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투쟁의 위대한 기수이시라는것을 새로운 높이에서 확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력사적인 오늘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발기하시고 떠밀어주시는 과정에 그이께서 펼치시는 사색의 세계, 미래가 나래치는 사색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데로 대담하게 뛰어들어 사람들에게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 위대한 인간세계를 품위있게 펼쳐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현지도로정을 자욱 자욱 따라가며 형상세계에 구현하여 그이께서 펼치시는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그 길우에 꽃피나는 장군님과 인민사이의 혈연적관계에 대해서도 감명깊게 그려야 한다.

작가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전환을 가져오자면 다음으로 투쟁하는 오늘의 시대에 몸을 꼭 잠그고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현되고 있는 새로운 성격미,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우리 시대 영웅들의 원형의 생활에 기초하여 깊이 파고들어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포부는 시대의 영웅, 목표는 강성대국》이라는 시대의 숨결로 호흡하며 살고있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 영웅들인 정성옥, 박옥희, 김유봉, 허용구, 현영라, 리웅찬-이들이 발휘한 높은 사상정신세계에로 치달아오르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단신으로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생각하자,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가는 길이 험난해도 미래를 향해 웃으며 나가자, 높은 실적으로 우리 당을 받들자- 이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 감정정서를 뚫고 장군님의 위대한 보폭의 발맞춰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새로운 성격미,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에 살고있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에 대한 사색과 연구를 현실속에서 무르익혀 시대속에서 살아숨쉬는 주인공형상에서부터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시대 영웅을 그리자면 작가들자신이 영웅의 정신적높이에 올라야 하며 영웅들처럼 호흡하고 창작해야 한다. 특히 우리 시대 영웅들의 인간성격을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원형의 생활에 기초하여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독자들이 알고싶어하고 따라배우려고 하는 시대의 영웅들의 형상을 창조할 때만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 참가한 동시대인 작가라고 할수 있다.

또한 작가들은 시대의 영웅들과 함께 로동계급의

형상창조에서도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왜 대고조의 봉화를 로동계급의 심장속에서부터 지펴주시였는가를, 장군님의 믿음에 투쟁의 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투쟁정신이 작품형상전반에서 울려나오도록 해야 한다.

전화의 나날과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으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면서 대형양수기, 자동차기중기, 굴착기를 비롯한 현대적기계설비를 생산한 락원의 로동계급, 그들이 새형의 산소분리기를 자력갱생의 마치고 만든 기세로 최근에 전자유압조종식굴착기를 만들어 전국에 다시 한번 대고조의 봉화가 타오르도록 한것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로동계급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계승이라고 할수 있다.

작가들은 당과 수령이 바라는것이라면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실천하고야마는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특질을 혁명의 년대를 이어온 락원의 전통-충실성과 결사관철의 측면에서 옹계 밝혀냄으로써 우리의 로동계급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때 자기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할줄 알고 수령에게 힘과 용기를 드릴줄 아는 이 세상 가장 충직한 로동계급임을 온 세상에 자랑높이 구가해야 한다.

충실성과 자력갱생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작가들은 오늘의 시대를 반영한 문학작품에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질을 반영함으로써 혁명의 년대를 역세게 이어온 락원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자력갱생만이 오늘의 난국을 물리치고 내 나라, 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사상이 형상을 통해 스스로 울려나오게 해야 한다.

작가들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뜨거운 열풍속에 문학작품창작에서 전환을 가져오자면 락원의 10명 당원들처럼 문학의 모든 형태와 종류를 다양하게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것이다.

단편소설, 벽소설, 실화문학, 단편실화소설, 수필, 단상 등 다양하고 짧은 형식의 작품들은 천리마의 준마타고 구보로 달리는 약동하는 우리 현실이 절실히 요구하는 기동성있고 호소성이 강한 전투적인 문학형태이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나온 작품들이 사람들의 추억속에 남아 오늘도 그때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고무하고있는것도 작가들이 천리마시대의 인간과 생활을 그 시대에 맞는 짧고 전투적인 형식의 작품들로 창작한데 있다. 그러므로 시대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호흡할수 있는 짧은 형식의 단편작품창작에서 자기의 창작적 재능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

우리 문학은 당의 사상과 정치를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이다.

작가들은 당사상전선을 지켜선 영예와 긍지 드높이 혁명의 필봉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봉화에 호응해야 하며 그러자면 실력전의 강행군을 힘있게 벌려 당의 사상과 의지를 민감하게 감수하고 한편의 작품을 써도 장군님의 기억속에 남는, 시대와 인민의 기억속에 길이 남을 명작을 창작해야 한다.

작가들이여, 그대들이 창작한 작품 한편한편이 우리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대고조의 새로운 봉화따라 강성대국건설로 노도와 같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명작이 되게, 시대의 기치가 되게 하라!

## 명언해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김일성동지의 당의 본성이며 기본특징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은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끝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데 그 본성과 특징이 있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이며 보호자이다. 바로 여기에 지난 시기의 로동계급의 당들과 구별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의 본성이 있으며 기본특징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밑에 일상적으로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것을 당활동과 일군들의 사업에서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고있다. 바로 여기에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바탕이 있다.

## 주체의 락원 가구시는 행복의 창조자

2월, 2월이 왔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준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기쁨과 긍지를 안고 자랑스럽게 뿔뿔이 맞이한 2000년의 2월이다.

해마다 2월이 오면 그러하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맞이한 2000년의 2월이어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달려간다.

일찌기 백두산에서 빨치산의 위대한 아들로 탄생하시여 회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애국애민의 숭고한 뜻을 키워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해썬는 룡남산마루에 거연히 서시여 사랑하는 조국산천을 굽어보시며 조선을 빛내일 엄숙한 력사의 맹세를 다지실 때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굽이친 것은 아버지수령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주체의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어나가실 숭고한 사명감이었고 드립 없는 의지였다.

그날의 그 맹세를 지키시여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수십년세월 바쳐오신 사색과 정열,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랴.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거창한 전변과 변혁, 세기적인 기적으로 수놓아온 70년대와 80년대의 사회주의대건설의 나날, 아버지수령님을 천만뜻밖에도 잃고 중중첩첩 겹쌓이는 고난과 시련을 단신으로 헤치시며 우리 조국과 혁명을 이끌어오신 90년대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나날, 그 나날들에 우리 장군님 집무실과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서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이며 험산준령을 넘으시며 헤쳐가신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은 또 몇천몇만리 이던가.

그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것은 아버지수령님 그토록 사랑하시고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인민,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훌륭한 우리 인민을 가장 행복하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빛내여주시려는 오직 그 한생각뿐이었다.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로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 나라, 내 조국땅 위에 끊임없이 짙어가시는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욱자욱마다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수 없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깃들어있거늘.

주체87(1998)년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전선동부 군부대를 향해 떠난것은 새벽 3시경이었다.

간밤도 꼬박 새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차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실 예정이시였다.

그런데 길이 어찌나 험한지 차가 몹시 들추는 바람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끝내 쉬실수 없으시였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울퉁불퉁한 길과 울망줄망한 다락논들과 폐기발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신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시여 련련히 뻗어간 험준한 산발들과 미명속에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르며 수행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산골짜기 여기저기 널려있는 다락논들과 폐기발들을 가리키시면서 강원도의 토지를 정리해야 하겠다고 하시며 즉시에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급히 모여온 일군들에게 강원도의 토지를 정리하면 많은 부침땅을 얻을수 있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본보기로 하여 전국의 토지정리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사업으로, 나라의 부강변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으로 내밀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른새벽 길가에서 열린 협의회.

피로에 쌓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갈리신 음성을 들으며 일군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아침식사도 안하시고 길을 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운전사에게 뭘 좀 요기할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운전사는 밥가마치 한덩지밖에 없다고 몹시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밥가마치를 내놓기 저어하는 운전사에게 밥가마치가 어떻게가고 하시며 차애로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밥가마치 한덩지로 끼니를 에우시고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쪽잠마저도 제대로 주무실수 없는 험한 길을 이어가시며 하루하루를 인민의 행복을 위



한 헌신적인 사랑과 복무의 력사로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자신께서는 현지도로 날과 날을 보내기때문에 어느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자보지 못하였다고, 자신께서 잠을 자는것은 현지도의 길에 자동차안에서 잠간 눈을 붙이는것뿐이라고, 이제는 그것이 습관되어 오히려 침대에서 쉬는것이 불편해보인다고, 자동차안에서 조금 자는것이 제일 단잠이고 쉬는 때이며 그것이 휴식의 전부이라고...

인민을 위하여 바치는 고생을 락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만이 이런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실수 있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인민중심의 정치를 이 땅우에 펼쳐가시며 인민의 행복이 꽃피나는 주체의 락원을 건설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어버이로 모시여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주체의 락원으로 더더욱 빛날것이니.

2월이 오면 더더욱 뜨거워지는 우리의 마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이제 더는 험한 길을 걷지 말아주시시오.

생신날 하루라도 편히 쉬여주시시오.

본사기자

## 바다는 멀리 있지 않다

장원준

난생 처음

이런 물고기를 본다며

눈굽을 찌는 이 산골사람들에게

바다는 멀리 있었다

풀뿌리도 씹으며

때론 나무껍질로 끼니도 이으며

오늘의 어려운 행군길에

허리띠를 조였던 사람들

이제는 바다 먼 산촌이라 말하지 말자

우리 장군님

오시고 또 오시여

이 두메오지에 펼쳐주신 양어못 물고기여서

더 뜨겁게 목메여우는

이 사람들에게

바다는 멀리 있지 않다

못가에 떼지어 흐르는 저 살찐 칠색송어

더운 김 서리는 물결우에

어리광치듯 뛰노는 열대메기를 바라보며

더 행복할 래일을 그려보는 이들에게

동서해를 다 합쳐도 담지 못할

그 사랑의 바다에 삶의 닻을 내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 바다는 멀리 있지 않다

저녁이면 모여앉아

물고기를 씻어내는 녀인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한적했던 이 산촌 파도소리는 없어도

밤가는줄 모르고

일렁일 기쁨의 파도여

출렁일 노래의 파도여

아 전설같은 이 행복

우리 장군님의 그 야전복자락에서 꽃피난것이여서

이 산촌 못가에서

내 뜨거움에 젖는 생각

장군님만 계시면

작은 시내물도 행복의 바다로 펼쳐지는

그 불변의 진리를 안고

강성대국 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다는 멀리 있지 않다

장군님만 믿고 사는

이 역센 사람들의 심장속에

바다는 멀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 자랑찬 위훈의 창조자로...

천리마를 타고 구보로 달려가는 우리 인민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시대의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여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혁명의 승리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오늘의 거창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모두를 시대의 영웅으로, 위훈의 창조자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신다.

지난해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제2의 천리마대진군선구자대회도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러한 숭고한 뜻에 의해 마련된 역사적대회였다.

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얼마 시일이 흐르지 않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우리 인민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신자의 영예를 떨치려고 한사람같이 떨쳐일떠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는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시대이며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되고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인민대중의 사상이 발동되고 지혜와 재능이 높이 발휘될 때 무궁무진한 힘을 날게 되며 그 어떤 요새도 능히 점령해나갈수 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대회일정으로부터 대회 전과정을 소개전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깊은 보살핌속에는 우리 인민모두를 벽찬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위훈의 창조자로 되게 하시려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회가 끝난후에도 공장, 기업소들에서 진행되는 우리 시대 영웅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결의모임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그 모임들이 높은 정치적열의와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그뿐만아니라 각 도들에서 진행되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회의들에서 시대의 선구자들을 적극 내세워 주시여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회적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제2의 천리마대진군선구자들을 따라배우고 새로운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열풍이 온 나라에 끓어번져 공장과 농촌, 탄광과 어촌들에서 매일 매 시각 새로운 위훈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 11월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전기기관차 생산과 수리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한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주시였다. 크나큰 믿음과 은정이 어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문은 오늘의 벽찬 천리마대진군에서 시대의 선구자로 자라난 이곳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높이 내세워주시는 최대의 신임이고 높은 평가였다.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하여 100대의 전기기관차를 생산, 수리한 그들의 성과는 참으로 자랑스러운것이였다. 엄혹한 시련속에서 불굴의 투지와 완강한 인내력으로 성과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그들의 위훈은 더욱 빛났으며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우리 시대 선구자들의 위훈을 귀중히 여기시고 적극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종업원들이 간고분투하여 새로 만든 전기기관차의 이름을 《제2의 천리마대진군》호로 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안고 자력갱생의 빛나는 창조물인 《제2의 천리마대진군》호 전기기관차들은 지금 두 줄기의 궤도우에 힘차게 달리고있다.

이것은 비단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의 로동계급들만이 아닌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의 과학자들과 문평제련소의 기술자들, 천성청년탄광과 령대알탄공장에 파견된 《2월17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는 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가치있는 연구성과로 보답하려는 열의를 더더욱 불려일으키고있다. 이렇듯 벽찬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우리 시대, 우리 인민모두를 자랑찬 위훈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비범성은 강성대국 건설의 갈피마다에 아로새겨져있다.

## 20 세기를 빛나게 장식한 기념비적명작

-수령형상에 바쳐진 새형의 서사시들을 두고-

최연경

희망찬 새해 2천년을 맞이한 인류는 인류사에 미증유의 대혼란을 남긴 20세기를 감회로이 돌이켜 본다.

자주성의 시대, 이것이 바로 20세기가 인류사에 가져온 위대한 전환에 대한 역사적총화이다.

허나 20세기는 성공과 획득만이 아니라 좌절과 상실의 광극단이 한데 뒤엉켜 몹시도 격동한 역사의 진통기였다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격동하는 20세기의 이 소용돌이속에서 내 나라, 내 조국은 주체의 한길을 따라 참으로 위대한 전진을 이룩해왔다.

바로 이것이 세기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온 북반은 조선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20세기의 긍지 높은 총화이다.

주체문학은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국과 더불어 영광넘치는 룡성변영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일찌기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양양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룩되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면 그의 지도밑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1970년대초의 몇해어간에 주체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기간에 영화예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여러 부문들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명작들이 연이어 창작되어 세상에 나왔으며 그 과정에 문학예술인들의 대오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앞장서 나가는 선구자의 대오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문학예술혁명>, <20세기 문예부흥>이라고 하였는데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문예부흥,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빛날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총화이며 조선의 긍지이고 영광이다.

20세기를 빛내인 주체문학의 명작에는 1990년대 중엽부터 우리 시단에 혜성처럼 출현한 새형의 서사시문학도 당당히 들어간다.

새형의 서사시문학은 용해공출신의 젊고 재능있는 시인 김만영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돛에 삼가 드린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로부터 시작하여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번영하라 김일성조국이어》**,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와 시인 신병강이 위대한 수령님 서거 3돛에 삼가 드린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 그리고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 명준섭의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등 일련의 서사시군을 이루면서 20세기 주체문학의 마지막장을 참으로 빛나게 장식하였다.

새로 나온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와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를 중심으로 이 서사시들의 혁신성을 밝혀보기로 한다.

### 위인의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의 최고정화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와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는 위인의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의 결정체이며 그 최고의 정화이다.

일찌기 그 어느 문학도 어버이수령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위대한 위인의 세계를 그처럼 대담하게, 그처럼 감동적으로, 그처럼 진실하게 노래하지는 못하였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수령형상에 바쳐진 새형의 서사시들을 주체문학의 대화원을 빛나게 장식한 20세기의 특출한 명작으로 되게 한 근본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정일**시대로 누리에 찬란할 21세기 주체문학의 눈부신 발전을 력사앞에 기약해준 젊고 재능있는 시인들의 귀중한 공헌이 있다.

문학은 인간학이며 인간학의 높이는 곧 그가 형상하는 인간세계의 높이이다. 인간이 위대하여 문학이 위대한것이다.

위대한 인간의 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면 그럴수록 그만큼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높은 경지에 오를수 있다.

하다면 새형의 서사시문학이 위대한 인간형상에서 새롭게 개척한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인의 위대한 세계에 직접적으로 대담하게 들어서고있는것이다.

시인 김만영은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서사시 **《평**

양시간은 영원하리라》에서 그것을 자기 고유의 것으로 더욱 굳히었던 것처럼 이번엔 새로 쓴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에서도 그러한 대답성을 유감없이, 거침없이 보여주고있다.

시인은 우리 수령님께서 무수한 국경과 국경을 넘어 지경과 지경을 지나 이 행성을 달리시던 그날의 그 열차,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그 열차에 함께 오르라고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 열차를 따라 걸음걸음 자욱자욱 수령님을 모시고 그날의 그 귀로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날의 그 위대한 위인의 체험세계를 함께 체험하면서 그날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말씀을 되새겨보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인민들은 무려 6만여 리나 되는 유럽장정을 끝내신 70고령의 수령님건강이 하도 넘려되시여 어느 한 나라 작은 도중역에 하루 밤 쉬고 떠나시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한없는 충효의 세계에 눈물을 적시면서도 오히려 **김정일** 동지만 보면 자신의 피로는 당장 다 풀린다 하시며 하루라도 빨리 조국으로 가자고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뜨거운 말씀에 다시 또 다시 눈물적시기도 하며 수령님과 함께 그이의 수첩 첫 갈피에 모셔진 장군님의 사진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다.

인민은 들었다. 확신에 넘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을.

-앞으로 세계를 이끌 위인은  
**김정일** 동지밖에 없소  
이것은 이번 외국방문을 통해  
더 굳어진 진리요!

그리고 인민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수령님 10년은 더 젊어지신듯 활기에 넘치시여 조용히 부르시는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그 아무리 재능있는 시인의 고르고 다듬은 천만 마디 시어으로써도 시인의 형상세계속에 금언으로 울리는 수령님의 말씀, 그 체험세계 그대로의 것처럼 위인의 위대한 세계를 더 잘, 더 깊이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위인의 위대한 세계는 위인만이 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다 아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세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다 아신다.

위인의 명언과 말씀, 그것은 그대로 위인의 그 위대한 사상과 감정, 정서의 결정체이며 그 정화인 것이다.

시인 신병강은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에서 조선혁명박물관 《수령님과 전우》관에 들어서며 시인에게 또 나에 대한 시를 쓰려고 하는

가고 하시며 쓰려면 김혁이, 김책이, 강건, 오중흠... 나의 전우들에 대하여 써달라고 분명 말씀하시는 듯한 수령님께 아버지수령님의 그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를 노래하련다고 말씀드리는데는 것이다.

새형의 서사시문학이 위대한 인간형상에서 새롭게 개척한것은 또한 위인의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는 물론 그 기질과 숨결, 맥박에 이르기까지 위인의 그 위대한 인간세계의 전모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고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전례없는 혁신이며 바로 여기에 서사시가 지난시기보다 우리 인민의 친아버지이시며 가장 위대하고 친근한 동지로서의 수령의 위인상을 형상하는데서 크게 한걸음 내디딘 귀중한 공적이 있는 것이다.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이의 한없는 충효의 감정과 정서, 사상과 의지 그리고 숨결과 맥박까지도 섬세하게 보여준 감동적인 형상을 통해 잘 표현하였다.

우리 안다 해도  
어찌 다 알수 있었으랴  
하루 24시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마음속에  
수령님을 모시고 사임하시는  
**김정일** 동지의 그 심중을

이 나라 인민들이 어찌 다 알았으랴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장  
그 엄숙한 주석단에 앉아계신 장군님  
온 나라가 장군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시각에  
뜻밖에도 8년전 그날 제9기 1차회의에서 하신  
우리 수령님의 시정연설을 내보내주실줄을

무슨 일을 하나 구상하시여도  
무슨 일을 하나 끝내시여도  
수령님을 찾아뵙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시는 그이

그전날처럼  
활달하신 필체로 날자와 시간까지 밝혀놓으며  
자신이 보신 문건을  
오늘도 수령님 집무탁우에 정히 놓도록 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숭고한 의리의 품모  
사람들이여, 가슴에 고이 고이 안으시라

시인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수령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모시는 우리 장군님의 정이 그리도 절절하고 애끓는것임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었겠는가.

이처럼 수령형상에 바쳐진 새형의 서사시들은 위인의 세계에 대답하게 뛰어들어 그 위대한 사상과

감정, 숨결과 맥박을 참으로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위인을 그대로 닮은 여기에 20세기의 명작으로  
서의 서사시들의 완벽성의 비결이 있다.

## 우리 식 서사시의 새로운 본보기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와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는 우리 식 서사시의 새로운 본보기이다. 바로 여기에 수령형상에 바쳐진 새형의 서사시문학이 20세기를 빛내인 주체문학의 결출한 명작들로 된 중요한 근거가 있다. 바로 여기로부터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서사시, 송가형식의 새로운 서사시가 시작되고있다.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와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등은 서사시의 형태적요구를 가장 전형적으로 체현하면서도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혁신하고 송가적특성을 훌륭히 구현한 우리 식 서사시의 새로운 본보기이다.

서사시는 어디까지나 서사시로 되어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혁신하고 민족적특성을 살린다고 하여 이미 세계적으로 약속공인되어있고 전통적으로 굳어진 형태적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격적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다른 문학이지 서사시는 아닌것이다.

문제는 약속된 개념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민족적특성에 맞게 보다 더 좋게, 보다 더 완벽하게 혁신하고 완성하는데 있는것이다.

서사시는 어디까지나 서사적묘사방식에 속하는 전형적인 시문학형식으로서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서사적요소, 형상의 서사적방식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 문학은 이미 서사시 《백두산》과 같은 우리 식 서사시의 훌륭한 본보기를 가지고있다.

서사시 《백두산》은 항일혁명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장을 펼쳐놓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기본사건으로 하여 그것을 주인공들의 운명선과 밀착시켜 형상을 서사적으로 그리고있다. 서사시 《백두산》은 그 빛나는 형상적성과로 하여 두말할것도 없이 수령형상창조에서 획기적단계를 열어놓은 우리 식 서사시의 훌륭한 본보기로, 세계적인 걸작으로 되였다.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와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는 서사적묘사방식을 위주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서사시 《백두산》과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그 서사적묘사방식의 구사에서는 새로운 특성을 보이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와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는 서사시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서사적묘사방식에 기초한 수령형상서사시이면서도 그 서사적묘사

방식의 구현양상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우리 식 서사시의 새로운 또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형태적측면에서 본 이 서사시들의 혁신적성과가 있는것이다.

이 서사시들은 어느 하나의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여 이야기를 펼쳐나가고있지 않다.

서사시들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거나 력사적순차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력사를 개괄한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력사에 실재하였던 가장 전형적이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실재한 위인의 사적과 생활을 더하지도 덜지도 않고 그대로 펼쳐보이고있다.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는 아버지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이였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는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를 거창한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여준다.

그러나 거기에는 《너는 김혁 나는 성주》,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수령님 남기신 불멸의 글밭도 있고 쏟아지는 눈물 씹어삼키시며 숙영지 우등불가에서 수령님 쓰고쓰시던 전사의 그 추도문도 있고 고인의 가슴에 금별메달 달아주시며 수령님 하염없이 흘리시는 눈물에 젖고 또 젖던 그 손수건에 대한 가슴저린 이야기도 있고 생애의 마지막날까지도 수령님 자신의 금고에 귀중히 간직하셨던 못잇을 전우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늘 《동지애의 노래》를 들으며 항일의 전사들을 못잇에 대성산 혁명렬사릉을 바라보시며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말씀, 대흥단에 전사의 반신상을 세워주시고도 그앞에 꽃뭉을 하나 엮어주지 못한것이 그리도 가슴에 걸리시여 두고두고 그 일을 잊지 못하시고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음성도 들려온다.

그리고 거기엔 전사들의 수첩에, 함께 찍은 사진과 보고문건들에 《영원히 한길에서》, 《너는 허담... 나는 정일...》, 《수령님을 모시고 너와 나》, 우리 장군님께서 쓰고쓰신 못잇을 그 동지애의 활달한 필체도 눈앞에 안겨온다.

서사시는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를 말해주는 이 가지가지의 뜻깊은 이야기들의 중심에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못잇을 이야기를 두드러지게 펼치고있다.

그것은 어느해인가 아버지수령님을 모신 소박한 연회장에서 있었던 사연깊은 이야기이다.

-동무들!

우리가 일찌기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될번했는가

태양이 없이야 조선이 뭉고

인민이 뭉겠는가...

우리 이걸 똑똑히 알고

백골이 진토가 된다 해도

수령님을 천세만세 잘 모셔야 하오!

이것은 거듭거듭되는 어버이수령님의 만류끝에 항일의 로투사 김일동지가 연회에서 한 말이다.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 들리고 장내는 걱정 of 파도로 설레이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도 격하신 감정에 빠져 누르시며 호탕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었다.

-내 이럴줄 알았더니...  
이제는 내가 동무들에게  
《언권》을 얻고  
좀 이야기하자고 하오!

아, 수령님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신다  
흘러간 한평생을 돌이켜보시는  
뜻깊은 이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 있으랴만  
수령님 하시는 말씀은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

만경대를 떠나 혁명의 길에 오르시여  
지하투쟁을 할 때나  
무장투쟁을 할 때나  
동지들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극진히 보호해주었다고

-그들이 뭐  
내가 앞으로 수상을 할줄 알고  
그렇게 한것은 아니야  
순수 동지적의리지  
이게 바로 동지애라는거야...

동지에 대한 절대불변의 사랑과 믿음으로 차넘치  
는 어버이수령님의 천금같은 말씀, 위대한 수령, 위  
대한 동지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충성으로 뜨거운  
투사의 걱정의 웨침, 소박한 연회에서 있는 이 눈물  
겨운 사연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토록 새겨오  
신 그 거룩한 동지애의 력사를 더 뜻깊게, 더 가슴  
뜨겁게, 더 절절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할것이다. 이  
것은 참으로 극적인 서사적화폭이다.

진정 여기에는 위대한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  
로 승리하여왔으며 동지애로 영원히 빛날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력사,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가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바로 여기에 길지는 않아도 그리  
고 그 어떤 거창한 력사적사변을 줄거리로 하지 않  
았어도 위인의 위대한 력사를 력사적사실 그대로  
폭넓고 깊이있게 다 보여준, 최상의 수준에서 일반  
화한 이 서사시의 사상에술적특성이 있으며 새로운  
혁신이 있다.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에는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것처럼 사랑하시던 오랜 전우,  
당에 충실한 전사를 혁명렬사릉에 안장한 그날 그

투사를 잊지 못하시여, 그를 잃은 슬픔이 하도 크시  
여 집무실에서 홀로 추도가를 들으시며 그를 추모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송수  
화기에서 들려오는 그 추도가를 들으시며 록음을  
끄지 말라고, 우리 함께 추도가를 들으며 고인을  
추억하자고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엄한 영상을  
여기서 우리 뵈는다.

력사에 실재하였던 위대한 사실, 위대한 생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 이런 서사적묘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를 그토록 감명깊게 노래하지는 못했을것이다.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와 《불멸  
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가 우리 식 서사시의  
새로운 본보기로 되는것은 또한 그 강한 서정성에  
있다.

서정성은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이다. 시는  
풍부한 서정미로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서사시라  
고 하여 서정성이 없을수 없다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사적묘사방식을 위주로 하고있는 서사  
시에서 서정성이 어떤 형상적역할을 하는가 하는것  
은 서사시에 따라 같을수 없다.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와 《불멸  
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는 서정성이 강한 서  
사시이다. 이 시들에서는 일관하여 즐기치게 맥박  
치고있는 서정성이 서사적묘사에 못지 않게 중요한  
형상적역할을 하고있다. 지어 서사적묘사를 하는  
경우에도 거기에는 강한 서정성이 안받침되고있다.

이것은 서사시의 송가적특성과 관련된다. 이 시  
들에서는 지난 시기의 서사시와는 달리 서정적주인  
공이 어디까지나 시인이다. 따라서 이 시들에 일관  
하고있는것은 우리 시대의 주도적감정인 당과 수령  
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감정, 열화와 같은 송축의  
감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  
한 송가로 되고있는것이다.

서정적주인공인 시인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  
는 장군님의 성스러운 력사의 자취를 따라 자욱자  
욱 따라 걷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거  
기서 보고 느낀, 터지지 않고는 못건딜 감격의 걱정,  
충성의 걱정을 한껏 터치고있는것이다.

서사시들의 임의의 대목을 들어보아도 거기에는  
서정적주인공의 열화와 같은 송축과 충성의 걱정이  
펼 펼 뽐고있다.

아, 이것이였구나!  
피줄을 이은 혈연관계도  
나이와 직권도 초월한  
인간 **김일성** 동지를 따르는  
사상의 한뜻  
마음의 한뜻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애의 력사에 매혹된

서정적주인공의 격찬의 웨침이다.

그이는 오직  
동지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분  
동지를 위해서라면  
하루밤에도 천리길을 가시는  
특유한 동지애의 소유자  
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육탄이 되어 나서시는  
동지애의 화신

이것은 위대한 동지애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시인의 격정의 토로이다. 이 강렬한 충성과 송축의 격정, 차넘치는 서정성은 이미 시인 김만영이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에서 처음으로 보여주고 서사시 《평양시공간은 영원하리라》,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에서 더욱 뚜렷한 양상으로 품격화한 이 서사시들의 본질적특성이다.

이처럼 서사시의 기본묘사대상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적, 혁명실록에 대한 력사의 증견자와도 같은 진실하고 성실한 서사적묘사와 함께 거기에 못지 않게 그 위인상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시인과 인민의 열화와 같은 송축과 충성의 감정을 뜨겁게, 격조높이 한껏 터치고있는 여기에 종래의 서사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송가적서사시로서의 새형의 서사시들의 사상에술적특성과 새로운 혁신성이 있다.

## 재능과 열정의 결정체-시인의 뚜렷한 개성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와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는 시인의 개성이 더없이 뚜렷한 시다운 시들이다. 바로 이것이 수령형상에 바쳐진 새형의 서사시들을 20세기를 빛내인 명작으로 되게 한 하나의 중요한 형상적요인이다.

시인, 작가의 뚜렷한 개성은 문학일반에 다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서정의 문학인 시문학에서 더더욱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서정은 그 본성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 활정서인것만큼 고유한 특성을 띠기마련이다. 시의 서정은 다른 종류의 문학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서정과 달리 시인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장이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시인의 개성이 직접 표현된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하는 것이다. 시인의 뚜렷한 얼굴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의미에서 시라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한 시만이 참으로 시다운 시로 될수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하여 모든 시가 시인의 개성

이 뚜렷한 시로 되는것은 아니다.

재능과 자질, 사색과 열정이 풍부하고 뜨거운 시인만이 개성이 뚜렷한 시를 창작할수 있다.

김만영과 신병강은 개성이 뚜렷한 시인, 그 재능과 열정으로 전도가 촉망되는 시인들이다.

자유자재하고 종횡무진한 시적환상에 기초한 세계적판도에서의 폭넓고 단수높은 시적일반화, 력사의 충실한 기록자, 그 증견자로만 되기에는 가슴에 받아안은 위인의 세계가 너무도 위대하고 숭고하며 거룩하고 감동적이어서 더는 곁에 서서 뒤따르며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 체험세계에 직접 대담하게 뛰어들어 격정을 터뜨리고야마는 열렬한 주장, 자기 체험세계에 조국을, 인민을, 세계를, 시대와 력사를 부르는 강한 호소성과 자기 주장을 강조해 보이는 반복강조의 수법 등은 시인 김만영의 시에서 가장 뚜렷이 엿보이는 개성이다.

위대한 력사와 위인상에 대한 폭넓은 일반화의 높은 경지는 이미 시인 김만영이 자기의 첫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에서부터 뚜렷이 보여준 가장 귀중하고 뚜렷한 개성이다.

시인은 풍만한 시적환상에 기초한 이런 능란한 예술적일반화의 힘으로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에서 공백없이 흘러간 위대한 수령님의 5년간의 위대한 혁명력사, 가장 간고하고 가장 어려운, 일찌기 력사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그 역경을 가장 위대한 영웅서사시로 아로새겨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5년간의 혁명실록, 그것을 통하여 수령영생의 참뜻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시인은 심장으로 웨친다.

나는 생각하노라  
영생이란 무엇인가  
5년세월을 수놓아오신  
우리 장군님의 혁명실록  
그 갈피갈피를 번지며  
나는 력사앞에 말하노니

그것은  
그 어떤 개념도 구호도 상념도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생의 활동!  
가장 숭상하고 받들며 따르는  
우리 인민과 함께 끝없이 사시는  
위대한 수령의 영원한 삶과 투쟁!

여기서는 그 절대의 위대성으로 하여 영생하시는 수령님, 선대수령의 영생을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노래되고있다.

한가슴에 받아안기만 하고 그 위대성의 뜻을 음미만 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도 성스러운것이어서 시인은 더 참지 못하고 시의 곳곳에서 화산처럼 분출



하는 걱정을 터뜨리며 혼자 감수하기에는 너무도  
벽산 이 걱정을 함께 나누자고 사람들을, 조국을,  
인민을 자기의 체험세계에 부른다.

물노니  
인민이여, 조국이여  
우리 장군님  
5년세월 그 언제 한번  
혼자 가신적이 있었더나  
1년 365일 마음속 가장 깊은곳에  
수령님을 모시고 가셨었어라

이것은 그의 시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한구절이다.  
그는 이처럼 걱정을 체험하게 되는 때마다 《사람  
들이여》, 《물어보자 사람들이여》, 《인민이여  
조국이여》, 《보라 력사여》, 《사람들이여 조용  
히 귀기울여보시라》 등으로 사람들을 자기 걱정  
의 세계에 열정적으로 불러들인다. 이리하여 시는  
다만 서정시만이 아닌, 어디까지나 시인이, 인민이  
수령께 드리는 열렬한 송가로서의 서사시의 특색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자기의 주장과 걱정 그것을  
더더욱 강조하고 싶어 반복강조의 수법을 즐겨 애용  
하고있다. 반복강조수법의 능란하고도 다양한 그리  
고 반복적인 활용, 그것으로 하여 수령에 대한 자기  
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한껏 부각해보이는것은  
확실히 시인 김만영의 뚜렷한 개성적특성이다.

시인 김만영이 개성이 뚜렷한 시인이려면 시인  
신병강 또한 두드러진 개성으로 하여 그와 대조되  
는 개성적인 시인이다.

시인 김만영이 종횡무진 자유분방하게 시대와 력  
사를, 조국과 세계관도를 거침없이, 남김없이 휘돌  
려대는데 특기가 있다면 시인 신병강은 보다 조용  
히 그러나 중심깊이 그 위대한 인간의 세계, 위인의  
심중세계에도 파고들어 그 위대성을 한껏 심오하  
게 드러내보이는것이 특징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위인의 세계를 가장 감명깊게 펼쳐보여주는 력사  
중에서도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를 종자로 삼고있는  
것부터가 이러한 시인의 의도와 개성을 담보해주고  
있다고 할수 있다.

시인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동지의 사랑을 안  
고오시여 그 사랑으로 혁명의 길을 여시고 그 사랑

으로 한평생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였으며 그 거  
룩한 사랑을 혁명의 귀중한 유산으로 남기고가신  
아버 이수령님의 성스러운 동지애의 력사를 가장 경  
건한 마음으로, 그처럼 가슴저린 심정으로 더듬어  
보며 그 동지애의 력사의 위대함을, 영원함을 그렇  
듯 철학적무게가 있게 밝혀내고있다.

아버 이수령님의 이 위대한 동지의 사랑을 숭고한  
인정미로 끝없이 이어 동지부자가 되신 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동지애의  
력을 가슴깊이 되새겨본 시인은 한평생 그 《동  
지행》 열차를 타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동지로  
만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를,  
그 력사에 깃든 한없는 위인상을 인간학적으로 깊  
이깊이 개방해보이고있는것이다.

시인 신병강은 실재한 력사적사실과 생활에 기초  
하여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전개해나가면서도 생활  
의 계기마다에서 잊지 않고 위인의 숭고한 내면세  
계를 깊이 파헤쳐보이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서사  
시는 서사시이면서도 서정시에 못지 않게 서정성이  
더없이 풍부한것이다. 바로 여기에 또한 시인 신병  
강의 뚜렷한 개성이 있다.

빨찌산추도가와 더불어 충신의 한생을 추억하시  
며 집무실에서 홀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경애  
하는 장군님의 그 위대한 세계, 나를 만나면 그렇게  
도 반가와 달려오던 동무가 끝까지 혁명을 하자고  
서로 다짐하고서 이렇게 중도에서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떠나간 전사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  
열을 터뜨리시는 그 숭고한 세계!

참으로 오르고올라도 다는 못을 한없는 그 위  
인의 세계를 인간학의 숭고한 경지에서 깊이있게,  
감동적으로 개방해보이는 형상의 묘리, 특기야말로  
시인 신병강의 귀중한 개성이다.

참으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와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에 이르기까지  
1990년대중엽 한개의 서사시군을 이루면서 주체시  
문단에 새롭게 등단한 새형의 서사시들은 그 뚜렷  
한 사상에술적특성과 특출한 성과, 혁신성으로 하  
여 수령형상서사시문학의 새로운 하나의 개척으로,  
20세기 주체시문학을 빛나게 장식한 시대적결작  
으로 된다.

## 상식

# 남이 알아듣게 말을 하려면

자기가 하는 말을 남이 알아듣기 좋게 하려면 초  
당 2.5개 단어의 속도로 말하여야 한다.

13개이상의 단어로 된 문장을 귀로 들었을 때에  
는 그 의미를 포착하기 힘들다.

어떤 말이 사이를 두지 않고 5.5초이상 계속되면

역시 리해의 실마리가 끊어진다.

런속 14개 단어를 들으면 처음말이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를 잊어버린다.

18개이상의 단어를 문장으로 묶어 말하면 말을  
알아듣는 청중이 15프로 줄어든다.

## 미래에 살자

현승남

##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앉으셨던 의자를 뒤쪽으로 약간 밀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천천히 집무탁앞을 거니시었다. 밝은 미색의 창가림이 량쪽으로 갈라진 창문앞에 다가서시어 조용히 창문을 여시었다. 시원한 바람이 가슴 몽쿨하게 정원숲의 향기를 실어들인다. 모든것이 왕성하게 푸르려가는 여름이다. 하늘이 울고 땅이 울던 민족대국상의 그날로부터 어언간에 3년!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또다시 맞이해야 하는 이해 피눈물의 설을 쇠던 일이 어제같은데 어느사이 또 겨울가고 봄가고 여름이 되어 정원숲이 저리도 무성했을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큰숨을 들이쉬시었다.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부위를 가만가만 두드리시었다. 우리 나라 명산중의 하나인 정방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신데 이어 그 길로 곧장 여러곳의 인민군구분대들을 시찰하고 오늘새벽에야 평양으로 돌아오신 그이이시었다.

돌아오면 돌아오는대로 또 너무도 많은 일감을 해해야 하는 그이이시었다. 정말 할 일이 많으셨다.

집무실의 창가로 활달하게 가지를 펼친 은백양나무줄기를 타고 울긋불긋 몸단장을 곱게 한 청더구리 한마리가 채치있게 오르내린다. 그밑으로 또 잔등에 까만 줄무늬를 엮은 다람쥐 한마리가 떨어질듯 뛰어내릴듯 깜찍하게 재롱을 부리며 뒤편다. 마치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창가에 다가서시기를 기다리길라도 했던듯싶다. 정말이지 그 재롱, 그 채치로 우리 장군님 순간이나마 만시름 잊고 쉬시게 해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가슴우에 두팔을 엮걸어엮은채 잠시 자연의 향유자들을 바라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 나직이 외우시었다.

《군위원장이란 말이지...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란 사람이 그랬다?...》

자신도 모르게 긴숨을 내쉬시었다. 실망의 빛과 함께 안색이 흐려지셨다. 창력을 등지며 돌아섰다가 다시금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었다. 커다란 지구의가 묵직하게 자리를 잡은 맞은편 벽앞까지 갔다가 돌아서신 그이께서는 이윽고 집무탁앞에 이르러 방금 보셨던 문건 하나를 집어드셨다. 이미 보았던 내용들을 몇장씩 번저가며 다시 보셨다. 여러군데 밑줄도 긋고 중요표식도 하신 글줄들에 시선이 부딪칠 때마다 번쩍번쩍 불빛이 튀었다. 문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오른손으로 집무탁우에 놓여있는 마지크를 찾아드시었다. 손가락으로 마지크를 몇

번 돌리다가 자리에 앉지 않은채 문건을 집무탁우에 놓고 그 앞표지에 힘차게 친필을 적으시었다.

땅은 곧 나라도. 당적 행정적 법적 대책을 강하게 세울것.

걱정의 파도같은 흥분을 느끼시었다. 마지크를 놓지 못한채 잠시 그대로 서계시다가 더욱 아픈 마음으로 그 문건을 집어드시었다.

그 문건은 정방산현지지도때부터 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서던 어제저녁까지 두차례나 친히 독촉을 하여 받으신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달전인 지난 4월말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성국을 불러 동서해안의 두개 도의 국토관리사업정형을 집중료해해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었다. 지난해부터 국토관리사업에 더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국토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그이이시었다.

며칠에 한번씩 친히 전화를 걸어 료해사업정형을 알아보군하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 자기들의 사업에 매우 큰 관심을 돌리신다는것을 자각한 리성국은 그때부터 제가 먼저 시간맞춰 전화보고를 올리군하였다. 한데 한달쯤 지나면서부터는 일체 침묵을 지키다싶이 했다. 정방산현지지도때 현지로 직접 불러 같이 동행했던만 역시 료해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했었다. 전에없이 얼굴이 수척했고 심한 번민을 안은 사람처럼 의기가 소침했다. 일군들뒤에 자주 물러서려 했고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당황해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것이 료해사업과정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때문임을 알아차리셨다. 리성국의 됴됨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한편 그것은 또한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기도 하여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시었다.

무슨 일든지 책임적이고 세심하며 깐깐하여 빈틈이 없는 리성국이였다. 보는 눈이 정확하고 한마디의 말도 열번 스무번 재여서 하는, 어떻게든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아글타글하는 일군이였다. 그 진심, 그 성실성과 책임성이 미더워 **김정일** 동지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더 가까이 불러주곤 하시였고 지난해부터는 국토관리부문 사업을 당적으로 말아보도록 또다시 큰 신임을 안겨주셨던것이였다. 그런 중임을 지닌 리성국의 얼굴이 저렇게까지 되었으니 오죽 마음을 쓰고 속을 태웠을까!

몹시 마음에 걸리였지만 **김정일** 동지께서도 그날

만은 굳이 다른 말씀을 얹으셨다. 그저 헤어질 때 그의 손을 따듯이 잡고 다른 생각 말고 실태를 사실대로 보고하라고, 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료해사업을 일단락 결속짓도록 하라는 말씀만을 하셨던 것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시금 열어놓은 창문앞에 다가서시었다. 무성한 정원숲이 바다처럼 설렘었다. 조국의 모든 산을 저렇게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긴 그것은 수령님 생전의 구상이셨지.

그이께서는 정원숲너머 먼 하늘끝으로 시선을 옮기셨다. 송엄하던 얼굴에 또다시 그늘이 어리셨다. 한개 도안에만도 벌거숭이가 된 산이 수십만정보, 홍수와 기타 자연피해, 각종 건설과 류용으로 류실되는 토지면적 수천정보, 어느 한 협동농장에서는 대자연재해를 입은 다음해인 지난해에도 또 한개 분조의 경지면적에 가까운 토지를 바다로 날려 버렸다고 한다. 강하천과 호수, 늪관리는 물론 마을과 마을, 군과 도, 중앙을 련결하는 나라의 중요도로 관리에서도 한두가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결코 그것은 리성국이 제출한 료해자료의 내용만이 아니었다. 이번 전선시찰의 길에 **김정일** 동지께서도 여러곳에서 그런 산들을 직접 보시였었다. 농장에서도 찍고 군건설대에서도 찍고 일부 인민군부대들에서도 나무에 손을 댔다고 했다.

다시금 천천히 집무탁앞을 거니시었다.

문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모습이 떠오르셨다. 어느해인가 현지시도의 길을 걸으시다가 비물에 젖기여 드러난 소나무뿌리를 보시고 손으로 직접 흙을 덮어주시던 모습이였다. 솔한 사람들이 오가던 자그마한 야산기슭의 자드락길, 길손들의 발길에 수없이 다져진 길이였지만 인가가 너무 멀어 당장은 어디 가서 삽한자루 얻어올데가 없었다. 수행하던 일꾼들이 당황하여 앞을 막았으나 수령님께서는 길가에서 신고하는 환자를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몸소 한줌 또 한줌의 흙을 모아 드러난 뿌리를 다 덮고야 자리를 뜨셨던 것이다.

물론 그때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과 함께 수행하지 못하시였었다. 며칠후 력사에 길이 남을 그 화폭이 담겨진 사진을 보았을 때 그이께서는 너무도 목이 메어 한동안 말씀을 못하시였다. 한편 가슴이 아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손으로까지 친히 흙을 덮어주시는데 하루에도 몇번씩 그 길을 지나다녔을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과연 그 뿌리가 보이지 않았단 말인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였다. 정녕이 땅, 이 나라 어느곳, 어느 숲엔들 수령님의 그런 손길이 미치지 않은데 있으랴. 그렇게 가꾼 땅, 그렇게 살찌운 숲을 그렇듯 함부로 다룬단 말인가?!

방금 **김정일** 동지께서 열어놓으신 창문결에는 등반이가 좀 높은 두개의 쏘파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이께서 밤새워 일을 하시다 정 피곤할 때면 잠깐씩 옮겨앉곤하시느 의자였다.

문건을 드신채 쏘파에 앉으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급히 몇장 번지시였다. 마지크로 굵게 줄을 그은 부분들이 눈에 띄였다.

전기사정, 석탄사정, 연유문제...

《그래서 귀중한 나무를 화목으로까지 쓴단 말이지?!...》

등반이에 몸을 묻으셨다. 어쩐지 좀 차고싶으셨다. 눈을 감으셨지만 도저히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는 할수가 없는 것이이시였다.

인차 몸을 일으키시였다. 다시 문건을 번지시였다. 조용히 입술을 감쳐무시였다. 지금까지 미처 느끼지 못했던 하나의 의혹이 떠오르셨던 것이다.

실태도 정확했고 원인분석도 명백했다. 모든것이 과학적자료들로 안받침됐고 문장표현들도 간결하고 예리했다. 문구 하나하나마다에서 리성국의 깊은 사색과 열정, 말은 임무수행에서의 높은 책임성과 안타까운 모대김이 그대로 느껴지셨다. 한데 문건의 뒤에 간단히 첨부된 대책안이 문제였다.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몇대목이 너무 일반적인데다 무척 소심한점들이 확인했다. 더우기 웅당 있어야 할, 엄중시해야 할 위법일꾼들에 대한 교양대책안은 첨부조차 하지 않았다. 전에 없던, 아니 전혀 리성국이 답지 않은 일이었다.

다시 원인분석부분을 찾으셨다.

(석탄문제, 연유문제라... 하긴 뭇감이 떨어지는 건 쌓이 떨어지는것 못지 않다는 말도 있지.)

열흘가까이 전선시찰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피로가 온몸에 덮쳐워지는감을 느끼시였다. 속이 답답하시였다. 자신도 모르게 왼쪽가슴우를 한번 문지르시였다.

《음!》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잠시 눈을 감고계시다가 천천히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리성국의 방은 비어있었다. 책임서기를 찾으시 리성국은 방금전에 보통강유원지관리소에 나갔다고 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때까지 손에 들고있던 문건을 열탁에 놓으면서 물으시였다.

《리성국 부부장한테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까?》

책임서기는 무척 조심스럽게 말씀올렸다.

《저... 부부장동무가 먼저 알고 물기에...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리성국동무가 먼저 묻더라 말입니까?... 하긴 그게 리성국이이지!》

혼자말씀처럼 외우시는 그이의 음성은 어지간히 피로움에 젖어있었다. 책임서기가 더욱 조심스럽게 리성국을 부르겠다고 말씀올렸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왕 만나게 되는 옛전우들의 상봉이니 찾지 말아야겠습니다. ... 그리구... 리성국 부부장동무한테 휴식을 좀 주어야겠습니다.》

《휴식을… 말입니까?》

책임서기는 긴장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저요기 침착하게 말씀하시었다.

《그렇습니다. 부부장동무가 너무 무리한것 같습니다. 지쳤다고 할지…》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전화를 끊으시었다. 책임서기에게 하지 않은 말씀을 혼자 속으로 두세번 곱씹으시었다.

(지쳤거든… 그것이 단지 육체적과로때문만일가?)

묵직한 그 무엇인가와 함께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나시었다. 의자에 앉은채 두팔을 가슴우에 엇걸어있으면서 한손으로 턱을 가볍게 문지르시었다. 얼마간 그렇게 앉아계시다가 이윽하여 올렸던 손을 뺄 내리우시면서 힘있게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 2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시 집무탁에 마주앉으시었다. 인민무력부에서 올려온 문건부터 찾으시었다. 그이께서 전선시찰을 하시는 동안에도 최신행 땅크와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최악의 전쟁접경으로 정세를 몰아간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무분별한 전쟁발광책동들을 자료적으로 분석종합한 문건이였다. 오는 8월부터 계획한다는 미군과 남조선피뢰군의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둘러싼 미국국회와 세계 언론계의 반영도 제기되였다. 전선시찰을 하는 과정에 직접 정황도 듣고 확인도 한 자료여서 별로 놀라운것들은 아니였다. 단지 한쪽에서는 4차회담이요 식량지원이요 하면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다른쪽에서는 최신용전투기술기재들을 들이민다 무얼 어쩐다 하며 미친듯이 화약내를 풍기는 그 망동이 예감적으로 심상치 않게 느껴지실 뿐이였다.

인민무력부의 문건열에서는 외교부에서 올려온 특별히 두툽한 문건들이 기다렸다. 이제 얼마 안있어 뉴욕에서 진행하기로 한 4차회담을 위한 예비회담문제와 베이징에서 진행해야 할 조일국교정상화 회담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준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였다. 역시 그이께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 방법들을 가르치시지 않으면 안될 중대사들이였다.

무력부의 문건을 밀어놓고 외교부의 문건을 번져가시는 **김정일** 동지의 얼굴에는 점점 격노의 빛이 어리였다. 미국것들도 그렇지만 일본것들이 놀아대는 풀이란 언제봐도 온당한것이 없고 철면피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음흉스럽고 껌칙하고 안팎이 너무도 다른것들을 회담탁에 끌어내다놓고 세계면전에서 불이 나게 다불러대군하는 외교부일군들이 장하기도 하시었다.

말로는 일체 전제조건없이 본회담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못되게도 야질야질하는 일본것들의 언행자료에 기분이 나쁘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 보시던 문건을 옆에 놓고 의자등받이에

몸을 묻으셨다. 회담당초부터 별로 기대한것은 없었지만 우리 외교부일군들의 수고가 미더워 시간을 좀 두었다가 다시 보실 생각이시었다.

외교부일군들을 불러 회담에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치시고났을 때는 벌써 오후 2시였다. 오후에는 정무원책임일군들과의 협의회를 계획하시였다. 농업위원회와 량정부 일군들을 특별히 만나 올해 농사문제와 함께 하반기도 식량공급문제도 토의하셔야 했다. 당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서거 3돐행사준비도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했고… 저녁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한 항일혁명투사의 가정을 방문하실 계획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서거 3돐준비와 관련한 협의회를 끝마치시였을 때는 어느사이 창밖으로 어둠의 장막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비취색의 야외등빛이 조용히 흐르는 정원쪽을 일별하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두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시었다. 정말 해가 뜨기도전에 저물기부터 한것 같은 하루였다.

만장의 흥분속에 어버이수령님탄생기념일을 민족최대의 영원한 태양절로 하며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주체원년으로 할데 대한 역사적인 주체년호제정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가 방금 있었지만 그 협의회까지 끝내고나니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시금 힘이 부치는것 같은 피로를 느끼시었다. 까닭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시었다. 정말이지 전에 없던 일이시었다.

(왜 이렇가?... 무엇때문일가??...)

또 담배 한대를 뿔어드시었다. 오늘은 담배도 더 자주 태우게 되는 그이이시었다.

매이르게 더위가 시작되는지 창밖의 오동나무며 단풍, 층층나무 잎새들이 류달리 시들해보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전에 보셨던 문건중에 기상수문국에서 올려온 날씨예보자료를 찾으시었다. 근 80년만에 보게 된다는 심한 엘리뇨현상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7, 8월 기온이 36도이상 올라갈수 있다는것과 함께 그때까지 지금 들이닥친 왕가물이 계속될수 있다는 예보였다.

그이께서는 이제는 태평양까지도 우리와 맞서보자는것인가? 어버이수령님 유혼을 지켜 어떻게든 농사부터 잘 짓자고 올해는 군대까지 농사에 동원시켰는데 하늘마저 그렇게 무심할가 하는 생각에 잠기시었다.

날씨예보자료를 놓고 그옆의 다른 문건을 집어드시었다. 문건을 드시였지만 보지는 않으시었다. 그저 손에 드신채 천천히 몇걸음 거니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얼마후에야 그 문건이 오늘아침 자신의 마음을 것처럼 무겁게 했던 리성국이 제출한 료해자료임을 알아보시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벽찬 사변들로 하여 어느때보다 몇배 더 정열적으로 일을 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내내 가볍지 못

했던것이 바로 그 문건때문이였음을 깨달으시였다.  
(그랬됐구만, 음... 땅을 다 황폐화시킨다면야 우리가 만가지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는 사생결단의 이 대결전, 허리띠를 졸라매고 걷는 《고난의 행군》... 이 모든것이 다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장동무?)

문득 그를 꼭 휴식시켜야겠다고 책임서기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나졌다. 급히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오전한것 보통강유원지관리소에 나가있던 리성국은 점심참에 잠깐 부서에 들렀다가 인차 평양시행정경제위원회 원림관리국으로 나가 원림관리국장파 함께 또 보통강유원지관리소 지배인한테로 갔다고 한다.

《원림관리국장까지 데리고갔단 말입니까?》

**김정일**동지의 음성은 좀 긴장되는듯하였다.

《성미두 참...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통강문제는 평양시에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도 적극적인 대책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구... 이미 평양시당에 파업을 주었던 문제는 좀 알아봤습니까? ... 좋습니다.》

전화기열에서 물려서시였지만 그이께서는 얼마동안 한자리에 서계시였다.

보통강문제란 며칠전에 인민들속에서 제기된 가슴철렁하는 의견이였다. 보통강물이 흐려지고 지어 어떤곳에서는 감탕내까지 나기 시작한다는것이였다.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외국인들 속에서까지 일련의 반영들이 제기된다고 했다.

보통강... 보통강이 어떤 강인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한생이 년륜처럼 수놓아진 강, 국토건설의 첫자욱이 빛나게 새겨진 력사의 강이 아닌가.

한데 그 강을 오늘에 와서 감히??...

해당 부서를 통해 그 자료가 제기되었을 때

**김정일**동지께서는 너무도 뜻밖이시여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었다. 눈물이 날만큼 분하기도 하시였다. 결정적으로 국토건설의 된바람을 일으켜야겠다는 결심이 불같이 일어번지시였다. 그 결심으로 처음으로 밟으신 길이 전선시찰에 앞선 정방산 현지지도라고도 할수 있었다. 하고보면 항차 당적으로 국토관리부문 사업을 맡아보고있는 리성국임에랴!

**김정일**동지께서는 점심까지 건느면서 결이 나서 뛰여다녔을 리성국을 눈앞에 그려보시였다. 가뜰이나 수척해졌던 얼굴이 더 칼칼하게 느껴지셨다. 그 앞에서 분명 고개도 못들고있을 보통강유원지관리소 지배인과 시원림관리국장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들은 어찌보면 소설적인 관계처럼 인연깊은 사들이였다.

그들의 인연은 20대전후의 청춘시절 군사분계선 전연초소에서 맺어졌다. 쌍둥이3형제로 불리운 그들은 부대는 물론 부대장의 입에도 자주 올랐고 신문 《조선인민군》에도 두차례나 크게 소개되였다

고 했다.

임대한것처럼 한두해를 사이두고 차례차례로 제대된 그들은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리성국은 제 태어난 해산으로 귀가하여 해산농림대학에 입학했고 다른 전우들은 평양으로 돌아와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했다.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열렬했던가는 보통강유원지관리소 지배인이 두해 먼저 제대된 시원림관리국장의 뒤를 따라 한사코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에 들어간것만 보고도 알수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그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신것은 해산농림대학을 졸업한 리성국이 몇해동안 도당에서 일하다가 중앙당으로 소환된지 얼마후인 새해 설명절날이였다. 새로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몇몇 일군들의 가정을 방문하던 길에 리성국의 집에 들리시니 그때 평양시인민위원회 파장과 보통강유원지관리소 기사장으로 일하던 옛 전우들이 한참 축하연을 벌리는중이였다. 리성국이 어찌나 궁지에 넘쳐 그들을 소개했던지 **김정일**동지께서도 오랜시간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고싶기까지 하셨던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금 천천히 집무탁앞을 거니시였다. 오래간만에 마련된 옛 전우들의 상봉이 웃음으로 시작되지 못했을것이 가슴아프시였다. 필경 결말도 웃으며 될것 같지 못한 예감이 드시였다.

급히 보통강유원지관리소 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찾으시였다. 처음부터 한자한자 다시 더듬으시는 그이의 얼굴에는 점점 더 신중한 빛이 어리였다. 보통강유원지관리소의 자료를 그대로 펼친채 리성국이 제기한 자료들을 몇군데 다시 훑으시였다. 탁자우를 한번 가볍게 치시였다. 역시 전기, 연유, 설비자재...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적으로는 상통한 점들이 명백했다.

오늘 낮 각별한 관심속에 만났던 농업위원회와 량정부 책임일군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후한것 진지하게 마주앉았던 정무원일군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되새겨지셨다.

《물론 힘들지. 우린 정말 힘겨운 길을 가고있소!》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외우시였다.

인민대학습당에서 저녁 8시를 알리는 시계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종소리를 아주 먼곳의 메아리처럼 들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고개를 버쩍 드신것은 그로부터 몇순간후였다.

결연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너무 늦었군, 이젠 저녁식사도 넘겼겠지, 아마?...)

머리도 덜겟 아침에 계획했던대로 항일의 로혁명투사를 찾아가고싶으셨던것이였다. 전선시찰의 길에 오를 때에는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했는데

정말이었을가? 오늘따라 그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것은 무슨 까닭일까? 하긴 어려운 때일수록 그리워지는것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오늘 만나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직접 걸었던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고싶으셨다. 천고의 밀림속 우등불가에서 사령관동지앞에 가까이 앉아 평양의 만경대와 대동강송어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목메였었다는 이야기도 듣고싶었고 악착스러운 《토벌대》놈들을 끌고다니면서도 산속의 빈공지마다에 정성다해 나무씨, 난알을 뿌리곤 했었던 가슴몽클해지는 이야기도 또 한번 듣고싶으셨다. 그 이야기들을 다시 들으면 단번에 속이 열리고 무엇인가 막혔던것도 탁 트일것 같으시었다.

허나 시간이 문제였다.

집무탁앞에 서시여 잠시 일감들을 불러보시던 그 이께서는 이윽하여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아침에 계획했던 일이어서인지 전화라도 걸어보고싶으셨던 것이었다.

퍼그나 동안이 지나서야 전화를 받는 응답 신호가 왔다. 귀익은 부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순간 **김정일** 동지께서는 룽감적인 그 무엇인가로 하여 가슴이 철렁하시었다.

《**김정일**입니다.》

저쪽에서는 폭발적인 감격의 목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감격뒤끝에 숨길수 없이 따르는 당황함과 불안의 기미를 포착하시었다. 왼손에 들었던 송수화기를 오른손에 바꿔들면서 저음이 빠른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유정의 할아버지를 만나고싶어 전화를 합니다.》

《저...》

《혹시 병원에 가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더 급하게 물으시었다. 주먹과도 같은것이 뼈근하게 명치위로 치밀면서 온몸이 긴장해지셨다. 부인의 말이 끝나기전에 좀더 높은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사흘전에 입원했던 말입니까? 그... 혈압이 또 말썽입니까? 심장이랑...》

《처음엔 좀... 하지만 병원에서 제때에 긴급대책을 다 세웠기때문에 이젠 일없습니다. 오늘아침부터는 식사도 잘했습니다. 담당의사선생이랑 과장선생이랑 곁에서 떠나지 않고 치료를 잘해주고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큰숨을 한번 쉬시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놓이지 않으셨다. 병원에 입원하는 일꾼들, 그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그이의 가슴을 압박하였던것이다.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중에도 가장 귀중한 재보,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혁명선배들이기에 각별히 관심을 높여 평양을 떠나는 길에는 전화라도 꼭꼭 걸어주곤 하셨는데 그 지성이 아직 부족하기라도 했던 말인가!

이처럼 어려운 때에... 아니, 인간의 생명이 백년도 차지 못하군함이 야속하기도 하시었다.

급히 책임서기를 부르시었다.

《곧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리구... 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에 부탁해서 오늘밤 그들의 공연을 좀 볼수 있도록 조직해주시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오늘밤은 협주단 창작가들 몇명과만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도전에 또 전화기를 드시었다.

책임서기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안타깝게 입술을 짓씹으면서 돌아섰다.

### 3

이제는 밤이 퍼그나 깊어졌건만 보통강주변은 대낮처럼 환했다. 만월이 행창 밝은데다 창광거리와 천리마거리, 경흥거리에서 쏟아지는 불빛과 함께 유원지의 강변길로 쭉 켜놓은 야외등빛이 유난히도 더 밝았던것이다.

서성교너머 저 아래켠 어머니섬쪽에서는 강바닥을 파내는 굴착기들과 준철선들의 와르릉거리는 동음이 강반을 들었다놓는다. 무엇을 밀어내는지 이따금씩은 대형불도젤들이 용을 쓰는 소리도 메아리친다.

사람들두 참, 왜 벌써 그렇게 하지 못했담!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성국은 또다시 보통강반으로 나왔다. 그대로는 도저히 밤을 보낼수가 없었던것이다. 더우기 죄스러운것은 **김정일** 동지께서 갑자기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을 찾아가신 일이었다. 그이께서 속이 타고 힘이 들면 공훈합창단을 찾아가곤하신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다.

오늘밤은 간부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가셨다는 말이 특히 더 가슴을 에이게 하였다. 모든것이,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자기 불찰때문인것만 같아 오금이 저렸다.

하긴 그이의 하늘같은 신임을 받아안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먼데도 아닌 바로 자기의 코앞에서 보통강물이 흐려지고 감람내까지 나기 시작하는것을 모르고있었으니 이제 그이앞에 무슨 면목으로 얼굴들고 나서랴. 바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처럼 크나큰 중임을 맡겨주시었는데 다른 곳도 아닌, 국토건설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여야 할 여기 보통강 하나 바로 살피지 못했으니 이런 일군을 뭐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보통교를 지나 만수대둔덕밑에 이르니 밤의 강반은 퍼그나 조용했다. 낮에 느꼈던 해감내 비슷한 물내가 폐장에 마쳤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보통강에 대한 말씀이 계실 때마다 인민의 유원지인 보통강물은 언제나 맑아야 한다고 그토록 간곡히 가르쳐주시면서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셨는데 내 정녕 지금껏 무엇을 했느뇨 하는 자책이 다시금 가슴을 지졌다.

그리고도 뭐 한 나라의 귀중한 국토사업을 말아

보는 책임일군이라고?...

해토기처럼 울퉁불퉁해진 보도블록장들과 깨어진 포장도로, 색칠이 벗겨진 유흥오락시설들이 눈앞에 밟혔다. 닭알섬쪽의 가까운 보트장에서 우리와 꿈을 형상한 보트와 물자전거들이 물결에 실려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창한 방울나무와 전나무, 버드나무숲을 꿰질러 강변에 바투 나서니 밤고기튀는 소리가 소연했다. 몇백년을 자랐을지 모를 아름드리 수양버드나무 밑동에 손을 얹고 한참이나 불빛 어린 강물우에 시선을 박고있던 리성국은 이윽해서야 천천히 오던 길을 돌아섰다.

온통 감탕투성이가 된채 눈길도 바로들지 못하던 보통강유원지관리소 지배인의 초췌한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한때는 불길같은 정열로 구분대는 물론 연합부대에까지 널리 알려졌던 사람, 보통벌에 태어나 보통강에서 일생을 마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 역시 여기 보통강에 한생을 묻겠다고 열변을 토하곤하던 그 열정은 어디로 갔는가...

시아버님의 뜻을 이어 저희네 부부가 이 보통강에서 기어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처녀시절 정들인 일터까지 떠나왔던 부인의 얼굴도 떠올랐다. 아들딸 세남매... 행복하게만 자라난 귀여운 자녀들이 어려서 따르던 부름 그대로 팔을 벌리고 발을 구르며 목놓아웨친다.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도와줘요, 우리 아버지 한번만 용서해줘요 예? 큰아버지... 울아버진 할수 있는것은 다 하셨대요!》

이미 론의할수 있는것은 다 론의가 되었던듯싶은 시원림관리국장의 말도 되새겨진다.

《출당, 철칙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글쎄 이제 여기 당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런지...》

파오는 파오대로 엄중하지만 따져보면 또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다는 암시였다.

리성국은 그것이 더 참을수가 없었다.

《무슨 소릴 하자는거요? 지금 제정신들인가? ...여보,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우리 장군님께서 장장 수만리길을 헤쳐가심이 무엇때문인지 그래 당신들이 모른단 말ियो? 병이 들었소. 들어도 단단히! ... 당원들이 뭐 어쩐다구?...그래 여기 당원들이 융화할줄 아는가. 실사 어느 개별적일군 한둘은 용서하자고 할수 있을런지 몰라두 인민이 용서칠 않을거요. 우리 인민이! 력사가! ...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이 보통강반에서 건국의 삽을 들었던 지배인동무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용서칠 않으실거란 말이요!》

죽었소 하고 입술만 짓물고있던 지배인이 고개를 버쩍 들었다. 힘하게 이즈러진 얼굴... 피로움이 끓던 두눈에서 불이 평꽃했다.

《분대장동지!》

콧 쥐여지르기라도 하듯이 30여년전의 목소리로 불렀다.

《제 파오에 대해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옛분대장동지앞이니 한마디만 애길 합시다. 난 지금도 통나무를 메라면 메고 포차를 끌라면 끌겠습니다. 립진강물에 뛰어들라면 백번이라도 뛰어들겠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요?》

《집채같은 양수기를 손으로야 돌릴수 없지 않습니까. 수십대의 굴착기와 준척선들을 기름이 없이 움직여냅니까? 자력갱생... 자력갱생이 구호나 욕망만으로 다 해결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더 폭발시키지 못해 몸부림치듯 감탕투성이의 주먹으로 제가슴을 광광 들이쳤다.

리성국은 아연했다. 아니 말이 막혔다. 원림관리국장을 일별했다. 눈길이 마주칠가봐 겁이 난듯 원림관리국장은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윽해서야 그는 한숨을 토하기라도 하듯이 힘겹게 한마디 했다.

《저도 실은 지배인동무한테 추궁만 냈다 했겠습니까. 왜 자력갱생할 생각을 못하느냐고...저 량반이 차라리 지금처럼 막 대들기라도 했으면 좋았겠는데 일체 대답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나라의 전반사정이 그런데 저 원림관리국장도 오죽 답답하면 저러랴... 했겠지요. 예-사람두 참!》

리성국의 가슴에서는 불이 일었다. 그 불은 두줄기의 불줄기가 되어 원림관리국장의 얼굴에 뿔어졌다. 하지만 그도 무엇이라 더 말은 못했다. 가슴속에서는 불의 격랑이 마구 뒤넘이쳤건만 갑자기 론리가 헛갈린 사람처럼 허가 잘 돌지 않았던것이였다.

보통교로는 이밤도 전차며 버스, 승용차들이 줄지어 건너가고 건너왔다. 차길을 사이두고 량옆으로 넓게 뻗은 다님길에도 사람들의 흐름 그칠새 없다. 보통교 교각아방에 이르렀던 리성국은 누가 보기라도 할가보아 얼른 돌아서서 또다시 걸어온 강반길을 되짚어걸었다.

그러니 여기서도 경제봉쇄... 적들의 고립압살책 동맹문이란 말이지!

두달동안의 료해사업과정에 만났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역시 지배인도 있었고 관리위원장도 있었고 행정경제위원회 일군들, 사회안전원, 당일군도 있었다. 물론 당의 방침을 받들고 자체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대용연료도 연구하고 자력갱생기지들을 마련하여 자체의 힘으로 막아선 난국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일군들이 많았다. 하지만 대안사업체계의 우월성을 자랑하며 고속장성일로만을 줄달음치던 사회주의 경제앞에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책동으로 불시에 들이닥친 난국을 단호히 박차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걸려있는것만은 사실이였다. 이미 모르던바 아니였지만 구체적인 현실에는 너무도 아픈 문제들이 많았다.

료해사업당초에 벌써 낮이 컴컴해서 스스로 찾아와 자기 반성을 심심히 하는 일군이 있는가 하면



나라고 뭐 그러고싶어 그런줄 아는가, 어디 당신들이 이자리에 앉아보소… 하듯이 아주 불손하달 정도로 배짱을 보이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어찌겠습니까. 배고픈것과는 타협을 못한다는데 우선 농사부터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건 몰라도 1차소비품생산이야 보장해야지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것처럼 간곡히 교시하신 치약, 치솔, 비누, 신발… 그러구 학생들이 쓸 학습장과 연필…》

아무 말 없이 자기네 농장 농장원들의 집집으로 데리고다니며 쌀독과 가마를 열어보이는 관리위원회 일꾼들도 있었다.

결국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것에 부터 손을 댔다는것이였다. 대치물자로, 외화벌이용으로, 지어는 식량구입과 화목용으로… 용도도 용도이지만 리성국을 더욱 심각하게 한것은 위법일꾼들 태반이 그것이 옳은 처사가 아니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립장이 아니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것이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그랬다는것이였다.

생각 같아서는 가차없이 책벌을 주고 법적제재를 가하고싶었다. 허나 무력대고 그렇게는 할수가 없었다. 그런다고 당장 일이 다 바로 펴일까? 아니, 당적책벌을 받고 법적제재를 받아야 한다면 누구보다도 리성국 자기가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자책에 입술을 깨물곤했다. 당적책벌이나 법적제재가 찍어낸 나무를 다시 살구고 잃어진 땅을 다시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다놓을수가 있다면 열번인들 마다할가. 만나보고 살펴보고 이야기들을 들어볼수록 점점 더 제가 그자리-군행정경제위원회나 관리위원회,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앉았다고 해도 어쩔수가 없었을것이라는 생각이 은연중 심한 불면증까지 몰아왔던것이였다.

정말이지 우에서 지시나 하고 안되면 비판이나 하기가 쉽다… 바로 이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봄부터 국토관리부문 사업에 더 깊이 관심하기 시작하셨구나 생각하니 때마다 밥상에 나앉군하는것자체가 죄스럽게 여겨지기도 했던 리성국 이였다.

나타난 현상도 현상들이지만… 말이 말뒤에 적지 않게 숨겨져있는 이 실제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보고올렸으면 좋단 말인가.

하여 불손한 일임을 알면서도 미흡한 문건을 그대로 올렸는데 이번엔 또 너무도 뜻밖의 보통강문제 제가 제기되어 앞을 새까맣게 했던것이였다.

로력문제… 로력문제만이라도 좀 보고올려주었으면 하던 시원림관리국장의 말이 다시금 가슴을 짓눌렀다.

옆에 서있는 버드나무의 밑동을 주먹으로 탕 쥐여질렀다.

누구인가 가까이로 다가오는 기척이 났지만 알아보지도 못했다.

《부부장동지 아니십니까?》

《…》

《부부장동지!》

거듭 불려서야 고개를 들었다.

(아니?!)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부관동무가 어떻게?…》

미처 다가서기도전인데 저쪽 큰길가에서 무척 반기는 목소리가 날아왔다.

《성국동무가 옳지?… 옳구만!》

《장군님!》

리성국은 어떻게 김정일동지앞으로 달려갔는지 몰랐다. 무슨 말쑥을 올렸는지도 몰랐다. 공훈합창단… 공훈합창단이라는 말이 고래쳤지만 불뭉치 같은것이 목을 짖 매워 눈시울을 적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따듯이 잡으며 말씀하시였다.

《전조등빛에 비쳐드는 모습이 틀림없는 부부장동무더라니… 한데 아직 옛전우들과의 상봉이 끝나질 않았습니까?》

패활하게 통말을 하며 웃으시였다. 언제 뵈워도 패활하고 락천적이며 힘이 넘쳐하시는 그 모습앞에 리성국은 오히려 더 눈곱이 뜨져워졌다.

《장군님!》

《아, 뵈웁니다, 뵈웁니다… 일을 하려면 실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강반에 나왔는데 좀 거닐지 않았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성국의 등을 가볍게 미시였다. 리성국은 더욱 벽차오르는 뜨거움과 함께 죄송스러움으로 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금 그이께서 오셨을 큰길쪽을 바라보았다. 전조등빛에 비쳐드는 모습을 알아보셨다는 고마운 말쑥에 앞서 달리는 차안에서도 마음을 못놓으신 보통강… 아니, 바로 그래서 집무실로 돌아오는 길도 여기 보통강반쪽을 택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에 어떻게 발길이 놓이는지도 몰랐다.

밤하늘에 치솟은 창광거리의 초고층살림집들과 인민문화궁전, 체육관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유난히 더 황홀하게 보통강물위에 실리는듯했다. 류경호텔과 40층살림집을 축으로 하는 건너편 거리 역시 하늘의 별바다가 그대로 내려앉은듯 장엄한 화폭을 펼치였다. 마치도 이밤 이 시각을 기다려 하늘땅이 목메여 환호하며 춤바다를 펼치는듯싶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보통강이야말로 로동당의 정치, 수령님의 국토건설의 정치가 빛나게 집약된 력사의 강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 무척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성국동무도 알겠지만 지난날 저렇게 훌륭한 해방산에는 일본놈들이 살았고 <양촌>에는 미국놈들이 살았습니다. 웅당 그곳의 주인이 되여야 할 조선사람들은 선조대대로 내려오던 그 좋은 집터를 다 빼앗기우고 토성량의 움막집에서 짐승처럼 살고말

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머리위로 손을 올려 실실이 늘어진 버드나무가지들을 한웅큼 모아쥐시었다. 수난과 치욕의 아픔을 헤아리시듯 잠시 사이를 두셨다가 더 절절하게 이으시었다.

《난 지금도 내가 어렸을 때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아침마다 날이 밝으면 여기 보통강부터 내다보곤하시었습니다. 어느해 여름인가 비가 몹시도 내리는 날이었는데 수령님께서 그날도 이른아침 창가에 서시어 한참이나 보통강을 내다보시다가 말씀하시었습니다. 《내 만경대에서 자랄 때 시내에 들어와보면 제일 불쌍히 사는데 토성량사람들이었다, 항일혁명전쟁때에도 평양을 생각하면 제일먼저 떠오른것이 토성량이었지, 내 그래서 조국이 해방되면 보통강부터 잘 꾸려야겠다는 결심을 했댔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보통강을 세계적인 강으로 만들어 국토건설의 본보기가 되게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음성은 무엇인가 큰 뜻을 안은듯 높아지었다.

《정말이지 이 보통강은 그저 조국땅에 흐르는 하나의 강줄기가 아닙니다. 여기야말로 우리의 선대, 전세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렬히 바랬던 이상과 꿈이 그대로 실렸고 그대로 활짝 꽃피 난 지상천국이라고 해야 할곳입니다!》

리성국은 더이상 듣고만 있을수가 없었다. 저도 모르게 격정을 담아 말씀드렸다.

《장군님, 너무 격정마십시오. 보통강물은 인차 다시 맑아질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윽히 리성국을 마주보시었다. 한참이나 그렇게 보시다가 모아쥐었던 버드나무가지를 놓으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고맙소, 고맙습니다. 부부장동무!》

저 멀리 어머니섬쪽에서 대형굴착기의 요란한 동음이 들려왔다. 신서교아래쪽에서 울리는 준철선들의 와르릉 와르릉 철썹... 하는 소리도 더 기세차게 강반에 메아리쳤다.

리성국은 다시금 **김정일**동지를 따라 걸었다. 얼마간 천천히 걷기만 하시던 그이께서 이윽고 몸을 돌리며 물으시었다.

《참, 유원지관리소지배인이 지배인사업을 정치당했다는게 사실입니까?》

《예?... 예, 저...》

《오늘 평양시당에서 세운 대책안들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좀 앉읍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유보도열의 의자를 가리키시었다. 그이께서 허물없이 앉으셨지만 리성국은 배허벅에 두손을 모아앉은채 몸돌바를 물랐다. 그이께서는 굳이 더 권하지 않고 따듯이 물으시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성국동무가 불덩어리같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까?》

리성국은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달빛과 불빛에 비추이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어리었다. 리성국이 답변하기 몹시 딱해하는것을 느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얼른 말머리를 돌리시었다.

《며칠전 <로동신문>에 여기 보통강유원지관리소 청년동맹원들이 온천군 금당리로 자원전출해나간 기사를 실지 않았습니까?》

《예,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10여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해갔다고 합니다. 지배인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막내딸을 제가 먼저 삼신탄광으로 보냈습니다. ... 올해에는 많은 로력을 농촌지원전투에 동원시키시기까지 했습니다.》

《농촌모내기전투에 말입니까? ... 유원지관리소 로력을 농촌지원사업에서 제외시키라는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신 수령님의 교시가 아닙니까.》

《예, 하지만 올해는 군대까지 농사에 총동원되는데 어떻게 가만있겠느냐고 하면서...》

《불길이 바람방향을 잘못타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혼자말씀처럼 외우시었다. 농철새라 리성국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다.

리성국은 가슴이 철렁했다. 불손하게도 그이앞에 유원지관리소 지배인을 두둔하여 말씀올렸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이 무슨 외람된짓인가.

**김정일**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눈길은 리성국의 얼굴을 살피셨지만 생각은 보통강문제와 함께 리성국이 전에없이 미흡한대로 그냥 올려보낸 그 료해문건을 번지시었다.

(웁다. 문제의 기본은 거기에 있었다. ...그래, 해방된 조국, 사회주의오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항일선열들이 어떻게 그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며 항일대전의 험준한 고개고개들을 넘을수 있었겠는가. 그렇다. 오늘의 경제적난관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때의 그 난관에는 비길수 없다!)

앉으셨던 자리에서 움쭉 일어서시었다. 건자는 말씀대신 손으로 리성국의 등을 미시었다.

불빛 찬란한 천리마거리, 경흥거리와는 달리 숲이 우거진 모란봉쪽은 어둠이 짙게 드리웠다. 강반으로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친히 리성국의 곁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서시었다.

이제는 모든것이 명백했다. 아니, 한낮동안 가슴 밑에 깔렸던 그 무엇인가가 깨끗이 정화되고 오히려 몇배 더 억센 힘과 용기가 솟구치었다.

리성국이 조항조항 짚어가며 대책안들을 제기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솔직한 심정, 안타까움과 모태감을 숨김없이 그대로 느낄수 있게 해준 그것이 오히려 더 미더우셨다. 이 사람의 됬됨이로야 충분히 그럴수 있지! 그래, 혁명은 깨끗한 사람들이 하는 위업이야. 이런 사람들과는 어떤 어려운 길도 함께 갈수 있어!

언제나 그러했듯이 오늘밤도 더 따듯이 일깨워

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싶으셨다.

생각은 그렇게 뜨거우면서도 음성은 엄하게 물으셨다.

《부부장동무, 보통강은 보통강이고… 그 ××군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성국은 그자리에 멈춰섰다. 피로움에 앞서 자책부터 확 실린 눈길을 어디다 들지 몰라 당황해하다가 조심스레 말씀드렸다.

《장군님, 그 동무는 모든걸 자기가 다 책임질 각오가 되어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책임질 각오가 돼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인가 푹푹히 확인하시듯 되물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재차 더 빠른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여기 보통강유원지관리소 지배인도 그랬겠습니까?... 시원림관리국장도 같은 립장이고??...》

《?!...》

《현실은 너무도 어렵다, 전기도 모자라고 뿔감도 부족하고 식량사정은 더욱 긴장하다, 많은 공장들이 몇다실이 되고 뜻밖의 자연재해까지 들쭉되어 공업의 식량이라고 하는 석탄마저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 일군들은 할수 있는것 다 하고 있다, 책임질 각오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인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절대로 삼가해야 할 일까지도 한다,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란 사람은 우에 앉아 뭘하고있었는가... 결국 더 엄중히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 리성국입니다-이 말이겠소?》

《장군님!》

《여보, 내 말을 푹푹히 듣소.》

**김정일**동지의 안광은 준절한 빛으로 번쩍이었다.

《우리는 물론 책임을 두려워해서도 안되지만 시대와 혁명 앞에 져야 할 책임을 그 무슨 흥정이나 방패막이로 내세워서는 더우기 안됩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나라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는가, 책임은 내가 다 지겠으니 무조건 이대로 하라... 하고 법도 당적원칙도 공민적의무도 초월해서 경거망동하면서 마치도 그것이 인민을 위한 그 무슨 영웅적장거나 되는것처럼 여기는데 그건 영웅적인것이 아니라 객기요, 일종의 객기, 인기주의! 더 나아가서는 패배주의의 새로운 표현형태... 우리가 절대로 타협을 할수 없는 패배주의란 말입니다. 패배주의!》

《...》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여러 혁명단계들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정책과 로선들을 내놓았지만 언제 한번 제집안의것을 망탕 탕진해도 된다는 말을 흘려본적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생활의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자력갱생의 구호는 수령님께서 항일전쟁을 시작하시던 초기혁명때부터 제기한것이지만 언제 한번이라도 제 민족, 제 선조들이

피땀으로 이루어놓은것을 마구 헐어써도 된다고 한 적은 없단 말입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김정일**동지께서는 몇걸음 앞서 걸던 걸음을 급히 돌리시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우리 선렬들, 선배들이 목숨바쳐 지켜내고 피땀으로 가꾸어놓은 국토에 제 마음대로 손을 대는 현상입니다. 제 생각대로... 지금 일부 일군들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며칠전에 한 식물학자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지방의 어떤 일군은 수령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학술연구기지로 정해주신 세계적인 귀중한 국가보호림에까지 막 손을 대려 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나라사정이 어렵다 해도 이러면 되는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좀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리성국은 가슴이 얼어드는것 같았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성국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며 말씀하시었다.

《생각해보시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항일의 선렬들이 무엇때문에 한줌의 흙을 배낭속에 넣어 가지고다니며 싸웠습니까. 한치의 땅을 위해 애어린 청춘까지도 서슴없이 바친 영웅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데 제 집 마당굽이나 터밭귀가 허물어지면 큰일이 난것처럼 뛰쳐나가면서도 아까운 농경지가 몇십정보씩 떠내려가고 수집장정보의 산이 통채로 벌거숭이가 되는데는 꿈쩍도 않는단 말입니까... 다른 말은 그만두고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해서도 어떻게 그럴수 있습니까. 사실말이지 이 땅, 이 나라의 어느 산굽이, 어느 강, 어느 마을엔들 우리 수령님 로고와 구상이 깃들지 않은곳이 있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엇을 위해, 누굴 위해 그렇듯 한생의 로고를 다 바쳤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꾼 땅, 장장50여년을 가꾸어 넘겨주신 땅을 일시적인 경제적난관이 조성되고 생활이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 뜯어먹을내기를 해서야 되겠는가말입니다?》

《...》

《문제는 뭔가, 방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본질은 패배주의입니다. 신심과 락관이 없는 또하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패배주의! ...본인들은 꿈쩍 놀랄수도 있겠지만 명백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농사군은 굶어죽어도 종자만은 다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전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구호를 제기했는데 무엇때문입니까. 정말이지 난 후대들에게 원망을 사게 되지 않겠는가가 우려됩니다. 아까운 사람들을 못쓰게 만들가봐 격정된단 말입니다.》

**김정일**동지의 음성은 흥분으로 높아졌다. 사실 리성국이 종합하여 보고올린 자료들을 보면서 그이께서 못내 삭일수가 없으신것이 바로 그 문제였던 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시여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계속하시였다.

《사실말이지… 방금 성국동무가 말한것처럼 이 보통강물은 인차 맑아질것입니다. 우리 당이 있는데 이 보통강물 하나 맑아지게 하는것쯤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벌거숭이가 되어가는 산들도 그렇고 류실되는 경지면적도 같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참을수 없고 내 가슴이 아픈건 우리 혁명의 앞채를 메고 뛰여야 할 일군들, 누구보다 국토건설의 앞장에 서서 세기적인 일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힘차게 내밀어야 할 우리의 일부 일군들이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되어 군중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망탕짓을 하게 되는 그 사상적 근원입니다. 우리야 옳어지든 넘어지든 이 땅에 살 이 나라의 주인들이 아닙니까. 내 조국을 가꾸고 이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해야 할 조선민족… 이제 어디 가서 단 한치의 땅을 돈을 주고 사오기라도 하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너무 흥분하심을 깨달으셨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주먹을 힘있게 쥐어흔들면서 계속 같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다.

《기본은 어디에 걸렸는가. 우리의 일부 일군들이 아직도 멀리 앞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난관앞에 너무 포로가 되네 있습니다. 포로가! … 발끝만 내려다보아서는 억년가도 가슴이 열리지 않습니다. 더우기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우리 일군들에게 고개를 버쩍 들고 멀리 앞을 내다보며 대담하게 구상하고 대담하게 작전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군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의 락관을 안고 살라고 말해주곤합니다. 래일에 살자! 미래에 살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의 의지이고 우리 인민의 의지이며 나의 의지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리성국을 옆으로 힘있게 끌어당기시였다. 리성국의 몸도 불덩이처럼 달아오름을 느끼셨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리성국의 팔을 더 힘있게 잡았다놓으시였다. 잠시 말씀을 끊으신채 동안을 두셨다가 저우기 가라앉은 음성으로 더욱 절절하게 이으시였다.

《난 오늘밤도 공훈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사향가>, <전호속의 나의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

또 불망치같은 잉어 한마리가 요란스레 물을 차며 솟구쳐올랐다. 그 소리에 잠을 잤듯 닭알섬안의 소동물사에서 노루가 뛰고 꿩들이 푸드덕이였다. 준첩선들과 굴착기들의 동음이 더 요란스레 밤하늘에 울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시간을 알아보시였다. 언제였더냐실게 환하게 미소가 넘치는 표정으로 리성국을 마주보며 물으시였다.

《지금 평양시당에서 직접 들어쥐고 저 공사를 벌리겠습니까?》

《예.》

《그건 좋습니다. …우리도 가만 있을수 없습니다. 내 방금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나오면서 인민 무력부에 의견을 주었습니다. 당장 2~3일내로 군대를 한개 사단쯤 들이밀자고말입니다.》

《군대를… 여기까지 또 말입니까?》

리성국은 깜짝 놀라기부터 했다. 시원림관리국장 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량허리에 손을 얹으며 더 우렁우렁하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이지만 하자는 사람한테는 뚝고나갈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 할바에는 와닥닥 해야지 질질 끌어진 재미가 없습니다. 군대를 한개 사단쯤 들이밀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모내기전투도 끝났으니 대학생들도 동원시켜야 하겠습니까. 보통강을 더 본격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회적운동도 법석 벌리고말입니다. 이 보통강에서 또 한번 국토건설의 진격나팔소리가 세상을 들었다놓게 해야겠습니까. 온 나라에 국토건설의 된바람이 일어나게!》

리성국은 숨이 킁 막히는것 같았다. 가슴이 막터지는것 같기도 했다. 이것이야말로 역경을 일대 기적의 순경으로 전환시키군하시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심, 지략이 아니실가!

국토건설의 된바람! 세상을 또 한번 들었다놓을 위대한 창조 의 환호성!

**김정일**동지께서도 그 환호성을 들으시듯 잠시 사이를 두셨다가 문득 생각난듯이 물으시였다.

《그리구 부부장동무, 이제 수령님서거 3돐이 얼마 안남았는데 7월 8일이 지나면 인차 원림대표단 같은것을 무어 외국에 한번 파견하지 않겠습니까?》

(원림대표단?!)

리성국은 잘못들었는가싶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더 씩원 씩원하게 말씀하시였다.

《내 줄 알아봤는데 세계에는 력사가 깊은 유원지들도 많고 식물원들도 많고 산과 강… 집집승먹이 풀판을 본때있게 꾸려놓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북유럽의 나라들… 이번엔 파견하는 원림대표단은 한두개 나라가 아니라 적어도 한 40~50개 나라쯤 돌아보게 합시다. 50개 나라쯤… 어떻습니까?》

리성국은 몸만 궁싹했다. 인간의 상상에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한푼한푼의 돈도 조개가며 써야 하는 때에 당과 정부의 중요대표단도 아닌 원림대표단! 그것도 한두개 나라가 아니라 50여개 나라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장 대표단을 출발시키기라도 하실듯 통쾌한 어조로 이으시였다.

《이번 대표단은 부부장동무가 직접 책임지고 인솔해갔다와야겠습니까.》

《예?… 제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통강유원지관리소 지배인도 데리고가고 그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갔다오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을 처벌하느냐 마느냐는 그곳 당원들과 당조직들에서 결정할 일이고… 어쨌든 그들도 이 땅에 땀과 땀을 부어야 할 우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동서방의 한 50개 나라쯤 돌아보느라하면 배우는것도 많고 느끼는 바도 클것이며 제 나라, 제 땅, 제 나라의 재부가 얼마나 귀중한가도 깊이 알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대담하게 세계를 한번 일주하고나서… 돌아올 때에는 국토건설에서도 세계적인 본보기가 될 큰것을 안고 돌아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장군님!》

《아, 구태여 또 잘못했다, 고맙다 하는 말은 하지 마시오. 우리가 한두해 같이 일해옵니까. 문제는…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나가는 거기에 있는것입니다. 래일의 후손들앞에도 부끄럼없이 떳떳하게… 여기서 중요한게 뭐겠는가. 재삼 말하지만 래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제 나라, 제 고향부터 귀중히 여기고 아낄줄 알아야 합니다. 금수도 제 보금자리가 있어 그 숲을 지킨다는데 하물며 제 나라, 제 땅을 사랑하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쓰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미래가 없고 래일이 없습니다. 래일이 없는 사람한테는 의리도 양심도 없는 법입니다. 한두끼만 굶어도 못하는것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주건과 주대도 없이 우왕좌왕!》

《…》

《아마 지금 형편에서 우리가 원림대표단을 보낸다고 하면 깜짝 놀랄 나라들도 없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환성을 터뜨릴것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시북구건설설계도를 완성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선과 후방에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린 그 정신, 그 열기로 다시한번 전민을 국토건설의 돌격전으로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아끼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만 이건 단순히 국토건설에 한한 문제만이 아니라는걸 꼭꼭히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국토건설문제만이 아니라는것을!》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침에 책임서기한테 부부장동무를 좀 휴식시켜야겠다고 했는데 이건 결코 휴식만이 아니라고… 국토건설도 과학적으로 해야 하고 본보기가 있어야 하며 그래서 수령님께서 전후 어려운 시기에 중앙식물원을 꾸려주셨는데 그곳 일도 씨원히 잘되는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원림대표단의 기본성원은 식물원일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원림대표단의 사업방향과 준비사업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나서 50여개 나라쯤

돌아보려면 빨라도 반년쯤 걸릴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잘 돌아보고 온 다음에는 전국국토관리부문 일군회의 같은것도 크게 열자고 하시였다.

《국토건설도 우리 세대에 한번 본때있게 해봅시다.… 참말이지 우리한테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오늘아침 방송에서도 알려졌지만 미군과 남조선피뢰군들은 며칠전에도 또 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불태워버렸습니다. 40여년간의 일제통치하에 술한 자연부원을 강탈당한것만도 천추에 용서칠 못하겠는데 해방이 된지 50년이 넘는 지금에까지 귀중한 우리 조국땅이 참화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피가 끓습니다. 우리는 국토건설에서도 빨리 본보기를 창조해야 할것이며 통일된 조국을 내다보면서 풀 한포기를 심고 나무 한그루를 가꾸는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리성국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머리우에로 무엇인가 불줄기 같은것이 지나가는것 같았던것이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는 비로소 현세기의 천만대적과 맞서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왜서 국토관리부문 사업을 중시하고있는가 하는 그 바다 같은 뜻을 깨달았다. 격변하는 국제국내정세들로 하여 자신의 몸가까이에 한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때에 어찌하여 두달씩이나 동서해의 큰 도들에 대한 료해사업을 하도록 하시였는지, 이제는 또 반년 이상이나 외국의 먼먼 나라들에로 내보내주시는지 그 원대하고도 대담하고 통이 큰 뜻이 헤아려졌다.

고개를 들수 없었다. 김정일동지의 구상은 하늘처럼 높은데 저는 아직 아득히 높은 산밧의 한기슭에서 갈길조차 바로 찾지 못해 안타까이 허우적인것만 같아 죄스러웠다.

현시기 《고난의 행군》 길에 우리 일부 일군들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있는 패배주의!

오늘의 험난을 통쾌하게 짓부셔나갈수 있는 우리 당과 인민, 우리 장군님의 의지!!

고개를 버쩍 들었다.

그래, 내자신의 머리에 병이 들었었다. 그것은 한갓 동조나 그 무슨 《인간성》으로서의 《리해》가 아니였다. 아,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의 직책을 지닌 내가 그랬으니… 오죽 속이 타고 안타까우시였으면 오늘밤도 또 공훈합창단을 찾아가셨겠을까!

한데도 용서없이 처벌을 할 대신 전례없던 《휴식》을 마련하여 장기간의 외국출장길에까지 내세워주신단 말인가.

저 앞쪽 버드나무밑에서 그이께서 빨리 오라고 부르셨다. 리성국은 그체서야 제가 혼자 뒤떨어져 도로와 잔디밭사이에서 서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부부장동무, 여기서 밤을 새우겠습니까. 래일을 생각해야지. 우리한테 오늘보다 래일이 더 중요하

지 않습니다.》

다시금 쾌활하게 울리는, 평범하면서도 결코 그  
렝지가 않은 그이의 음성이었다.

리성국은 그래도 인차 달려가지 못했다. 불현듯  
보통강유원지관리소 지배인과 시원림관리국장, X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동무들, 들소? 저 말썬, 저 인자하고 신심과 열  
정에 넘친 음성... 저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이런분이시란 말이요!)

성큼 큰걸음을 땀다. 걸음걸음 옮기는 걸음에 박

자를 맞추듯 심장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울렸다.

장군님, 제 일생 이밤을 잊지 않겠습니다. 천년대  
계 만년대계로 이 나라, 이 땅을 가꾸시고 우리 민  
족, 우리 일군들 한사람한사람을 다 그 강산의 꽃나  
무 꽃송이들로 내세우고 키워주시려는 그 로고, 그  
은정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준첩선의 동음이 더 우렁차게 강반을 울리었다.  
불들도 더 밝았다. 리성국은 드디어 **김정일** 동지의  
결에 가까이 다가섰다. 그이와 발걸음을 맞추며 힘  
차게, 더 힘차게 승용차쪽으로 향했다.

## 풍어기는 날리지 않아도

리동수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가

바다 먼 산중초소

우리 중대 양어장

수확의 이날은

언 땅을 까내고

좁은 굽을 넓히며

층층이 못을 파던 그날이 어제런듯

생각도 깊어지는데

푸들썩

팔뚝같은 잉어가

병사들의 동가슴치며 물속에 철썩

와하-산발을 흔들며 메아리치는

흥겨운 웃음소리 웃음소리

저 바라

그물이 터지겠다

사관장의 아니 할 잔걱정에

병사들 떠들썩 더 힘껏 당기여라

오, 멋이로구나

우리 중대 양어장에

풍어기는 나뭇가지 않아도

계절이 따로 없이

퍼내고퍼내도 끝이 없을 물고기

넘쳐나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여

황홀경에 취했는가

떠가던 흰구름도 흐름 멈추고

양어못가 술숲도 춤을 추는듯

앞산 뒤산 풀뜯던 염소떼도

머리 기웃 바라보네

산촌에 흐르던 물이

이렇게 복이 될줄

그 누가 알았으랴

생각이나 했으랴

병사들을 위함이라면

령너머 먼먼천리 산중초소도 찾아오시여

사랑의 푸른 바다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아 정녕

그 사랑에 목메여

병사들 더운 눈굽 적시나니

장군님 웅위해갈 결사의 맹세

멸적의 총검마다 뜨겁게 어리여

우리 중대 훈련장에

일당백 용맹이 나래친다오

충효의 그 마음 넘쳐난다오

## 2월과 백두산

리영삼

스치는 바람결은  
 눈속에 움트는 봄의 음향인가  
 형언키 어려운 흥분에  
 가슴부푼다  
 답사길 굵이굵이  
 피어린 격전의 자욱을 더듬어가는  
 이 심장 뛴다  
 어깨우에 추스르는 배낭마저  
 혁명의 무게를 더하여준다

눈바람을 안은  
 밀림의 설레임소리  
 뿌리에서 우듬지까지  
 항일전의 이야기 새겨안고  
 파도쳐 설레며 설레며  
 서서 자라  
 서서 죽을  
 곧고 굳은 신념을 새겨주는듯

흰연기 모락모락  
 삭정이에 불 피워놓고  
 잣송이를 구워 맛볼 때에도  
 뼈를 깎는 추위로  
 불리는 성으로  
 코속에 얼음덩이 박혀도  
 대답은 하나  
 그때처럼 꼭 그때처럼  
 우리 살자 다짐하노니

눈덮인 백두의 길에  
 작은 자욱 찍으며  
 깊이 새기는 의미 크기도 하다  
 자신에 대해 다시금  
 명백한 결산을 지어볼수 있구나  
 천고의 우아함속에서  
 이름 못할 열정을 터치는  
 시인의 이 작은 목소리...

총탄자욱 피자욱  
 가슴에 안아본이 누구냐  
 눈을 움켜삼키며  
 풀뿌리 씹으며  
 배고픔을 달래본이 누구냐

고향집뜨락 찾아  
 경건히 옷깃 여미고  
 하얀 붓나무와 주고받는 이야기  
 그리웁던 정에  
 와락 끌어안고  
 불을 비비는 억한 심정

머리우에 뿌려지는  
 얼음 섞인 눈가루는  
 지난날의 간고함을 전하는듯  
 귀틀집뜨락에 반짝반짝  
 주름 패인 벽에  
 곡절많은 사연이 주는  
 오랜 고초가 력력하고  
 문은 문마다  
 잊지 못할분들을 기다려  
 활짝 열려있구나

오고싶었던  
 보고싶었던  
 구름노전에 손을 짚고  
 따스한 온기 느껴안으니  
 벽에 모신 3대장군영상앞에  
 후더운 가슴 젖어나  
 겨레가 소원하던 모든것  
 이 강산에 고스란히 꽃피우시고  
 조용히 지으시는  
 백두산일가분들의 자애넘친 미소  
 새 아침의 노을로 비껴가누나

X

새벽하늘가에  
 별들의 원무가 보여진다  
 서리꽃 그 빛발에도  
 향기 함뿔 뿌리는듯  
 지척에 다가서는  
 명언의 활달한 필적  
 꺼질줄 모르는 예지의 등불처럼  
 산정을 밝혀  
 사위는 이리도 눈부신가  
 화산재속의 마른 거목에도  
 기적같이 새싹이 움터  
 겨레와 더불어  
 천세만세 무성히  
 태양의 성지를 노래하리라



가볍게 류동하는 재빛구름  
수줍게 제모양 드러내며  
새날의 시작을 알린다  
우주의 한끝에 우뚝 솟아  
머리가 희어진 백두  
천하를 지켜온 장한 기상  
눈앞에 숨엄히 떠오른다  
오, 백두산아  
세세년년 생명의 푸르름을 키우며  
너 누구를 아들이라 불렀거나

어머니란 너를 몰라  
기울어진 왕조의 비극도 있었다  
사슬에 묶인 치욕의 력사도 있었다  
위대한 영웅의 넋이  
혈전만리 주름잡아  
너의 나날을 청사에 새긴 때로부터  
어둡던 비운은 가셔지고  
언어의 척도로 켤수 없는 오늘의 조국이  
주체로 천지개벽을 알리며  
세상이 부럽도록 우뚝 솟아 찬란하니  
백두의 아들이 빛내이는  
백두의 나라여

그 머리우에서 비쳐지는 해살이여  
향도봉가에 물들여지는 빛같은  
아름다운 벼랑마다  
무지개발무늬를 짠다  
찬란한 천상의 세계  
누리를 포옹하는 무한함이어  
환희의 눈빛은 새날을 보며  
한발 성큼 다가가  
불붙는 덩이를 꺼안고싶구나

천봉만악이 열광하는  
황홀의 극치여  
조화의 신비경이어  
하늘은 어디고 천지는 어드메나  
누리를 붉게 물들인  
불타는 모습 그대로  
이글이글 뿜어지는 몸부림을 본다  
산악도 바위도 봉화를 추켜들고  
환호하며 내닫는듯  
화산에 못비길  
분출을 아뢰이는 해돋이 해돋이순간

태양은 구름을 꿰뚫고  
돌출해있는 발가슴이 암석위로  
층층 쌓인 백설도 휘안는다  
시뻘건 불길이 휘감겨진다  
기적과 축복의 영원한 상징인양  
세상의 모든것을 지배한다

한손에 번개와 우리를 잡고  
상상의 눈빛속에  
절호의 기회를 노리는 거인같이  
삼천리 땅의 력사  
오늘에 머리 높이 쳐들라고  
생사의 뜻 크게 깨우친다

×

구름길에 웃음을 날리며  
굽이쳐온 세월의 흔적 더듬어가노니  
눈사태를 휘몰아  
장군의 숨결 날리며  
장검높이 침략자를 치고  
이 나라의 슬기를 떨친 백두  
자주를 기대하는 수억만의 기대를  
네 추켜든 붉은기에 새겨안은 산아

생의 시작에서 끝까지  
고귀한 지향 지켜  
사색과 정의의 깨우침을 준  
여기 장군봉마루  
걱정의 예리한 창끝에  
불꽃 품은 시혼을 깨우치며  
우주의 교향곡에 맞는  
태양의 노래  
인민의 노래  
전환의 시대에 울려간다

뜨겁게 뜨겁게 모아지는  
겨레의 숨결속에  
한모습 끄떡없는 백두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고  
굽힘을 알던가  
흔들림을 알던가  
눈서리 하얗게 핀  
산정을 뚫으니  
푸른 줄기 자라 붉은 꽃 피는  
생명의 참뜻을 알겠구나

낮도 없이 밤도 없이  
하늘땅사이 불길 솟는곳  
딘고선 조국의 지붕우에  
하늘이 무너진다 하라  
바위 날려 깎인다 하라  
혁명의 시작도 끝도  
여기에만 있는 영광의 최절정  
누구든 백두의 이 나라를 건드린다면  
그 시각은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시작일거다

래일을 위한 오늘을 사는 백두  
천지에 가득히 고인 배심으로  
세계를 깨우친다  
누를길 없는 꾸밈음을 준다

압살이 무어나고  
공갈이 무어나고  
낭끝마다 바위마다  
풀 한포기 흙 한줌까지  
맞설자 없는 필승의 힘을 지녔노란다

눈보라 눈보라  
내 마음에 화답하는가  
가볍게 몸을 흔드니  
진감은 드르륵 하나로 뻗어가고  
천지수림의 뒤편에  
세상이 통채로 드르륵  
회오리 회오리가 일으킨  
눈보라 아득히 솟아  
백마를 앞세운  
수백수천의 준마가  
구름발타고 일시에 내달리는듯

폭풍이 덩구는 이 산악에서  
무자비한 이 노도속에서  
눈우에 눈이 쌓여지고  
사상우에 사상이 쌓여지고  
투쟁과 위업의 초석을 쌓아  
력사의 오늘과 래일을 말한다

백두의 아들  
김정일 동지 없는  
백두산을 생각지 않는다  
백두산이 없는 조선을 생각지 않는다  
조선이 없는 지구를 생각지 않는다

하나로 묶어 터칠  
천만의 우뢰가 숨쉬는  
여기 태양의 메부리에  
세채의 태양각을 짓고서  
수령님과 어머니, 장군님을 받들어  
길이길이 영원토록 살고싶음이어  
무적의 힘 조선의 힘을 과시하는  
백두의 장엄한 2월의 해돋이어

빨찌산의 아들  
백두의 아들을 낳아 키운 2월아  
나는 온몸에 노을을 휘감고서  
목청껏 목청껏 웨치노라  
직위와 제복  
나이와 성별의 차이없이  
누구든 백두산을 밟지 않고  
이 땅에 살았다 말하지 말라

## 호수가의 생각

하늘은 물들었습니다 파란 물빛으로  
호수엔 담겼습니다 파란 하늘이  
고기들은 뛰어들라 해님과 입을 맞추고  
버들숲엔 새들의 노래가 넘칩니다

차마 못떠나고 다시 돌아봅니다  
한갈기 물결이 되고싶은 마음입니다  
고기처럼 버들처럼 그리고 새처럼  
나도 여기 보금자리 펴고픈 마음입니다

찾아올 땐 걸음 가벼웁더니  
떠날 땐 선뜻 왜 이리 걸음 못뻗니까  
가슴속 깊어지는 생각때문에  
누구도 쉬이 떠나지 못하는 기습입니다

다시 보아도 또 보고싶습니다  
내 나라 양어장 한식구가 된 열대메기들  
우리 장군님 열어주신 하늘길로  
비행기를 타고 예 찾아온 고기떼

정말이지 사랑이 여기 고였습시다

인민의 작은 기쁨을 위해서도  
천만가지 마음을 쓰시는분  
장군님 사랑이 호수되었습니다

고기가 노닐니다 진귀한 열대메기  
나의 생각 물속깊이 이 끌어잡니다  
하지만 그 어이 가닿을수 있으렵니까  
이 호수의 무한한 수심에야  
아버이사랑의 그 한끝에야

지도에도 없는 이런 호수들이  
내 조국엔 얼마나 많은것입니까  
지도에도 없는 이런 바다기슭을  
끝없이 끝없이 펼쳐주시려  
장군님 그 얼마나 멀고 험한 길  
한평생 걷고 또 걸으시는것입니까

고기떼는 노닐고 물은 맑은데  
머리우에 드리운 버들가지 한가지  
못건디게 내 마음 자꾸만 휘젓습니다  
못떠나는 내 마음 자꾸만 휘젓습니다

박경심

## 정열, 실력, 소원- 석운기

김의준

바야흐로 봄기운이 한껏 약동하는 날이었다.

주체85(1996)년 4월 26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문학예술부문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시어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당이 요구하는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천세봉, 석운기는 우리 문학의 판록있는 로작가들이었다고, 문학부문에서 튼튼한 기동역할을 한 인재들이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오늘 혁명적소설문학이 눈부시게 만발하고 인민들과 군인들이 그 소중한 가치를 심장으로 감수함을 볼 때 바로 이것을 위하여 자기의 심혼을 깡그리 불태웠던 작가 석운기의 진지하고 강직하고 열정넘친 모습이 떠올라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더불어 평범한 문학의 애어린 싹을 애지중지 차례워 기동감-거목으로 키우신 위대한 령도자의 끝모를 사랑과 로고가 헤아려져 벽차오르는 걱정을 억제하기 어렵게 한다.

### 처녀작

사계절 풍치아름다운 보통강변에 뿌리박고 기념탑마냥 푸른 하늘 높이 솟은 초고층고급살림집 22층 5호실에는 작가 석운기가 애용하던 서재가 지금도 그의 가족들에 의하여 정히 보존되고있다.

그것을 둘러보느라면 벽면을 짙게 채운 장서들에서 석운기의 대표작들도 볼수 있다.

우리 문학사에 기록된 중편소설 《전사들》이며 단편소설집 《폭풍시절》, 장편소설들인 《시대의 탄생》(1, 2부),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부),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그리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혁명소설 《피바다》...

그런데 이 금박의 호화장정 소설책들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게 색마저 누렇게 바랜 문학잡지 한권이 어깨나란히 꽂혀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문학창작의 닳을 올리던 시기 석운기가 쓴 처녀작이 들어있는 《청년문학》 잡지였다.

작가가 신인시절에 쓴 처녀작수준은 어느정도일까? 자못 흥미가 동하는바여서 사람들은 잡지속의 석운기의 처녀작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먼저 펼쳐들기가 일쑤다.

주체45(1956)년 3월 《청년문학》 창간호에 실린 이 단편소설은 신인 석운기의 개성적인 얼굴을 단번에 뚜렷이 드러내고 문단의 이목을 끌어모을만큼 우뚝 이채로왔다.

처녀작은 확실히 독자들의 경의를 자아냈고 적지 않은 충격과 청신한 인상을 기성문단에 주었다. 석운기는 대뜸 문단으로부터 장래를 촉망받았다.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이 문단에 가한 충격과 인심은 처녀작을 낸 신인이 전승의 날까지 용감히 싸운 20대병사로서 당시 병원침상에 누운 전상자라는 사실로 하여 더욱 가증되였다.

사실 그때 석운기는 보건성산하 양시영예전상자병원(당시 평안북도 룡천군소재지인 룡암포에 위치) 4호병동에 누워있는 몸이었다. 병원의 4개병동 중 4호병동은 가장 위중한 환자들이 집결된 병동이었다.

석운기자신도 자기가 중환자의 처지에 떨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바였다. 조국해방전쟁 3년간 내내 때로는 항공연유를 만재하고 때로는 포탄과 폭탄을 가득 싣고 불같은 성미 그대로 적기의 폭격속을 살같이 달리며 위훈을 떨쳐 전진신문에까지 《용감한 수송전사》, 《영웅적운전수》로 알려진 그가 장쾌한 전승의 만세소리를 듣는 순간 의식없고 쓰러질줄을 어이 알았으랴. 싸움으로 긴장되었던 탕개가 일순 풀리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던지 모른다.

의식없는 석운기를 진찰하던 야전군의소의 군의들은 그만 아연실색하여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었다.

《이 몸으로 3년을 싸우다니?!》

어떤 원인으로 해서인지 이미전에 특공이 온통 으스러졌던데서 3대는 아예 잘라낸 상태였고 역시 펍 오래전에 강한 외부적타격을 받았던 척추는 당장 동강날듯한 위험지경이었던것이다. 본인이 이 사실을 조국해방전쟁 전기간 숨기고 싸워왔음이 분명하였다. 지체없이 후방의 영예전상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렇게 꼭지땀 병원생활이 3년세월 지속되고있었다.

예민한 사나이인 석운기는 자기 몸이 다시 무장대오에 서기는 어려우리라는것을 직감하였다. 귀밑머리에 흰서리 내리고 눈동자에 삶의 마지막안개가 덮일 때까지 총잡은 병사로 복무하리라 굳은 맹세안고 해방된 서울에서 의용군으로 입대했건만 생활은 새 초소로 옮겨갈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번뇌끝에 그는 혁명에 복무할수 있는 새 무기를 정열적으로 준비하였다. 병마와 싸우면서 꾸준히 문학수업을 하고 로어공부를 하였다.

그러던중 마침내 처녀작을 주조하지 않고는 못배길 세찬 충격을 당하였다.

그 충격이란 어떤것이였는가.

병세가 조금 호전되자 석윤기는 4호병동의 당세 포위원장일을 맡게 되었는데 게다가 병원에술소조 활동을 위한 합창시, 재담, 촌극, 가사, 지어 소개자의 소개말까지 맡아 써주어야 하였다. 연출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이런 연고때문이었는지 그는 환자들과 의사들, 병원관리일군들과도 친숙해졌다. 당시 병원원장사업을 하던 항일혁명투사 림춘추동지와 기술부원장인 《유격대의 군의》리봉수동지 까지도 강직하면서도 소탈하고 신중하면서도 락천적이며 박식하면서도 겸손한 젊은 세포위원장 석윤기를 펍 마음들어했었다. 의술만 능한것이 아니라 항일빨찌산시절부터 유명한 문필가, 력사가로서 높은 문학적조예와 문필기량을 체득하고있었던 림춘추동지는 한눈에 호감이 가는 석윤기를 만날 때마다 제먼저 문학담을 걸어오는적이 드문하였다.

한번은 세계의 이름있는 문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중 자기가 아는 진짜 문학영재는 《우리 장군》이라고 하였다. (림춘추동지는 10대전의 김정일장군님을 존함대신 친근하게 이렇게 호칭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지극히 가슴뛰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주체39(1950)년 10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나서신 《우리 장군》께서 당시 서포에 자리잡고있던 쏘련대사관에 들리셨을 때였다. 그날저녁 그곳에서 우리 나라 국립교향악단 공연이 있었는데 한 배우가 《5월의 밤》이라는 서정가요를 불렀다. 가요에 담긴 내용인즉 아름다운 5월의 밤에 싸움을 앞두고 전투좌지에 엎드려있는 병사가 밤의 고요를 깨뜨리며 청아하게 울려오는 피콜레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떠나온 정든 고향과 두고온 눈동자 맑은 처녀를 그리워하는것이였다.

공연이 끝난후 이 노래를 부른데 대하여서만은 논의가 분분해졌다. 일군들과 음악전문가들조차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이 한창인 준엄한 때 고향을 그리워하고 애인을 생각하는 노래는 전사들에게 나약성을 싹틔워줄수 있다고 되게 불만해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를 선택하여 부른 가수의 사상적립장에 문제가 있다고까지 추궁하려들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우리 장군》께서 조용히 일어서시였다.

발랄한 지성이 느껴지는 따뜻하면서 청정한 말씀이 장내에 울렸다.

전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람인데 사람의 사상감정은 추상적일수 없고 구체적이라는것, 애국심도 고향을 사랑하고 애인을 그리워하는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것, 싸움을 앞두고 전호에 엎디여있는 병사의 마음속에 지켜내야 할 고향도 없고 사랑하는 처녀도 없다면 병사가 적을 맞받아 용감히 돌진할수 없다는것, 가수가 부른 노래에는 전쟁에 참가한 병사의 애국심이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나타나있다고 명쾌하게 분석론증하시였

다…

원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난 석윤기는 10대전 《우리 장군》의 원숙하고 완벽한 세계관, 투철하고 광휘로운 미학적탁견에 완전감복되였다. 음미할수록 전사의 애국심에 대한 말씀은 심오한 뜻이 담긴 철학이였다.

경탄… 매혹… 흥모… 이것이 그 순간 석윤기의 감정상태였다. 이 감정은 그후 석윤기의 일생을 관통한 지배적감정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펍 오랜 세월이 흐른 주체72(1983)년 4월 17일 당시의 일을 회고하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그때 자신께서 세계관이 서있었으니 그 노래가 좋다는것을 알았지 세계관이 서있지 않았더라면 나쁜 노래라고 하였을것이라고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석윤기는 창작적충동에 사로잡혔다. 조국해방전쟁승리의 결정적 힘을 전사의 애국심으로 보시는 《우리 장군》의 견해의 정당성을 생동한 형상으로 구현하고싶었다.

그는 애국심의 본질과 표현에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40(1951)년 6월 30일 교시와 《우리 장군》의 말씀에 고무되면서 끝내 창작의 첫 붓을 들고야말았다. 성공여부를 생각하기전에 자기가 수송차를 몰고 포화에 휩싸인 철령, 단발령을 넘나들며 확신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진리에 대하여, 그 승리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한 처녀병사의 소박한 사상과 감정, 신념과 랑만을 사실그대로 그려나갔다.

이렇게 씌여진것이 처녀작 《두번째 대답》이다.

소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문학통신원들은 말할것도 없고 소설가, 평론가들도 하나같이 격찬해마지 않았다.

그렇지만 석윤기의 처녀작에 대하여 가장 깊이 리해하시고 제일 값높이 일러주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첫 독자가 되시여 작품을 읽으시고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생활을 취급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대한 힘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철학적깊이가 있게 밝히였다고 하시며 3명의 등장인물과 불과 몇 시간동안에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전쟁의 면모를한 눈으로 볼수 있게 생동하게 그리고 작가가 주장하는 작품의 알맹이도 명백하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쟁의 운명은 부르조야군사자들이 주장하고있는것처럼 현대무기나 군사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군대와 인민의 전투도덕적품성,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하나로 단합된 군민의 정치사상적단결에 있다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진실하게 론증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벌써 40여년전에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창작의 첫걸음을 땀 석윤기에게 있어서 운명적

인 행운이라 할 것이었다.

사실 처녀작을 내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치하를 받는 영광을 지닌 신인은 우리 문단에서 극히 드물다.

처녀작단편소설이 당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리한 사회적 문제성을 제기하고 철학적 깊이가 있게 형상으로 밝혔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가? 사람이나? 무기이나?

이 엄청난 거창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절박한 생활철학, 투쟁진리를 신인 석운기는 자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놀랄만치 간명하고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밝혔다.

포로된 미공군대위 로버드슨은 조선인민군 처녀병사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힘앞에서 무기의 힘을 절대화하던 자기의 첫번째 대답을 스스로 포기하고 전쟁의 운명이 기술장비에만 달리지 않았다고 두번째 대답을 하는 것이다.

처녀작단편소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은 주인공 형상이 참신하고 생동해서였다. 주인공 경희의 성격에서 주도적인 것은 전투임무수행에서의 높은 책임성과 자기희생성이다. 이목구비가 단아하고 예뻐장한 경희는 마음이 웅골차며 성미가 다감하다. 필승의 신념을 생활화하고 있는 그에게서는 어떤 포화로도 흐릴 수 없는 싱싱한 활기와 랑만이 내풍긴다. 일생에서 가장 꿈많고 희망넘친 청춘시절에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수송차에 연유를 무겁게 만재하고 탄우속을 헤치면서 처녀로서는 힘에 부친 수송임무를 수행하는 그의 모습은 감동적이다. 단발머리마저 화염에 그슬리고 적탄에 피도 흘리면서 불타는 철령을 쉬임없이 넘나드는 그의 눈부신 활약은 영웅적이다.

18살 군복입은 처녀가 말없이 미제에게서 두번째 대답을 받아내는 참신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신인 석운기가 전후 처음 우리 단편소설문학에 등장시켰다. 여기에 처녀작 《두번째 대답》이 가지는 시대적 무게가 있었다.

처녀작단편소설은 또한 3명의 등장인물과 불과 몇 시간 동안에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의 면모를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고도의 간결성, 명백성, 치밀성을 요구하는 단편구성의 예술적 묘리도 훌륭히 실현하는 기교를 보여주었다.

처녀작을 낸 순간부터 탁월한 스승의 다심한 보살핌 속에 미래의 이름있는 작가 석운기는 있었다.

4년만에 퇴원하는 석운기를 병원정문에서 미모의 싱싱한 처녀가 싱그러운 가을 들꽃다발을 안겨 주며 맞아주었다. 함께 병원생활을 하다가 한해 먼저 퇴원하여 북중기계공장 도시설 사서로 일하는 최고사령부통신병 출신의 림정아였다. 천고마비 계절이라 일컬어는 하늘푸르고 대지 풍성한 가을 날 사랑하는 처녀와 다정히 룡천벌을 걷는 석운기의 가슴은 새로운 생활의 욕과 창작적 열정으로 차넘쳤

다.

그는 조선작가동맹출판사(당시) 편집원으로 배치받았다. 창작열망을 더 부채질해주는 직업이었다. 인민들속에서 특출한 명작으로 사랑받게 될 중편소설 《전사들》 구상을 이때 무르익혀나갔다.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 대하여, 이 싸움을 감당한 영웅전사들에 대하여 세상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어야겠다는 시대적 무감에 시달리면서 첫 중편창작의 붓을 들었다.

석운기의 처녀작 《두번째 대답》을 대하시었을 때부터 신인작가의 작품에 비긴 명석한 철학견해와 독특한 창작기교를 범상치 않게 여겨보셨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이번에도 중편소설 《전사들》을 품들여 지도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51(1962)년 9월 22일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앞에서 장시간에 걸쳐 중편소설 《전사들》이 거둔 사상예술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중요한 담화를 하시었다.

작품에 그려진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서부터 소설에 실어진 사상적 핵과 주제사상, 성격들과 사건들, 작품의 예술적 견인력과 인식교양적 의의에 이르기까지 전면 분석하여 주신 이날의 말씀이 담겨진 것이 바로 **《중편소설〈전사들〉은 인민군전사들의 송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이다》**라는 제목으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에 수록된 유명한 담화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독립적인 담화제목을 설정하시고 하나의 소설작품에 대하여 오랜 시간을 잡아 전면 분석평가하여 주신 때는 우리 문학사상 일찌기 없었다.

이런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 석운기는 우리 문학의 앞날의 기동감으로 또 한돌기 성장년륜을 새기게 되었다.

석운기는 이처럼 처녀작을 쓴 첫걸음부터 남달리 위대한 장군님의 커다란 지지와 고무 속에서 소설창작의 길을 한자육한자육 드림없이 걸어나간 행운아다.

석운기는 주체49(1960)년 4월 1일부터 당의 배려에 의하여 열망하던 현역소설가로 되었다. 새로운 명소설을 내놓기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던 그는 당의 믿음과 기대에 참답게 보답할 일념으로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을 구상하였다.

그런데 지금껏 말썽이던 척추골결핵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척주의 농구멍에서 생긴 고름이 궁둥이 살속을 거쳐 오른쪽 넓적다리뒤를 뚫고 흘러내리는 형편이었다. 의학계에서는 이 농구멍을 《바르파스멜찌(죽음의 문)》라고 부르고있다.

생명을 잃을번하는 무서운 순간과 대수술을 세번이나 겪어야 하는 고통속에서도 석운기는 붓을 놓지 않았다. 부인 림정아녀성의 지성밀에 초인간적 의지로 상상기 어려운 천신만고를 이겨내면서 끝내 《시대의 탄생》 1부를 탈고하여 주체53(1964)년

독자들앞에 내놓았다.

## 실력가상 몇 측면

작가 석운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더불어 출중한 창작실력을 상기하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신임에 의하여 석운기는 주체58(1969)년 4월부터 4.15문학창작단 작가로 되었으며 주체61(1972)년 2월부터는 창작단 책임자로 일하였다.

오랜 나날 석운기와 창작생활을 함께 해온 작가 강능수, 김병훈, 권정웅, 최학수들은 하나같은 말을 한다.

《석운기동무야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짝질데 없는 실력작가였지!》

작가 석운기의 실력가상에서 제일 두드러지는것은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것이다. 그것은 곧 실력향상을 위한 그의 피타는 노력의 넓이와 깊이이기도 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 창작을 위하여 당력사연구소에 비치된 항일혁명투사들의 자필 《일대기》를 취재하던 때이다. 석운기는 애당초 어벌크게 《일대기》 수집권을 몽땅 복사하되 싫어하였다. 정열에 복받쳐 취재한 학습장이 또한 수집권을 헤아려 높게 가려놓았을 때는 거의 작가의 크지 않은 키높이에 이르렀다. 취재를 마치자바람으로 한평방쯤되는 흰모조지에 어버이수령님의 방대한 혁명활동내용과 투사들의 《일대기》 내용을 집약응축하여 일목요연하게 담았는데 그 한장을 들여다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혁명활동을 벌리고 계실 때 다른 투사들은 같은 시간에 어디서 어떤 내용의 임무를 수행하고있었으며 그 과정에는 어떤 생활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전모가 순간에 손금같이 안겨온다. 품들어 완성한 《도해표》는 그 착상이 세련되고 작성방식이 합리적인데다 담은 내용이 간결명백하면서도 풍부하여 당력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찾아와 베껴갔다. 전문가들을 무색케 할만큼 항일혁명사료를 폭넓게 깊이 꿰뚫고있는 석운기였기에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항일혁명투쟁시기권 전15권중 무려 네권을 맡아 써내기도 하였다. 이 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실지있었던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쓴 소설이라는 치하의 교시를 받았다.

붓을 들기전에 작품의 전모를 머리속에 완벽하게 무르익혀가지고 일필휘지로 추고공정없이 소설을 완성하는 회한한 창작기량은 석운기의 실력가상의 다른 한 측면이다. 석운기는 집필전에 작품에 담아야 하고 독자들에게 주어야 할 종자와 주제사상, 인물관계와 사건흐름 지어 인물들의 대사와 자연묘사, 작품의 양상이며 생활세부까지도 머리속에 완벽하게 준비하곤하였다. 이런 그가 간혹 못동료들의 의

견을 받아볼 심산으로 머리속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면 방대한 내용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는것이였다. 중편소설 《전사들》 줄거리는 하루밤동안 들려주었고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은 3일간 련속 펼쳐보였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1부와 2부는 이틀동안 자세히 정열적으로 들려주었는데 1부내용도 훌륭하였지만 2부내용은 그보다 더 감동적이였다. 이 소설 1부가 출판되었을 때 책을 읽어가던 작가 김병훈은 유철의 안해 삼녀가 간도 룡정에서부터 고등어합지를 이고 힘겨운 행상을 하면서 수천리길을 걸어 서울 서대문감옥에 나타나 남편과 면회하는 장면에 이르러 《이런, 얼마전에 읽은 책을 또 볼드고...》 하며 책장을 덮어버렸다는것이다. 읽은적은 없었는데 석운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채 활자로 찍혀나온데서 생긴 일순 착각이였다고 할지... 석운기 작품구상력의 치밀성과 완벽성을 말해주는 실례라고 할것이다.

작가 석운기는 작품을 머리속에 그득히 무르익힌 다음 붓을 드는 까닭에 집필을 쏟아붓는 식으로 추고공정없이 결속한다. 집필도중 붓을 멈추고 무엇인가 트이지 않아 공공 갑자르는 경우가 없다.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써내는 작품이 초고이자 곧 완고로 락착된다. 세상에 이름난 소설재사, 문학대가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석운기고유의 창작실력 위세이다. 집필은 대체 아침 9시부터 몰두하여 2~3시간동안 휴식없이 백지에 달필하였다. 원고지 80~90매에 해당되는 량을 떨구는것으로 하루 집필과제를 마친다. 나머지 시간은 머리속에다 작품을 한줄한줄 이랑지어놓으며 거기에 피땀을 관수하여 자태우는 강도높은 사색중로동시간이다. 다음날 아침에는 전날 쓴것을 반드시 소리내여 읽는다. 묘사의 생동성이나 어휘표현의 정확성, 문장의 광채나 정교성만이 아니라 문맥의 읊조미와 톨동성까지도 손색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것이다.

우리 소설문학의 지성세계를 전반적으로 한층높이 끌어올린것은 석운기의 실력가상의 또 다른측면이라 할것이다. 그가 소설창작에서 제일 경멸한것은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순응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하고 천박스럽고 저조한 지성도였다. 석운기의 소설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건인력의 하나는 지성세계가 매혹적인데 있다. 석운기의 작품의 키는 본질상 작품의 고상한 지성세계의 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상싶다. 그의 어느 작품에나 독특하게 발견된 새로운 생활철학이 있고 독자들이 주목할만한 고상한 미의 세계가 있다. 사람들의 두뇌를 살찌워주는 깊고 풍부한 지식이 있으며 무릎을 치게 하는 절묘한 형상기교가 있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사상체계가 선 작품이며 종파의 후파에 다하여 잘 아는 사람이 쓴 작품이라는 높은 평가의 교시를 받은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은 혁명의 운명개척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심오한 탐구, 수령의 손길아래서만 존엄높은 혁명가로 무성할수 있다는 참된 인생관의 제시로 독자들의 심장을 들끓게 한다.

아버이수령님으로부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실지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잘 형상하였다는 치하의 교시를 받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간고하고 준엄했던 조선혁명의 피어린 로정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사실주의적묘사, 자주성을 생명으로 간직한 불굴의 인간들의 아름다움과 위대성에 대한 열렬한 레찬, 웅건한 묘사기백과 탄력있는 이야기전개로 사람들을 깊이 사색케 한다.

아버이수령님으로부터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정치로선을 명백히 주었고 아주 잘 쓴 작품이라는 치하의 평가를 받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두만강지구》, 《봄우뢰》는 수령님의 업적과 우리혁명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형상적확증, 항기그윽한 민족적정서와 미풍양속의 훈향, 넘쳐나는 랑만과 밝은 양상으로 독자들을 매혹시킨다.

아버이수령님으로부터 눈물나는 장면이 많고 자료들도 다 맞게 잘 썼다는 치하의 교시를 받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는 혁명적동지애가 후덥게 일렁이는 기름진 화폭들, 생신한 사상과 리상, 건실한 육체와 열정을 지니고 황막하던 혁명의 대지를 푸르싱싱하게 전변시켜가는 청춘들의 고매한 성격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숙여지게 한다.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는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은 세계군사정치정세를 한손에 쥐고 흔들어대는 담대호방한 도량, 자유분방한 예술적 환상력과 구성의 립체미, 감각적이며 정서적인 언어구사와 강건화려한 문장조직, 적들에 대한 기지있는 조소와 야유로 독자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한다.

석운기는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되는 모든 작품들의 지성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도 뼈를 깎는 고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과정에 작품들의 지성품위가 더더욱 아름다와지군하였다고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오늘도 이구동성 외우고있다.

작가 석운기의 높은 지성수준은 세계 각국 고금의 문화와 력사에 대한 해박한 풍미, 생활에 대한 다방면적이고 심오한 식견, 높은 인격에 바탕을 두고있다. 그는 영어, 로어, 일어, 중어, 도이쉴란드어로 쓰인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작품들과 각국 백과사전들을 독파하였다. 외국어로 된 작품속의 성구, 속담은 물론 은유법으로 아리송하게 표현된 상소리 같은것까지도 그 뜻을 꿰뚫는 수준이었다.

언젠가 번역작가로 일하던 강동무가 단장실에 들린적이 있었다. 책을 읽던 석운기단장이 눈길을 들더니

《강동무요? 안성맞춤이구만. 이리 가까이 좀 오

우.》하며 허구프게 웃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다가선 강동무에게 다시 《이것말이요... 이런 상소리는 번역처리를 어떻게 하오?》하며 읽고있던 책장의 한곳을 가리켜보였다.

강동무가 책표지를 뒤져보니 중문판원서 《홍루몽》 2권이였다. 허구픈 웃음을 자아낸 대목인즉 가보옥, 풍자연, 운아, 설반, 장옥함 등 젊은 남녀가 모여앉은데서 설반이가 은유적으로 떠벌이는 걸죽한 육담이였다.

강동무가 그런 표현은 흔히 《×××》와 같이 숨김표로 처리하게 된다고 하자 석운기는 《그럴수밖에 없을것 같구만.》하는것이였다.

강동무가 까다로운 중문은 어느사이 뗐는가고 따지듯 묻자 석운기는

《아홉살때 목단강에서 뒤흔 중국소학교에 다녔던거지.》라고 한숨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다.

두해사이에 중어를 그렇게 원만히 소유하다니? 호기심많은 강동무는 좀 자세히 알고싶어 지못게 달라붙었다.

이렇게 되어 언제한번 자기 경력을 입밖에 낸적 없는 석운기로부터 중어를 수월히 깨칠수 있었던 사연의 한토막을 강동무가 얻어들을수 있었다.

사실 석운기는 어려서부터 동네와 그 아근에 《신동》으로 소문짜하였다. 그렇게 된것은 어른들도 떼기 힘들어하는 《천자문》을 석운기는 5살에 뗐기때문이었다. 5살때부터 어른들틈에 끼워 서당공부를 하였는데 총명하기로 소문났던것이다.

이것이 가난한 집에는 큰 기쁨이여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목마태워가지고다니며 사람들에게 자랑하였다. 동구앞 락동강가에는 나루터가 있어 사람들이 무시로 모였다. 하루는 강둑 잔디에 무릎 꿇고 양중스레 앉아 5살 어린것이 못사람들에게 천자문을 또랑또랑 외워보이는데 당췌바지 입은 안경쟁이사나이가 어린것한테 만년필을 내밀었다. 자기가 읊는 천자문구를 써보라는것이였다. 안경쟁이는 제법 운까지 돌려 《한래서왕이요, 추수동장하니라.》하고 호기있게 뽑았다.

사람들은 《저 어린것에게 너무 파하는군.》하고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였다. 그러면서도 위구심과 호기심이 겹친 눈길로 어린것의 거동을 주시하였다.

아이는 조금도 주저하는 빛이 없이 입을 옥물고 쪼꼬마한 손에 쥔 검은색만년필에 힘을 모아 종이 위에 한문 《찰한, 올래, 더울서, 갈왕, 가을추, 거둘수, 겨울동, 감출장》을 4언절구로 써놓았다. 아이 글씨같지 않게 필체가 방정하고 필순이 땀혔으며 필맥이 박동하였다. 안경쟁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번에는 좀 주눅든 어조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아이는 뚫어앉은 자세를 바로하며 당돌하게 《예, 찬것이 오면 더운것은 가는데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건사해둔다는 뜻입니다.》하였다.

모두들 허를 내돌렸다. 신동이 났구나!

그는 열살전에 벌써 어른들과 함께 사서삼경을 익혀냈다. 석유키의 총기와 조속정도를 짐작하게 하는 일화라 하겠다.

풍부하고 독특한 어휘발을 가지고있으면서 그것을 능란하게 구사하며 자기고유의 강건하고 화려한 문체를 확립하고있는것은 석유키의 실력가상의 또 다른 측면이다. 작가 석유키의 소설을 펼쳐들면 첫 줄부터 철학적인 사색과 열정적인 호소, 뛰어난 기지와 참신한 정서가 가득 담긴 탄력있는 문장에 매혹되어 한줄한줄 눈을 밝히며 새겨나가게 되는것이 독자일반의 공통심정이라 할것이다.

그의 언어에는 그의 체취가 물씬거린다. 알기 쉽고 표현이 정확하고 간결명료하며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그의 언어 마디마디 글줄은 다 인민의 비위에 맞고 시대의 미감에 맞으며 민족의 구미에 맞는다.

석유키는 한줄한줄을 인민과 말한다는 립장에서 어휘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어쓴 책임성높은 작가였으며 언어활용의 능수였다.

총적으로 석유키의 특출한 실력가상은 당의 문학을 실력으로 받들어온것이며 실력으로 그 문학을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 끌어올린것이다.

석유키는 창작실력만 높은 작가가 아니었다. 뜻이 높고 수량이 높은 작가였다. 남달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런 티를 낼줄 모르고 다른 작가들의 창작을 탐도와 방조하면서도 작품이 완성되면 고스란히 본인 수고로만 간주하였다.

여기에 바로 작가 석유키의 인간적매력이 있고 만작가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었던 중요한 리유가 있었다.

## 나의 소원은...

소원, 사람이 제일 《원하고 바라는바》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소원에는 언제나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비껴게 된다.

무릇 인간은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기마련이다.

작가 석유키가 일생 가장 원하고 바라바는 무엇이였는가?

작가의 현시 《나의 소원》이 물음에 대한 긴 대답을 대신하고있다.

작가의 유고로 시 3편이 있는데 시형태까지 찍어 밝힌 산문시 《우리의 인생》, 담시 《력사와 주고 받은 담시》, 현시 《나의 소원》 순서로 묶여져있다. 3편이 다 내용과 형식이 독특하고 완벽의 경지에 이르러 능히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명시이다.

지면상관계로 여기서는 현시 《나의 소원》 언급에 국한시킨다.

《1985.2.16.》이라는 뜻깊은 날자가 현시뒤끝에 창작날자로 밝혀있다.

못밋을 력사의 날을 맞이하여 《나의 소원》을 읊조리지 않을수 없었던 작가 석유키의 격앙된 심

정을 잠시 더듬어보기로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감옥의 서리진 감방에서 오랜 사색끝에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고 항일무장투쟁방침, 혁명적당창건방침을 확정하시여 새 조선의 탄생을 마련하신 뜻깊은 주체18(1929)년 가을, 바로 그해 10월 22일 저 락동강류역의 경상북도 달성군 동천면 불로동 가난한 농가에서 석유키가 맏이로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나 기쁘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먹여살릴 일이 막막하여 한숨지었다.

석유키가 9살때 장마로 락동강이 범람하는통에 소작살이마저 폐농하였다. 정처없이 떠나간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손목을 잡고 눈발 휘뿌리는 두만강을 건널 때는 어린 마음에도 나라없는 처지가 서러워 흐느껴울었다. 중국 목단강에서 아버지를 만나 그래도 2년간 중국소학교에 다녔다. 도시에 주둔하고있는 관동군6군관구 헌병놈들의 학살만행을 목격하면서 치를 떨었다.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을 들으면서는 희망과 용기로 가슴부풀었다. 그곳에서도 살길이 막혀 일가는 2년후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소작살이에 명줄을 걸었다.

13살에 가족, 친척들의 피어린 후원으로 대구사대륜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공인된 수재학생으로 유명했고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학원당국이 강요하는 단체복착용반대행동 등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16살에 조국해방을 맞이하였다. 열혈청년은 폭양에 달아오른 8월의 거리를 뛰어가며 부르짖었다. 우리 세상이 왔다!

우리 세상! 하지만 진정한 우리 세상은 오지 않았다. 망해 달아난 왜놈대신 미국놈이 주인행세를 하였다. 석유키는 반미구국투쟁에 나섰다. 전인민적인 10월반미항쟁때는 교내 학생들을 휘동하여 대구경찰서를 습격점거하였다. 항쟁이 피의 교훈을 남기고 실패하자 그는 공화국의 품이 하도 그리워 두차례나 평양을 다녀갔다.

18살에 성균관대학 국문과에 입학하였으나 《국대안》반대투쟁에 앞장섰다는 리유로 1학년에서 퇴학당하였다.

조선문학가동맹 서울시지부 서기국에 입직하였다. 다음에는 잡지 《예술평론》편집에 종사하였다.

주체37(1948)년 12월 력사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지하선거련관장운동(문건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지하선거운동)에 앞장섰다. 아지트에서 불행하게도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었다. 서울종로경찰서에 감금되어 특공들이 몽땅 상하는 가운데 3대는 완전부서지고 척추가 꺾이고 각혈하는 중세기적악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조직의 비밀을 고수했고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4개월후 폐인이 되어 병보석으로 들것에 실려 감방문을 넘어섰다. 그는 통렬히 절감하였다. 조국, 그것 없이는 생명도



소원도 자유도 있을수 없음을.

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자 몸의 상처를 감추고 용약 손에 총을 잡았다. 원썩결명의 성전에 나섰다...

한달에 한번 당비를 바치려 당원증을 펼칠 때마다 거기에 적혀있는 입당날자 주체41(1952)년 봄이 되살아나곤하는 석유키였다.

당은 총잡았던 그의 손에 창작의 붓을 쥐여주었다.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이 달려왔는가.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다.

작가의 창작적양양을 저해한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저주로운 병마였다.

솔직히 말해서 작가 석유키는 처녀작을 내던 홍안의 시절부터 한생 병마와의 싸움속에서 창작하였다. 그는 병마앞에서 무조건 강자의 자세였다. 병마는 인간의 정신력자체보다 강할수는 없다는것이 그가 병치료에서 당당히 견지하는 립장이고 지론이었다.

그러나 보살펴주는 사랑이 없었더라면 지치고 시달린 그의 육체가 그토록 기세차게 활동할수 없었을것이다.

석유키의 자서전에는 이런 글줄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보살피심이 아니었다라면 나는 창작은커녕 육체가 이미 시체로 된지 오랫동안 될것이다.》

정직한 토로이다. 작가 석유키의 건강을 위하여 기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는 참으로 지극한것이였다.

작가의 자서전에 씌여있는 몇대목만 상기해도 그것을 절감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부터 작가 석유키의 창작활동을 지도해주시였으며 최첨단의료설비를 갖춘 평양남산병원에서 석유키의 건강을 책임지고 치료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후에는 몸소 마련하신 동석식사에 작가를 불러주시고 석유키동무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어주시였다. 그리고 좋은 계절에 외국에 가서 구경도 하고 바람도 쏘이면서 머리를 쉬우라고 관광려행도 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고난의 행군》을 쓰고있는 작가에게 약해진 몸을 어서 회복하기 바란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또다시 귀한 보약 복용 한통을 보내주시였다.

거듭되는 배려를 받아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각까지도 석유키는 이제 주체75(1986)년 가을이 되면 이름난 크림국제휴양소로 가족휴양을 떠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할수 없었다. 또 자기의 병이 갑자기 악화된 주체77(1988)년 1월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능한 의사들로 강력한 치료진을 무어주시고 친히 적극적인 치료전을 포치지도하시리라고도 생각할수 없었다. 더구나 간병치료에서 세계적인 명의가 중국에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

서 돈을 아껴서는 안된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석유키동무의 병을 꼭 고쳐야 한다고 하시며 즉시 비행기를 내여 중국 명의를 데려내다 치료케 하고 그 명의가 부르는 세상 좋은 약을 다 사다쓰게 하는 전설같은 일이 생기리라고도 석유키로서는 생각할수 없었다.

여러 나라의 요인급인물만 치료해오던 중국의사가 일개 작가의 병치료를 위하여 나라의 옹근 의료집단이 달라붙고 자기까지 초청한 현실앞에서 **김정일**령도자는 정말 위인의 인덕을 지니고나신 천인이라고 감탄하며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숙이고 흐느껴 운 일도 이때 있게 된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 석유키의 건강을 지켜주시였을뿐아니라 **《김일성훈장》**도 **《김일성상》**도 로력영웅칭호도 작가동맹위원장의 직책도 다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 살아온 석유키여서 항상 그에 보답할 마음으로 장군님을 따르고 받들었다. 옥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그의 충효심을 보여주는 많은 일화들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지금의 4.15문학창작단 청사가 완공된것은 주체75(1986)년 12월이였다. 완공된 때로부터 넉달반 동안은 비여놓은채 단장인 석유키가 교대없는 경비만 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별히 술한 자금을 들여 마련해주신 사랑의 집인데 그이를 모시기전에 집들이를 한다면 전사의 도리가 아니라는것이였다.

주체76(1987)년 4월 14일 고대하던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는데 그날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석유키는 부주의로 장군님의 그림자라도 밝게 될세라 몸가짐을 극력 주의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고 받드는 석유키마음의 순결무구하기가 대체 이리하였다...

뜻깊은 주체74년 2월 16일 아침 석유키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영상앞에 큰절을 올리였다.

그리고나서 그자리에 선채로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간절한 소원을 아뢰였다.

그날아침 석유키가 읊조린 헌시 **《나의 소원》** 전문을 소개한다.

## 나의 소원

나의 소원은...

죽어도 버릴수 없는 나의 소원은

밤이나 낮이나 그리움에 젖어 목메이는

간절한, 간절한 마음이어라

내 철부지시절

박꽃이 하얗게 핀 초가지붕아래서 은하수를 바라

보며

전설속의 배사람 신드바드가 되어  
마왕의 공주를 빼앗아오는 꿈도 꾸었더라

고무풍선처럼 가슴부푸는 시절도 있어  
발명가가 된다고 색종이에 청사진홍내를 내고  
때로는 월계수 머리에 두른 시인이 부러워  
금박칠한 문호들의 선집을 끼고다닌적도 있었더라

하나 싸움의 불길속에 철이 들고 고무풍선은 꺼  
졌나니  
불비와 시체를 헤치며 쓸쓸한 광야를 걸어갈때...  
잃어진 내 어머니, 어린 동생을 생각하며  
숫덩이가 된 내 가슴에 새로 움튼 소원은  
총천 전사의 의무  
미제를 물리치고 통일된 내 조국에 펼쳐질 무수  
한 상봉을 바라보며  
마음껏 울어보는것

나의 소원은  
깨끗하고 소박한 나의 소원은  
원쑤가 불태우고 짓이겨놓은 나의 소원은  
친애하는 그이의 품에 안기여 소생의 봄을 맞이  
했나니

아, 나래치라 꿈이여! 희망이여!  
한없이 부풀어오르라 나의 소원이여!  
찬란한 공산주의태양아래 백화는 만발하고  
만가지 소원이 다 성취되나니

나의 소원은...  
태어나 반세기 세월이 짧지 않아  
불에 타고 눈비에 젖어 시들어가던 그 추억을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서도 잊을수 없어  
가슴속 저 깊은곳에서 속삭이는 말

내 그이의 주체위업 받들어  
깊은 밤 그이께서 펼치실 책갈피에  
단 한줄이라도 주옥같은 글줄을 새겨  
지치신 그 입가에 한가닥 미소를  
피워드리게 할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자나깨나 잊을수 없는 나의 소원은  
죽어도 버릴수 없는 나의 소원은  
만민의 행복  
조선의 영예  
이 세상 모든 소원의 구심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이여라!

1985.2.16

한시 《나의 소원》에는 말로써 표현할수 있는 한  
계에서 최대량의 시대정신, 시대정서가 담겨져있다.

한시는 작가 석윤기가 한생 창작의 붓을 달린 목  
적이 무엇이었으며 그의 문학이 무엇으로 하여 그  
리도 큰가를 알게 해주는 석윤기의 산 목소리이다.

명망높은 소설가에게 있어서 시창작이라니 좀 이  
례적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석윤기는 소설에서처럼  
《제3의 성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의 개성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심중에 사  
품치는 소원을 인민앞에, 시대앞에 토로하고 고백  
하고싶었던것이다.

참다운 소원이 없는 작가는 시든다.

참된 소원이 석윤기의 문학을 성공케 하였다.

아름답고 위대한 소원이 아름답고 위대한 문학을  
낳았다.

작가 석윤기는 비록 떠나갔어도 그에게 배풀어주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나날이 커만  
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주 작가 석윤기를 회고  
하시면서 때로는 그의 깨끗한 작가적관심과 지칠줄  
모르는 정열에 대하여, 때로는 높은 창작적책임성  
과 뛰어난 창작재능에 대하여, 때로는 순결한 혁명  
적의리와 겸손한 품성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신  
다. 주체86(1997)년 10월 1일에는 석윤기의 작가  
론을 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인민이 기억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유명작가들속  
에도 사상생활에서 탈선하거나 창작활동에서의 과  
실로 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한이들이 적지  
않다.

작가 석윤기의 성장일로에는 그런 일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문학사상을 자양분으로 삼고 장  
군님의 문학령도를 생명선으로 삼을 때 그 어떤 우  
여곡절도 없이 상승발전의 창작성과만을 낳게 된다  
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작가가 바로 석윤기이다.

가을빛 한껏 운치롭게 질어가는 지난해 가을 우  
리는 작가의 영령이 잠들고있는 애국렬사릉을 찾았  
다.

작가의 돌사진이 붙어있는 회백색묘비를 마주하  
니 붉은 비문이 생동했다.

석윤기동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929년 10월 22일생

1989년 4월 28일 서거

작가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이 달아올랐

다.

여월사한 몸에 담찬 기운이 서린 넓은 이마, 풍부한 직감력과 지성이 내비친 사색어린 눈, 단정한 옷차림의 몸에서 풍기는 후더운 인간애의 정과 강철같은 의지력, 활달한 창작적식견과 생활에 대한 응송깊은 박식, 높은 공직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권세 한번 부릴줄 모르던 겸허성이 하나로 조화된 친근한 모습이다.

그가 오늘도 열기편 목소리로 또박또박 토로하는

심중의 소원을 우리모두는 분명 류달리 의미심장하게 듣고있었다.

...

죽어도 버릴수 없는 나의 소원은

만민의 행복

조선의 영예

이 세상 모든 소원의 구심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이여라!

## 나는 이런 사람

윤정길

유쾌한 친구들

오늘도 내 가슴 툭 치며 웃누나

두릅 흠집 지고서 달리는걸 보니

아무래도 청석골 피줄긴것 같다고-

고속도로건설장 여기서야 어디

말은 일감 다하고도 성이 차던가

야간돌격의 불뭉치 들고

떡돌같은 바위돌 엿사 들어메었더니

분명히 장수피를 타고난것 같다나

촌수라면 팔촌쯤은 되고도 남겠다나

어허! 친구들이 모르는 소리

땀들이는 설참에 담배 한대 붙여물고

나 또한 즐거워서 하는 말이지

성씨가 다른건 그렇다손치고도

비슷치도 않은것 어디 한둘만인가

놀라지들 말게 나로 말하면

돌격대 기발 높이 다저가는 로반우에

부흥의 대로를 열어가는 대장부!

옛장사가 힘세단들 내 이름에 비길소냐

피형을 보아도 그렇단 말일세

혈통을 따져봐도 분명 그렇지

백두산밀영에 고향을 두고

만경대혈통을 이어가는 마음

주체의 붉은 피형을 타고난

수령님의 자손, 장군님의 아들!

오늘의 천리마고삐를 쥐고

성강의 봉화로 하늘땅을 달쿠며

정성옥의 달음새로 래일을 마중가는

신념의 강자, 강성대국건설자

바위돌이 무엇이랴

미국도 통채로 돌리메치리

흠집이 무엇이랴

공산주의언덕으로 지구를 지고가리

새 세기의 대들보를 들어올리는

사나이팔쪽에 하늘인들 무거우랴

피줄은 속일수 없는것

할일도 많은 땅 할일도 많은 세대

오늘을 떠맡은 그때문에 그때문에

땀흘려도 구슬땀을 동이채로 쏟고싶은

나는 이런 사람

령장의 손탁아래 용맹키운 우리는

**김정일**시대의 영웅남아 아닌가!

## 기뻐하라, 축복하노라 2000 년대여

정동찬

### 작별의 시각에 서서

지금  
이 시각은  
2000년 0시

가느냐 1900년대여  
오는가 2000년이여

고생 많았던 어머니와  
갓 태어난 아들이 마주선듯  
두해가 손목을 부여잡고 놓지 못하는  
작별의 승엄한 시각

세계의 장래운명을 두고  
온 인류가 잠 못 드는 밤  
가는해의 마지막 이밤  
어떤 이는 명복을 빌어 사원을 찾고  
또 누구는 절망에 빠져 대양의 낭끝에 설 때  
나는 온 식솔 주련이 거느리고  
인민대중 운명의 화신으로 솟아 빛나는  
주체사상탑 기슭에 섰노라

평-  
작별을 알린다  
인민대학습당 시계종소리에 화답하며  
쿵-  
내 심장도 새해의 첫 맥박 새겨안노라

날더러 태양민족의 아들이라고  
누리에 알려주는 종소리  
강반의 저 울림에 가슴 더웁히는 이 시각  
배심든든히 웃고 선  
나를 보라

이 배심  
이 미소를  
목숨같이 지켜내고  
저기 달무리속에 흘러가는 물결처럼  
어머니세월은 가는가  
그 무슨 간곡한 당부를 뒤에 남기며

어디선가 해돋이속에 흘러오는 물결처럼

아들의 세월이 오고있는가  
어머니의 그 당부를 듣고싶어...  
가는 마음은 자꾸만 머물러지고  
오는 마음은 서둘러만 지는데

두 년대의 주고받는 눈빛의 뜨거움 무엇일지  
그 속삭임소리 그 약속의 의미 무엇일지  
나는 알고있노라  
지나간 날과 달들에 굶이친 피의 몸부림  
총검 맞부딪치는 백병전의 마당에서  
내 겪어보았고  
흘러간 년대들의 언덕에 펼쳐지던  
환희와 격동의 거창한 대하속에서  
내 반생을 살아온 사람

이제 맞다들 2000년대의 준엄한 어느날인가  
영생의 삶 빛나게 마무리해야 할  
조선공민의 이름으로  
내 말하고싶노라  
가는 세월의 당부가 무엇인지  
오는 세월의 대답 무엇인지

### 1900 년대의 부락

자  
이제는 헤어지자  
아들 세월아

넌 위해 피흘린 붉은기의 년대기만을  
너의 뿌리와 줄기에 영광의 년륜으로 감아주고  
너의 조약대에 주체의 초석을 깔며  
고이 가련다

기뻐하라 마중하라  
너에게로 누가 가고있는지  
봉피와 좌절에서 오는 우울일랑 거두고  
2000년대의 주인들을 맞거라  
누가 20세기의 설한풍속에서  
래일이라는 널 껴안고 가는지  
축복의 다발 엮어들고  
새 년대의 연도에 나서라

동유럽의 성탑에서  
 붉은기를 떨어뜨린 광풍을 맞받아  
 추켜든 붉은기를 총대우에 띄워올린 조선  
 그 붉은 기폭 사회주의돛으로 펼쳐올린 조선  
 너의 모든것을 다 꾸려안고  
 너의 기슭으로 가고있다

그 요람속같은  
 붉은 돛자락 가만히 들추어보렴  
 그러면 요람속에 웃고있는 사회주의 고운 아기  
 커가는 너의 모습  
 눈물겹게 안아보리

만고풍상의 눈비에 젖은  
 어버이수령님 옷자락속에 안아키워온  
 그 인민  
 그 요람 지켜온 한평생의 마음고생  
 얼마였더냐

황금이불속에 칭칭 휘감긴자들  
 저들의 오늘만을 탕진하고있을 때  
 몇천몇만리 험로역경을 단신으로 헤쳐넘으신  
 조선의 **김정일**장군  
 그 인민의 래일만을 축복해  
 모든것 아껴오셨거니

이 세상  
 제일 뒤떨어진 산업의 지붕아래서  
 겨우나 보습을 버리며  
 20세기를 시작한 나라였건만  
 세기를 주름잡는 천리마에  
 너를 태웠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렬의 고통을 안고 피어린 력사의 령을 넘으며  
 너를 키웠고  
 제국주의 봉쇄와 압살의 포위환속에서  
 굶주림을 깨물며  
 너를 지켜온  
**김일성-김정일**동지의 조국앞에서  
 머리숙이라

오 기뻐하라  
 축복하라  
 20세기 《공산당선언》을 가지고가는 나라에  
 20세기 문예부흥기의 명곡을 가지고가는 나라에  
 20세기 도덕과 법을 가지고가는 나라에  
 영광

영광드리라

간고하고도 처절했던 20세기에  
 위대하신 그분들 계시지 않았다면  
 너에게 넘겨줄  
 그 무엇이 있었더라 말이나  
 가난과 슬픔과 압제의 사슬밖에는

어머니세월은  
 너를 남기고가노라  
 저물며 바래주는 기쁨과 유산의 전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태양조국이  
 너의 아름다운 기슭으로 가고있다

## 2000 년대의 대답

나를 낳은  
 어머니세월이여 부디 안녕히 가시라  
 남겨놓은 그 당부속에  
 넘겨준 그 계주봉속에  
 얼마나 귀중한 진리의 재부 실려있는지  
 감사의 눈물에 젖어 받아안노라

피의 값으로  
 근면한 로동과 무자비한 투쟁의 값으로  
 이 조선이 아끼고아껴온 그 모든것  
 소중히 넘겨받노라

이 머리에 날려준 그대의 붉은기  
 이 손에 쥐여준 그대의 교과서  
 이 어깨에 메워준 그대의 총대  
 이 심장에 심어준 그대의 량심과 의리로  
 새 년대의 건설과 발걸이는 시작되고  
 사회주의조국은 새 청춘기를 맞아  
 새 세기의 처녀지에 주체의 꽃을 피우리

고귀한 이 유산  
 어디서 흘러왔기에  
 이렇듯 정갈하고 숭고한것이나  
 금수산기념궁전 그 성벽아래 감도는  
 운하의 맑은 물빛에서 거슬러왔으리  
 백두산정의 희디흰 만년설과  
 정일봉 귀틀집 그 작은 쪽무이포단에서부터  
 그 깨끗함과 따듯함이 실려와  
 포근히 감싸주고있어  
 그대 안겨준 사회주의  
 불패의 강성대국거인으로 자라  
 새 년대의 큰길을 활보하리니

어머니세월이여  
부디 마음을 놓으시라  
오로지 이 아들 세월의 기쁨을 위해  
온 민족이 힘들게 겪어야 했던  
국토분렬의 아픔을 가시고  
숫아오른 통일삼천리의 나라  
새 세기의 한복판에서 보여드리게 되리

감사하노라  
아버이태양 모시고 온 나라  
가는 년대의 가장 큰 수확을  
새 년대기에 넘겨준 나라여  
그대의 당부와 뜻으로 엮어지는 해와 달을  
오직 그대의 주체년호로만  
새 세기의 나이를 계산하리라

## 상봉의 시각에 서서

평-  
작별의 종소리 멀어져간뒤  
어느덧 저무는 세월도  
년륜의 돌기속에 갇들고  
푸르려오는 새날의 지평선에 들려오는  
새 년대의 자욱소리

이 시각  
인민에게로 가시는  
우리 장군님앞에  
력사의 돌문을 열어드리는  
금수산기념궁전  
2000년대의 솟눈우에 첫자욱 내시는  
그이를 바래드린다

시작에서 끝을 내다보시고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탁월한 령장앞에서  
조국산천은 또 얼마나 변하고변할것이나  
세계는 또 얼마나 가슴벅찬  
전환의 년대를 맞을것이나

아 일을 하신다  
별써 새 년대의 첫일을 하시는  
우리 장군님  
아버이수령님 령전으로부터

새 년대의 수만리 장정을 시작하신다

태양의 축복받은 《정성옥》이들  
새 년대의 주로에서  
그이를 따라서고  
아버이의 생일축복받은 《소금》이들  
작은 주먹 감빨며  
그이 품에 안겨 웃고있거니  
새 년대의 거주지로 당당히 들어서는  
태양의 아들딸들속에  
나도 있노라

만고절세의 영웅 모시고  
인류의 예상 뒤집어엮은 나라  
20세기 초엽의 그늘진 민족  
20세기 말엽의 태양민족으로  
새 년대의 가장 위대한 공민으로 등록되었거니

조선의 정신  
조선의 두뇌  
조선의 시간으로  
새 년대의 전진운동은 시작되었노라

빛이 없이는  
한치도 내디딜수 없는것 생이더라  
한세기의 끝까지 가닿을  
그 령마루의 높이와 목표를 알고  
파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눈을 가지고  
세월의 지름길에  
자주의 인간으로 나섰다면  
그 생은 얼마나 행복한것이나

그 생을 안고  
새 년대에 들어선 인류여  
삼가 인사드리자

가는 년대의 영광도  
오는 년대의 행운도  
다 안겨주시는  
21세기의 태양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여  
해와 달 무궁토록  
부디 건강하시라!

## 백두령장의 고지는 숨신다

문용철

## 1

나는 산을 노래하련다  
 숨쉬는 고지를 노래하련다  
 남으로 동서천리로 아득한 산발들을 거느리고  
 무적의 성새로 솟아 빛나는  
 전선고지 대덕산을 노래하련다

휘익-눈보라 눈보라  
 때아닌 3월의 눈보라  
 백두의 령장  
 우리의 장군님은  
 백두의 눈보라를 안고 이 고지에 오시였다

질은 구름은 적진을 덮어  
 원수들을 눈멀리고  
 해빛은 줄기줄기 고지에 내리어  
 촬영대우에 선  
 우리 병사들의 감격어린 얼굴을 밝게 비쳤다

어이 알라  
 하늘이 부린 조화인지  
 산천이 부린 조화인지  
 다만 우리만 알뿐

장군! 그이가 바로 우리의 하늘임을  
 장군! 그이가 바로 우리의 태양임을  
 장군! 그이가 바로 우리의 백두임을

백두의 우뢰와 번개를 안고  
 원수들의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멸적의 섬광 뿌리시며  
 그이 뒤집칠고 노려보신 저 남쪽하늘  
 그 하늘어귀엔 아직도  
 그날에 그이 치신  
 백두의 번개자욱 남아있나니

그날의 우뢰소리 다시금 듣노라  
 그날에 노호했던  
 백두의 폭풍소리를 다시금 듣노라  
 원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장군님의 호탕한 그 웃음소리를

소박했던 이 고지에  
 백두의 키가 없히고  
 령험이 비끼고  
 강철의 절벽  
 무적의 절벽으로 산은 솟고솟아

장군님 서신 산의 높이는  
 백두의 그 높이

삼각산도 한나산도 밟아래  
 다만 두개의 징검돌인듯-  
 태평양도 렬도도  
 세계의 그 어느 지점 어느 대륙도  
 그이의 빛나는 안광속에  
 다 들어있나니

원수들은 질겁했다  
 또하나의 백두산이 전선중부에 나타났다고  
 그 어느 바위틈, 그 어느 숲속에서  
 날개달린  
 백두령장의 장수들이 달려나올지  
 그 어느 숲방울 그 어느 바위돌이  
 폭탄이 되고 포탄이 되며  
 자기들의 숨통을 꺾지를지

원수들은 질겁했다  
 그이 손에 든 백두의 우뢰가  
 언제 그 언제  
 번개가 되고 불길이 될지  
 불타는 그 서슬에  
 적들은 쓰러지고 죽어지고  
 밀려오던 검은 구름은  
 재도 없이 불타버렸나니

아 꽃피고 약동하는  
 우리의 산과 들을 굽어보시며  
 조용히 웃음지으시는 그이  
 이로써 전선고지에서의 싸움은 끝난것이다  
 우리의 승리가 온것이다  
 우리의 평화가 온것이다

포성없이 시작되어  
 포성없이 끝난  
 조국과 인민을 지킨 이 싸움  
 그날 승리한 전선고지를 내리시는 장군님께  
 인민들 세워드리지 못한  
 개선의 술대문이 되련다

나의 노래!  
 그날에 조국의 하늘가에 터치지 못한  
 축포가 되련다  
 나의 노래!  
 민족의 장군께 드리는 승리의 축배잔이 되련다

나의 노래!

2

여기는 전선  
타래진 철조망  
시커멓게 입벌린 영구화점  
총을 쏘나든 적들이 발치에서 오간다  
어느 총구에서 총알이 튀어나올지  
저도몰래 온몸에 엄습해오는 긴장!

전선이다  
나는 지금 어느 영화의 한장면을  
이야기하고있는것이 아니다  
상상의 허구를 펼쳐보임은 더욱 아니다  
지금 내앞에는  
뭐라고 말하고 지껄이는 적들이 있다

이렇게 직접 보기는 처음  
어쩌면 원썬들도  
사람의 몸가짐과 차림새를 하였느냐  
어떻게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말을 하는거나  
이렇게 원썬들이 눈앞에서 어물대게  
우리 병사들의 손에 쥐여진  
자동보총은 무얼하고있는거나

분분초초 생사를 겨누고 다투는곳  
어찌 목숨뿐이라  
사상과 신념  
붉은것과 검은것이  
바위처럼 옥버리고 의지를 겨루는곳  
금시에 적들이 뿌린 뼈라가  
새뎌처럼 홀날린다  
광증인 악담들이 허공을 어지럽힌다

그자신이  
우리의 사상과 신념으로 붉지 않고서는  
순간도 설수 없는곳  
그자신이 우리의 붉은기처럼  
억세고 튼튼코 키높지 않고서는  
그처럼 거연히 설수 없는곳

웬- 초진장의 전투가 고막을 치는  
준엄한 대격전의 마당에  
그처럼 태연자약히  
웃음짓고 나선  
백두의령장 **김정일**장군

호탕한 웃음  
단호하신 손세  
그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결심하고계시는지  
우린 알수 없어도  
우리의 적들은 벌써 녹아나고있다는것을

우리의 하늘땅 바다엔  
보이지 않는 철의 성벽이 쌓여지고있다는것을  
튼튼한 마음으로 깨달았어라

그이는 승리의 화신!  
우러러뵈옵는 그것만으로도  
승리를 믿는 우리  
그이의 태양같은 모습만 우러르며  
그저 스쳐보았어라  
그이 짙어가시는 작전도의 화살표들을  
그것이 어데로 향하고  
어데로 뻗은것인지

그러나 우리의 적들은 무심치 않았다  
우리 장군님 짙으신 그 두개의 점에  
저들의 운명이 놓여있기에  
몇배로 확대된 화면과 컴퓨터앞에서  
죽음을 판가름받는 최악의 무리처럼  
떠들었다

서울인가?  
아니면 태평양상의 그 어느 지점?  
또 아니면 그너머 어느 대륙인가?  
펜타곤과 도교의 장성들이  
모든 첩보기관들과 전략연구소들이  
우리 장군님의 사소한 손짓과  
눈섭 움직임까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과 분석을 가했다더라

드디어 컴퓨터에 인입된 자료  
파연 어떤 결론이 나올것인가  
10분... 20분...  
적들은 분분초초 시한탄을 안은듯  
드디어 컴퓨터의 출구로 밀려나오는  
타자된 결론

무수한 점선들  
출처가 묘연한 그 두 점  
컴퓨터의 실수도 아니다  
모략의 집합체, 군사두뇌진의 부진탓도 아니다  
어찌 알수 있으랴  
온 지구의 제국주의책략가들이 다 모인들  
세계사회주의의 최고사령관  
우리 장군님의 천재적예지와 지략의 예봉끝을

어데서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를  
숨은 화살이기에  
알수 없는 화살이기에  
적들은 더욱 떨었다  
이제 당장 자기들의 머리에  
어떤 불벼락이 쏟아질지  
떨리는 손으로 십자를 그었다



가련한 무리들아  
 이 나라의 이름없는 시인이  
 그 답을 풀수 있는 공식을 주련다  
 우리 장군님은 자신보다 더 인민을 사랑하신다  
 자신보다 더 이 땅을 사랑하신다  
 만약 어리석은 그 누가  
 그 사랑하는 인민의 머리 한오리 다칠 때  
 사랑하는 이 땅의 풀 한포기 다칠 때  
 그 어리석은자는 곧 붉은 화살의 목표가 되리

-타격은 무자비하다  
 이것은 적들 자신이 알고있는  
 백두의 령장! 우리 장군님의 담대한 특질!  
 굳이 사회주의조선의  
 원쑤가 되겠거든 그 원쑤  
 죽음에 치떨라  
 우리 장군님의 그 불줄기아래서  
 빠져나갈 적은 이 행성우에 없거니

적들의 소굴에선 대아우성  
 기가 죽고 풀이 죽은 적들의 비명  
 -대북로선에서 강경은 자멸  
 일시에 세계의 군사기상도가 달라졌다  
 우리 장군님의 전선시찰로정과  
 그이 펼치셨던 작전도에 따라  
 수천만개의 군사부호들이  
 적들의 작전탁우에 공회전을 그리었다

소리없는 전쟁  
 포성없는 전쟁은 이렇게 치르어졌다  
 정의의 지략전  
 강철의 담력전으로  
 인민을 지키고  
 혁명을 지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신  
 만고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 3

대덕산! 대덕산  
 너는 우리 장군님의 담력과 지략으로  
 전선중부에 솟아오른  
 또 하나의 백두산!  
 하늘에 치당은 그 성스러움이  
 너의 메부리에 빛난다

너의 소슬한 솔바람소리에서도  
 백두령장의 전설이야기 들려온다  
 우거진 숲잎 하나하나를 밟아  
 이 땅의 푸른 물을 먹삼아  
 쓰고쓰고 또 쓴대도  
 못다 쓸 장군님의 이야기

단칼에 원쑤를 치는  
 무적의 신화를 안고  
 원쑤들에게는 죽음을  
 인민에게는 사랑과 평화를  
 베풀고 선언하며  
 이 나라 이 땅을 눈비속에 지켜온  
 영웅의 전초고지

산이 많은 이 나라에  
 절승경개로 이름높고  
 명승고적으로 자랑높은 산 많고많아도  
 오 대덕산!  
 너는 무적필승으로 해발높은  
 백두산장군의 산!

보다 높은 고지와 억센 산발을  
 탐내는 세계의 작전가들이여  
 우리 대덕산의 높이를  
 다만 지리적해발고로만 따지지 말라  
 이 고지우에 없히고없힌  
 우리 병사들의 장군승배의 그 높이는  
 그 무엇으로써도 잴수 없거니

사상도 일당백  
 신념도 일당백  
 들으라 고지우에 메아리치는 신념의 목소리를  
 만탄창된 총구마다 원쑤를 노려  
 당겨지는 수령결사옹위의  
 충직한 격발기소리를

때가 되면 알게 되리  
 이 고지는 다만  
 흙과 바위의 산이 아님을  
 일당백의 구호를 새겨안은 그 가슴속에  
 어떤 불줄기를 품고 솟은  
 멸적의 총폭탄고지인가를

영광이 있으라  
 영예가 있으라  
 너의 봉 너의 중턱  
 이름없는 수풀과 바위에도  
 금별의 훈장이 빛나라  
 수령님을 모시여 일당백을 낳은 고지  
 백두의 령장 장군님을 받들어  
 일당백의 무훈을 떨치라

승리의 보루로 솟은 너의 고지아래서  
 인민은 살림도 밝게 펼친다  
 더 넓은 전야를 밟갈고  
 더 높은 집을 지으며  
 더 밝은 창문을 집집의 벽체에 단다

어찌하면 더 고운꽃을 피울가

창가에 골똥한 소녀의 동심은  
창밖의 비바람 찬바람이 아랑곳없다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장군이  
이 나라 아이들의 밝고넓은 트랙을 지키거니

넘지 못하리  
백두의 슬기와 위용이 없힌  
너의 산악을  
그 어떤 광풍도 넘지 못하리  
너의 거대한 산악에 산산히 부딪쳐 깨여지는  
원썬들의 망상을 보며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은  
새로운 승리의 서사시를 엮거니  
쫓아있으라

## 상식

대덕산  
더 억세게  
더 서슬푸르게  
정의를 지키고  
인민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필승불패의 보루로 보검으로 솟아 빛나라

산은 숨는다  
태양의 고지  
백두령장의 고지  
대덕산은 백두의 폭풍과 우뢰로 숨는다  
온 세상의 높고낮은 산발들을  
날날이 굽어보며  
승리의 성새  
사회주의의 성새로 숨는다 숨는다-

## 8 도와 13 도

우리 나라에서 도가 지방행정단위로 된것은 고려 시기였다.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때 지방 통치체계가 정비강화되면서 995년에 10개의 도가 설치되었다.

1. 폐서도-평안남북도
2. 삭방도-강원도, 함경남도 일부
3. 판내도-경기도, 황해남북도
4. 충원도-충청북도
5. 하남도-충청남도
6. 강남도-전라북도
7. 해양도-전라남도
8. 령남도-경상북도 북부
9. 령동도-경상북도 남부, 경상남도 동부
10. 산남도-경상남도 서부

그후 고려의 지방통치체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10도는 5도량계로 바뀌었다. 5도량계란 5개의 도와 두개의 계를 말한다.

1. 양광충청주도(후에 양광도)-경기도, 충청남북도
2. 경상진주도(후에 경상도)-경상남북도
3. 전라도-전라남북도
4. 삭방도(후에 교주도)-강원도
5. 서해도-황해남북도
6. 동계-강원도 북부, 함경남도 일부
7. 북계-평안남북도

1392년 리조봉건국가가 성립된후 봉건통치체계가 재편성되면서 지방통치체제는 15세기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고착되었다.

1. 경기-경기도
2. 평안도-평안남북도, 자강도
3. 함경도-함경남북도, 량강도
4. 황해도-황해남북도
5. 강원도-강원도
6. 충청도-충청남북도
7. 전라도-전라남북도, 제주도
8. 경상도-경상남북도

경기는 도들과 다른, 말하자면 직할도였는데 7개 도와 경기를 통털어 8도라고 불렀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 전지역을 가리킬 때 흔히 《8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7개 도의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본다면 그것은 해당 도안의 가장 큰 두개의 고을이름의 첫자를 따서 붙인것이다.

- 평안도-평양의 《평》, 안주의 《안》  
함경도-함주의 《함》, 경성의 《경》  
황해도-황주의 《황》, 해주의 《해》  
강원도-강릉의 《강》, 원주의 《원》  
충청도-충주의 《충》, 청주의 《청》  
전라도-전주의 《전》, 라주의 《라》  
경상도-경주의 《경》, 상주의 《상》

8도는 갑오(1894년)개혁후인 1896년에 와서 13도로 바뀌었다. 즉 평안도, 함경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5개 도가 각각 남북도로 갈라지고 경기 역시 도로 됨으로써 13도로 되었다.

## 두번째 기자회견

## 량창조

수는주처럼 예민한 일본의 언론계를 뒤흔들어 놓은 시마다 쇼지교수의 두번째 기자회견은 날이 갈수록 그 여파가 더 상승되었다. 사회학계에서 원로로 명망이 높은 시마다 쇼지의 인생의 새로운 리정표로 새겨진 두번째 기자회견은 언론계는 물론 학계와 사회계에 큰 파문을 던진것으로 하여 기자회견부나 대학교정에서만이 아니라 다방에서까지도 교수의 심각한 체험세계가 물론에 오르군하였다.

X

자동차로 모스크바교외의 국제비행장을 향해 가는 시마다 쇼지교수는 사나운 날씨처럼 심사가 사뭇 평온치 않았다.

도쿄라면 우에노공원의 벚꽃이 한창 망울을 터칠철이다. 하건만련일 강추위가 지속되고있는 대륙의 이 도시는 모진 설한풍이 휘몰아치며 누리는 온통 어수선하고 을씨년스러웠다.

항공역사의 건물이 흘날리는 눈보라속에서 우중충히 안겨올 때 택시를 몰던 운전사가 후사경에 어려있는 시마다를 바라보며 문득 말을 걸었다.

《손님은 우리 나라가 처음이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습니까, 모스크바가 전보다 꽤 달라졌지요?》

이 물음에 로어에 능통한 일본인교수는 차를 타던 때와 생판 달리 얼굴 절반을 가리운 하얀 마스크에 한손을 대고 다른 한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으면서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시늉을 한다.

갑자기 병어리행세를 하였다.

이 돌변한 반응에 부딪치자 운전사는 그만 무안을 당한듯 자라목이 되어 입을 다물어버린다.

시마다 쇼지교수는 이곳 체류기간 로씨야련방과 학원의 셰드리 루잔스끼원사와 상종하였는데 어제 그와 헤어져 귀국을 서둘면서부터 전에없이 과묵하고 괴벽한 사람으로 되어버렸다. 평소의 소탈하고 쾌활한 성미를 잃고 출창 침묵을 지켰으며 한편 누구와도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시마다는 간밤 호텔접대원한테서도 방금 운전사가 한 그런 투의 질문을 받았었다. 그때 역시 지금처럼 무언으로 대하였다.

모두가 울화탄 치밀게 하는 물어보나마나한 소리들을 한다.

변한것은 모스크바만이 아니었다. 광대한 이 나라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근 한세기의 장구한 세월, 레닌의 기치 붉은기가 휘날려온 크레몰리청사의 계양대에 오늘은 먼 옛날 력사밖으로 매장되었던 짜리의 망령을 상징하는 삼색기발이 꽃혀있었다.

시마다교수는 며칠전 맑스-레닌주의연구소를 찾아갔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이 연구소는 정통파유물론자들의 저서를 비롯하여 귀중한 책자들을 수십만권 보존하고있어 일찍부터 국제도서관으로도 유명하였다.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그 장서들을 열람하려고 이곳에 끊임없이 래왕하였다. 지난날 시마다자신도 커다란 기대를 안고 얼마나 많이 걸음을 놓았던 전당이었던가.

그러나 지금 그 전당의 모습도 달라졌다.

찬란한 빛을 뿌리며 크게 새겨져있던 연구소의 금도금판 명판은 사라져버렸고 한편 정문현관의 대리석기둥결에 화려하고 단정한 군복차림의 위병이 엄숙한 기상으로 보초를 서있던 그자리에는 허름한 사민복의 늙수그레한 수위가 위병을 대신하여 서성거리고있었다.

시마다가 보다 큰 충격을 받은것은 연구소앞마당에 마구 쌓여있는 책집짜들을 목격하였을 때였다. 바줄로 엮어매기도 하고 마대, 지함 등에 넣은 그 서적더미우에는 눈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값지고 귀중한 책자들이 너무나도 버림을 당하고있는 광경앞에서 시마다는 목석처럼 굳어지고말았다.

어찌하여 저렇게 마구 방치해두고있는가?

그는 위구심을 덜길 없어 수위에게 다가서 물어보았다.

《여보, 저것들을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요?》

《글쎄요...》

수위는 잠시 먼산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다가 동양인을 외면한채 무거이 중얼거렸다.

《어디로 가겠는지... 보나마나 종이공장에나 가겠지요. 이젠 입자없는 물건이 되었으니...》

(뭬?! 종이공장...)

시마다는 발목이 묶이운 사람인양 한자리에 못박힌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엇그제 모스크바방송이 전하던, 맑스-레닌주의 철학을 대학졸업시험과목에서 빼기로 결정했다고 한 소리가 상기되었다.

참으로 사회전반이 뒤집혀졌다. 사람들의 생활도 레외로 되지 않았다.

시마다는 루잔스끼의 가정에 무겁게 드리워있던 비운을 생각하면 무시로 몸서리쳐지군하였다.

보는것, 듣는것 그 모든것이 놀라움만 자아내었다. 실로 무서운 변화였다.

강력한 사회주의보루가 축성되어있던 이 땅에 감히 이런 사태가 빚어지리라고 어찌 상상인들 할수 있었으랴.

시마다교수는 이 엄청난 변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신의 혼란된 감정을 수습하기 어려웠다.

룩슨이 넘은 오늘까지 오직 하나의 학술세계, 맑스의 리념만을 추구해온 시마다 쇼지였다. 그 학문의 탑이 삽시에 무너져버린듯한 상실과 배반당한 기분에서 헤어나올수 없었다, 한시바삐 이 나라를 벗어나야만 심뇌를 다스나마 덜을수 있을것 같았다. 그리하여 부랴부랴 귀국을 서둘게 되었다. 시마다는 오늘아침 귀로에 오르기앞서 약방에 들러 커다란 마스크를 사서 그것으로 입과 코를 가리웠다. 기실 이 땅의 팽팽한 공기와 처절한 환경탓인지 신열이 좀 없지 않았으나 마스크를 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환자》로 위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수만리 려행로정에서 호기심많은 길손들이 전변이 일어난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동방의 학자를 붙들고 이것저것 시끄럽게 물어볼수 있다. 신문기자들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시마다는 그런 경우에 대처할 방비책으로서 방금 전 운전사에게 취한것처럼 마스크를 방편삼아 모면하려는것이였다.

쏘련의 붕괴, 시마다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할수 없었다. 그로서는 아직은 모든것이 묘연하고 의문투성일따름이였다.

어느덧 비행장에 당도한 시마다는 바래워주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나그네의 신세로 쓸쓸히 승강대를 밟으며 기체안으로 들어갔다. 루잔스끼원사가 배웅하겠다고 따라나서는것을 굳이 사양하고 홀로 떠나왔다. 조용히 소리없이 돌아가고싶었다.

이제까지 이 나라를 자주 래왕하였으나 이번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떠나보기는 처음이였다.

그의 열좌석에는 아랍계의 중년부인이 이미 먼저 자리를 정하고 앉아있었다. 그 녀인은 아름답고 커다란 눈을 빛내며 깍듯이 인사를 차렸으나 시마다는 의연히 말없는 목례로 대한다.

비행기가 경쾌한 동음을 울리며 활주로를 벗어나 대공높이 떠오르자 시마다는 등받이에 실한 몸을 기대고 목념을 하듯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애써 마음의 평온을 돌이켜보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착잡한 상념들이 지긋게 갈라들기만 한다.

그런중에도 많이 뇌리를 스치는것은 루잔스끼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였다.

시마다교수는 루잔스끼원사와 오래전부터 매우 친교가 깊었다. 두 학자의 전공은 유물론철학이였다.

공통적인 학문의 뉴대로 하여 두사람의 관계는 깊었으며 학술상문제들을 서로 허심하게 교환하여

왔다. 그들사이가 이렇게 친밀하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시마다는 일찌기 로씨야에서 맑스주의사상을 선전보급하는데서 큰 역할을 수행한 선행자들에 대하여 언제나 경탄과 존경을 담아 이야기하였으며 그에 대한 논문도 여러번 썼다.

이러한 동방의 선진학자를 루잔스끼는 친근감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다.

두 학자는 레닌이 제창한 동방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문제에 대하여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평소에 시마다는 과거 일본제국이 감행한 아시아 침략행위를 준절히 단죄하여왔으며 《정의로운 아시아》의 탄생과 관련한 저술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왔는데 한편 루잔스끼도 그에 동조하여 적극 도와나섰었다.

이렇듯 학문상의 밀접한 연계와 의사소통이 자연히 둘사이의 교우와 신뢰를 두터이하게 하였던것이다.

시마다교수가 이번에 이 나라를 방문한 목적은 쏘련의 사회주의가 좌절된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였다.

도표 《B》대학 정치경제학강좌의 주임교수인 시마다 쇼지는 학계에서 《친쏘정통학자》로 지목되어있다.

그런 연고로 동유럽나라들에서 발생한 사태를 두오 여러 방면에서 특히 기자, 언론인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시마다는 그들에게 납득될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당황망조하였다. 그자신이 전혀 예상치 않던 일인지라 무엇을 설명할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시마다는 이 풀길 없는 문제가 루잔스끼를 만나면 해명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결심끝에 내친 걸음이었는데 별로 소득도 없이 돌아서게 되었다.

루잔스끼조차도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사변에 대하여 아직은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던것이다.

쏘베트정권시기에 상종했다가 세상이 바뀌어진 이 마당에서의 루잔스끼와의 대면은 첫 시작부터 서먹서먹하고 어설혘다.

전갈오면 의례히 서로 열광적으로 포옹하며 그간의 회포를 유쾌히 나누었을것인데 이번은 그런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차 서글픈 미소로 복잡한 내심을 말없이 전하였을뿐이였다.

루잔스끼의 저오기 거북스러워하던 당시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시마다의 망막은 저절로 흐려지곤하였다.

그날도 독서에 열중하던 루잔스끼는 시마다의 돌

연한 출현에 몹시 당황한듯 떨떠름한 기색을 지으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선생이 어인 일이요?! 기별없이 불쑥 나타나다니...》

루잔스끼는 전에 없는 거동으로 두서없이 말을 번지며 부산을 피웠다.

시마다는 그가 권하는 의자에 말없이 앉았다. 무심코 시선이 탁상우의 책자로 쏠렸다. 첫눈에 낮이 익어보여 유심히 살피게 되었다. 아니나다를까 그것은 최근에 일본의 한 출판사가 발행한 신간도서였다. 조선이 낳은 또 한분의 위인 **김정일**령도자의 위대성을 서술한 도서였다.

얼마전에 시마다는 필자 혼다 강이찌에게서 그 책을 기증받았다. 혼다는 시마다가 신뢰하는 제자들중의 한사람이었다.

루잔스끼 또한 필자로부터 그것을 받았는지 모른다. 이 원사와 혼다간에도 이미 련계가 있는 사이였던 것이다.

루잔스끼는 서먹서먹한 해후의 분위기를 가시려는듯 그 책을 들어 시마다에게 보이며 맑은 어조로 말하였다.

《선생은 물론 읽었으리라 봅니다. 혼다교수가 대단히 훌륭한 저술을 하였군요. 그 교수에게 저의 인사를 꼭 전해주시시오.》

시마다는 기꺼이 응수하며 그의 감동에 말려드는 자신을 느꼈다. 루잔스끼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그도 혼다의 그 저서를 매우 값높이 사고있었던 것이다.

루잔스끼는 음성을 바꾸며 뇌였다.

《우리도 진작부터 그 **김정일**령도자의 세계에 접했더라면... 우리 나라의 비극은 바로 동방조선에서 창시된 새 사상의 진수를 똑똑히 인식하지 못한데서 생겼습니다.

나는 근래에 와서야 그것을 통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잔스끼는 의미심장하게 외우고나서 서늘한 빛이 어린 얼굴을 들어 창밖을 바라본다.

바깥은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심한 회오와 자책에 싸여있는 그의 침중한 모습에 접한 순간 시마다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한생을 맑스-레닌주의사상만을 인류의 진보와 변혁의 위력한 수단으로 치부해온 루잔스끼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줄은 몰랐다. 그것이 진정이라면 이 원사도 혼다 강이찌처럼 자신이 스스로 택한 학문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새 사조의 파도에 휘말려들고있단 말인가?

시마다는 제자 혼다와의 관계에서 체험했던 감정을 이 시각 똑같이 느꼈다.

혼다교수는 주체철학에 접하자 그에 공명하여 유

물론의 제한성을 론단하면서 일찌기 학생시절부터 따르던 맑스의 세계에서 멀어져갔었다.

평소에 유럽중심의 오랜 타성과 지나친 자존심으로 하여 자기가 일단 정하고 추종하게 된 학문의 어떤 주의주장이나 명론학설이라 하여도 외면하여온 시마다였다. 이렇듯 완고하고 보수적인 학구적태도로 하여 그는 혼다처럼 학문의 전환을 쉽사리 단행할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루잔스끼까지도 한생을 추구해온 리념에 대하여 심한 회의감에 사로잡혀있는것을 알게 되자 그는 생각이 더더욱 복잡해졌다.

시마다의 어설픈 마음을 한층 자극한것은 루잔스끼의 다음과 같은 실토였다.

《쏘련이 붕괴된후 우리가 당하고있는 가장 큰 불행은 사상적불안정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습니다. 10월혁명이후 쏘련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사상적기둥으로 삼고 살아왔지만 자금 사람들이 관심하는것은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흐릿한 빛으로 타는 난로불의 음영을 받아 백발의 큰머리가 갈색으로 보이는 루잔스끼의 음성이 침통하게 울렸다.

모든것이 공허와 상실만을 안겨주는것이어서 시마다는 아무 응대도 없이 묵묵히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물건, 그렇다. 유물사관은 물질적부의 생산방식이 사회발전의 결정적요인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지금도 시마다자신은 그의 보편적타당성을 인정하는 립장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확립되어있었다고 하던 동유럽사회주의가 일지에 허물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인가?

그는 생각할수록 의혹이 한층 커졌다.

두 학자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시마다는 실내에 서려있는 중압감에 못이겨 마침내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그래 당신은 장차 사회주의의 존재, 그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 생각합니까?》

그 물음앞에서 루잔스끼는 눈살을 찌푸리며 망설이였다. 공간을 묵묵히 주시하는 원사의 희멀쭉한 얼굴이 차츰 이지러져갔다.

평소에 심오한 학식과 명석한 판단으로 어떤 문제이건 논리정연하게 평하여온 루잔스끼였다.

사람들은 그 원사를 일러 지성의 화신이라 하였다. 그런 그가 궁색한 표정으로 아무 소리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있는것을 보자 시마다는 가슴이 답답해나 공연히 의자를 빼격거리며 안절부절 못하였다.

격변하는 오늘의 세계정치동향에서 사람들이 심

히 우려하며 논의하고있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전도문제였다. 그런데 쏘베트국가건설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그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온 루잔스끼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있는것 같았다. 뿐만아니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사태의 동기나 원인에 대하여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있다.

루잔스끼는 한동안 궁싯거리다가 무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갑자르듯 속삭였다.

《부끄럽지만... 지금은 그에 대해 확실성있게 말하기가... 앞으로 우리 서로 연구한 토대우에서 논하여봅시다.》

원사는 긴 허리를 굽혀 탁상우에서 한 책자를 들더니 그것을 시마다에게 넘겨주며 저으기 또박또박 울리는 음성으로 말을 바꾸었다.

《이 책을 드립니다. 발표되지 달포밖에 안됩니다. 꼭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알고저 하는 문제의 대답을 얻을수 있을겁니다. 매우 귀중한 논문입니다.》

나는 그 저작을 읽고 실로 많은것을 배웠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래일이라도 당장 평양에 가야 하겠다는 충동이 불같이 일었습니다.》

루잔스끼의 흥분어린 소리를 들으며 시마다는 반아친 로문판도서의 표제를 살펴보았다.

**김정일**평도자님의 로작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이었다.

울정월에 세상에 발표된 로작이었다. 그것이 나온지 얼마 안되는터여서 시마다로서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이윽로록 그 도서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던 시마다는 두눈을 빛내어 문득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루잔스끼는 그제야 미소를 짓고 시마다의 앞으로 다가서며 그의 손목을 끌었다.

《자, 이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생이 온것을 알고 안해가 기다립니다.》

지난날에도 이런 환대를 드문히 받아온 시마다였다. 그 사심없고 따뜻한 정에 못이겨 루잔스끼의 가정을 여러차례 방문하였었다. 그러는 과정에 자연히 그의 가족들과도 가까이 사귀게 되었다.

이번에도 시마다는 그의 호의를 물리칠수 없어 루잔스끼의 뒤를 따라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루잔스끼가 승용차를 몰았다.

시마다는 그의 옆좌석에 앉아 차창을 스치며 흘러가는 밤거리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어떤 감회가 되살아나 고개를 돌렸다.

《이젠 글라프브군이 대학을 나와 어엿한 사회인으로 되었겠지요?》

루잔스끼의 외아들에 대해 물어보는 소리였다. 류다른 정으로 맺어진 그 청년의 소식이 궁금했던 것이다.

그런데 루잔스끼는 입을 꼭 다물고 차를 몰뿐 웬 일인지 아무 대꾸도 안한다.

차창으로 비껴드는 가로등불빛에 어린 루잔스끼의 얼굴이 갑자기 침침하게 굳어져있었다.

《?...》

시마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자동차는 성난듯 속력을 높이며 달렸다.

루잔스끼의 집에 당도한 시마다는 원사의 안해의 마중을 받았다.

부인은 예전이나 다름없이 친절히 해주었다. 그러나 시마다는 그간 부인의 모습이 저으기 이치러져있는것을 언뜻 감촉하고 사뭇 놀랐다.

언제나 밝고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던 녀인이었는데 그런 빛이 싹 가셔져있었다. 몹시 지치고 암울해보였다.

그의 안해를 받으며 응접실로 들어서는 시마다의 감정은 야릇했다.

원사의 부부가 잠시 자리를 뜬사이 그는 홀로 안락의자에 앉아 담배를 붙여물고 낮익은 실내를 돌아보았다.

모든것이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다. 유별한 감회를 불러일으키는 피아노도 그대로 놓여있었다.

여기에 초대될 때마다 부인은 이 일본손님을 즐겁게 하려고 기꺼이 피아노를 타주곤했었다. 그런 날이면 자기 아버지를 닮아 외모가 준수하고 락천적인 성격의 대학생 글라프브가 어머니의 피아노소리에 맞추어 정서질은 가요들을 불러주었다.

그 청년이 어찌나 풍부한 감정으로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량만을 노래하는지 시마다는 매번 커다란 감동을 받아안곤하였었다.

그렇듯 원사의 가정은 언제 와보아도 행복한 공기로 충만되어 있었다.

이윽고 부인이 응접실로 들어왔다. 그는 차잔을 탁자우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이고장의 울겨울이 유난스럽지요?》

《글쎄말입니다...》

시들한 그 물음에 시마다는 두리몽실 웅대하며 부인을 다시한번 살폈다. 역시 어두운 기색이었다. 전에 온몸에 건강미가 넘치던 녀인이 판사람처럼 변하였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몰라보게 모습이 초췌해졌다.

아까 차안에서 루잔스끼에게서 느꼈던 감정이 문득 되살아났다.

시마다는 어떤 충동에 다물리우며 불쑥 입을 열었다.

글라코브군이 건강합니까?)  
순간 부인은 책 돌아서더니 말없이 굳어졌다.  
잠시후 그는 오열하듯 한마디 남겨놓고 허둥거리며 방에서 나갔다.

《그에는 이 세... 세상에 없어요.》

《?!...》

시마다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것이 종잡을수 없었다. 그 청년이 세상에 없다니...

치열한 정치공방전의 류혈참극이 벌어졌던 지난해의 10월사변시 글라코브는 자본주의복귀에 반기를 들고나섰다가 사이비 《민주주의자》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고 한다.

그날 호텔로 돌아온 시마다는 밤새 악몽속을 헤매다가 아침을 맞이하였다.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들려주던 루잔스끼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시마다의 귀전에서 내내 떠나지 않았다.

《승객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십분후면 비행기는 도표 하네다비행장에 착륙하게 됩니다...》

안내원이 전하는 소리에 문득 삭막한 상념에서 깨어난 시마다는 눈을 뜨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저절로 긴장해졌다. 이제 비행장에서 겪게 될 일이 은근히 마음에 거슬렸던것이다.

벗어놓았던 마스크로 다시 입과 코를 가리웠다.

아니나다를가 비행기에서 내려 출입통과구를 나온 시마다 쇼지교수는 기다렸던듯 일시에 접어드는 여러명의 기자들에게 에워싸였다. 비발치듯 하는 질문의 소나기속에서 사진기의 불광이 편뜰편뜰 빛을 뿜었다.

시마다는 침착하게 행동하였다. 이미 뜻한바와같이 그는 한손으로 마스크를 꼭 누르고 가방든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으며 한마디 대답도 없이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스크바를 떠나기 앞서 집에 전화를 한터이라 누군가 마중나와있을것 같았다.

승용차결에 서있는 안해의 모습이 언뜻 눈에 띄었다.

시마다는 불쑥 몸을 솟구었다. 기자들의 포위진을 간신히 뚫고 황망히 달려가 재빨리 차문을 열어 어두러지듯 승용차안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기자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을 뒤에 남기고 시마다가 탄 자동차는 도망치듯 비행장에서 급급히 사라져갔다.

시마다 쇼지는 집안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마스크를 벗었다.

쓰거운 땀소가 저절로 피어났다.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안해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여행을 떠난지 열흘도 안되는데 얼굴이 퍼그나 수척해지고 컴컴하게 변하여 돌아온 남편이었다.

《아니?! 어디 편치 않으세요?》

안해의 근심어린 물음에 시마다는 얼버무렸다.

《별로...》

《헌데 왜 그리 안색이 나빠요?》

《좀 피로해서 그러겠지.》

시마다는 심드렁히 중얼거리고나서 안해를 돌아보며 당부하였다.

《여보, 내 당분간 로독을 풀어야 하겠으니 어떤 방문객도 들여보내지 마오. 전화가 와도 그렇고...》

그날부터 시마다는 자기 방에 들어박혀 두문불출하였다.

기실 몸도 마음도 지칠대로 지쳤다. 그러나 심신의 피로보다 심히 저락된 기분을 돌려세울수 없는 피로움이 더 컸다. 그것은 수십년세월 오직 한길만을 추구해온 그 학문의 길위에 장벽이 가로놓여 별안간 앞이 짙 막혀버린 절망에서 오는 좌절감이였다. 그는 사색할 기력마저 잃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몽롱한 의식속에서 이런 허탈상태가 며칠 지속되었다.

어느날 아침이였다. 어렴풋이 잠들었던 시마다는 악몽속에서 헤매다가 《앗!》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등어리가 축축히 젖어있었다.

(허, 꿈도 참...)

암흑의 나락에서 광명을 찾아 허우적거리던 시마다는 어디선가 아스라하니 들려오는 소리에 끌리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나무등걸에 걸쳐여 그만 폭쪼꾸라졌다. 그 찰나에 누군가 그를 덥석 잡아일으키며 부르짖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오! 앞에 더 험한 함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어서 돌아서시오. 나와 함께 갑시다!》

분명 루잔스끼의 음성같았다. 시마다는 번쩍 머리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헌데 사람의 그림자조차 눈에 띄우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였다. 그는 무작정 큰소리로 루잔스끼를 찾았다. 그러나 아무 화답도 없었다. 첩첩한 어둠의 장막을 흔들며 공허한 메아리만 그의 뒤통수를 후려친다. 그 강한 타격에 못이겨 아우성치며 몸부림쳤다....

시마다는 무거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허거프게 속으로 웃다가 잠시후 침상을 벗어나 방에서 나왔다. 생각할수록 울적하기만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후 잠자리가 하루도 편안치 않았다.

그렇수밖에 없었다. 심뇌의 속박으로 하여 신경이 어지간히 쇠약해져있었던것이다.

시마다는 잠시 복도에 멍청히 서있다가 서재로 걸어갔다. 오래만에 책상앞으로 다가선 그는 무드

기 쌓여있는 원고더미에 시선을 주었다. 그것은 시마다가 두해째나 다투어온것으로서 자본주의하에서 작용하는 잉여가치법칙을 론한 미완성저술원고였다. 그로서는 야심을 가지고 정력적으로 집필하여온것이였으나 그것이 이제는 아무 가치도 없는 한갓 휴지장으로 되어버린듯한 허망한 생각이 들자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락의 함정에서 허우적이며 몸부림치던 악몽이 되살아났다.

시마다는 허둥거리며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내던지고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았다.

한동안이 지났다. 번민에 시달리던 시마다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려고 모지름쓰며 탁상에 손을 뻗쳐 담배갑을 집어들었다.

그는 담배를 붙여물고 한모금 빨고나서 길게 내뿜었다. 다소 기분이 진정되는듯싶자 탁상우에 놓여있는 신문에 저절로 손이 갔다.

시마다는 그새 며칠 보지 않던 신문을 펼쳐들고 큰 활자를 얼핏얼핏 더듬어나갔다.

한순간 그의 눈길은 한 기사에 못박히였다.

- 《친쏘정통학자》 시마다 쇼지교수 로씨야방문에서 독감을 선사받았는지 기자들의 질문에 합구무언으로 응대-라는 짤막한 글과 함께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에워싸인 기자들을 향해 가방든 손을 내젓는 사진이 실려있었다.

시마다는 울화가 치밀어올랐다. 기자들의 물음을 피해 도망치듯하던 그날의 가련한 자기 물결이 떠오르자 그는 쥐고있던 신문을 후려치듯 탁상에 내던지며 소파에서 움썹 일어났다.

며칠째 피어오르는 심사에 못이겨 시마다는 서재안을 두박두박 거닐었다. 한동안 오락가락하던 그는 무심코 서가 옷당반에 눈이 미치였다. 러행가방이 놓여있었다.

이때였다. 류잔스끼의 목소리가 불현듯 귀청을 울렸다.

《이 저작을 보면 당신이 알고저 하는 문제의 해답을 찾을수 있을겁니다.》

시마다는 얼른 서가로 다가가 가방을 내려 그 안에서 루잔스끼에게서 받은, 아직 보지 못한채로 있는 책자를 찾아내었다.

책상을 마주하고앉은 그는 새 도서를 펼칠 때마다 생기는 흥분을 느끼며 그 저서를 읽기 시작하였다.

밤은 삼경이였다. 온 집안이 고요했다. 서재의 탁상등만 밝게 비쳐있을뿐 불빛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었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시마다교수는 독서에 열중하던 나머지 창문에 희뽁한 새벽빛이 비껴있는것도 모른다.

**김정일**령도자의 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무시로 가벼운 탄성을 지르며 탐독하는 교수의 심장은 흥분을 초월하여 고동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예리하고 심오한 과학적통찰력과 분석으로 명료하게 론증하고계신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주체의 형성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의식과 능력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발전이란 있을수 없고 제국주의의 공격에 맞서 싸워이길수 없다.

사회주의를 발전시킬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사회주의의 자주적주체형성을 소홀히 한 체제, 이를테면 사회주의의 외곡체가 좌절, 붕괴된것이다.

시마다교수는 로작의 신랄한 논거와 사리정연한 자자구구에서 쏘련식사회주의가 허물어진 원인을 비로소 터득하고 깨닫게 되었다.

(대단한 정치대가이시다! 출중한 철학가이시다!)

저서의 마지막장을 덮으며 교수는 걸출한 조선의 령도자에 대한 크나큰 존경과 감동에 휩싸여 부르짖었다.

시마다는 책상머리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경지를 발견한 회열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동유럽의 이번 사태가 물질중심의 선행리론에 매달린 결과로 하여 발생하게 되었다는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전에 언젠가 혼다 김이찌가 하던 말이 문득 상기되었다.

《맑스주의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되는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주체적요인을 충분히 평가하고 규정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마다는 지금에 와서야 혼다의 그 논리의 뜻을 알수 있을것 같았다. 그것이 바로 선행사조의 제한성이였다.

시마다는 또다시 서재안을 오락가락하였다. 이 밤따라 새삼스럽게 자신의 학구적태도를 심각히 돌이켜보게 되었다.

교수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학문과 지성은 인류의 전진운동과 사회발전에 얼마나 밀접히 결부되고 공헌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것을 이야기해왔다. 현대 그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가 체득한 학설만을 유일한 진리로 인정하면서 시대와 력사의 흐름을 똑똑히 투시하지 못하고 새 사조를 외면하여왔다. 과연 그것이 학자가 지녀야 할 옳은 자세였던가. 학문에 대한 유아독존적인 편협성과 지나친 자존심, 그것은 우물박에 망망대해가 있는것도 모르고 자기 세상만이 세상이라 하는 《우물안의 개구리》와 다를바 무엇이랴, 시마다는



스스로 자신을 타매하였다. 그리고 혼다와 루잔스끼에 대하여 한때나마 웅졸한 생각을 품었던 일을 질책하며 수치와 모멸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허나 새로운 경지를 발견한 그 감정이 압도적이어서 그는 얼마후 자신을 가다듬으며 서가로 다가가 책을 한권 뽑아내어 또다시 독서에 달라붙었다. 그 도서는 저자인 혼다 김이찌로부터 얼마전에 기증해온 **김정일**령도자에 대하여 서술한 책이었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존재로, 그의 가치와 존엄을 만방에 태양의 빛으로 빛내여주신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철학을 인간중심의 위대한 학설로 정식화하시고 그 사상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 나가시는 **김정일**령도자에 대하여 저자는 무게있는 필치로 여러 각도에서 서술하고있었다.

**김정일**령도자의 출중하고 고매한 인간상과 빛나는 예지, 만사에 정통한 풍부한 식견이 문맥마다에 력력히 어려있는 매우 값높은 도서였다.

얼마나 귀중하고 뜻있는 일을 하였는가!

시마다교수는 필자 혼다 김이찌의 로고에 다시금 새로이 감동하며 커다란 경의를 금할수 없었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어느덧 새날의 광명이 서재를 밝게 비쳐주고있었다.

그는 날이 새고 어두워지는것도 모르고 종일 독서에 파묻혔다.

다음날 한낮이었다. 시마다교수는 서재를 떠나 바깥으로 나섰다. 봄빛이 짙었다. 한주일만에 접하는 자연의 훈향을 가슴깊이 들이키며 그는 활기있게 걸어갔다. 전에 없이 몸도 마음도 가벼웠다. 그는 지금 제자 혼다 김이찌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대학의 복도에 들어선 시마다는 마침 강의를 끝내고 교실에서 나오는 혼다와 만났다.

혼다는 스승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도수높은 안경을 빛내며 몹시 반가와한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은 선생택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헌데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셨으니...》

여행에서 돌아온 시마다의 소식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게 된 혼다는 이미부터 스승을 만나고싶었다. 그리하여 그의 집으로 몇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매번 지방에 출장중이라는것으로 오늘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있었던것이었다.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을 좀 낼수 없겠소?》

《그럼 저의 방으로 가십시오.》

혼다는 선뜻 받아들이며 스승을 자기의 교수실로 안내하였다.

두 학자는 응접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시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혼다를 주시했다.

《언제 또 평양에 가겠소?》

《네?! 조선에 말입니까?...》

스승의 급작스러운 물음에 혼다는 어리둥절한 기

색으로 되물었다.

시마다는 간절한 어조로 이었다.

《부탁이 있어 그러오. 당신이 평양을 방문할 때나도 함께 갔으면 해서... 진정으로 하는 소리요! 조선에 가보고싶소!》

《아, 그렇습니까!》

스승의 돌발적인 청에 혼다는 당황해하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열렬한 호소여서 대뜸 큰소리로 응대해나섰다.

《알았습니다. 같이 가도록 합시다! 래달 초순에 떠날 계획입니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철학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80돐행사에 초청을 받고있는 혼다였던것이다. 그는 벌써 조선방문을 여러차례 한 몸이었다.

시마다는 달아오른 얼굴로 팔을 뻗쳐 혼다의 손을 뜨겁게 꼭 그러잡았다.

《정녕 고맙소! 내 희망을 기꺼이 받아주어 이룬데 없이 기쁘오...》

두 교수는 서로 손을 잡은채 오래도록 놓지 못하고있었다.

×

시마다 쇼지교수는 혼다의 안내를 받으며 평양의 곳곳을 돌아보고있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4월, 조선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거리의 이르는곳마다에 붉고 푸르고 노란 갖가지 꽃들이 청청하고 화려한 제 나름의 모양을 자랑하며 활짝 피어있다.

현대적인 고층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선 수도 평양은 《공원속의 도시》라고 불리우리만큼 록지면적이 많고 자연이 잘 보호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관철됨으로써만이 자연자체도 존재가치가 부여되고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무할수 있게 된다는것을 느끼게 한다.

일본에서 자연이 파괴되는것은 독점기업의 탐욕스러운 리윤추구가 가져다준 결과이며 리윤을 위해서는 사람도 자연도 마구 희생시키는 자본의 생리가 낳은것이다. 사람이 자연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만큼 자연을 애호하는것은 인간의 생활상요구이다.

허나 일본에서는 자연도 돈벌이를 위한데 복종되고있다.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미끼로 자연을 팔아먹는 관광자본에 의하여 갈수록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황폐화되어가는 자기 나라 현실을 생각하며 시마다는 새삼스레 가슴아픔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에서는 가물이 계속되어 물을 아껴야 할 형편에서도 붉은 넥타이를 맨 어린이들이 바깥으로 물을 길어다가 가로수와 꽃밭에 물을 주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수 있었다. 참으로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 나라의 모든것에 사람들의 정성이 깃들어있다는 인상을 시마다는 강하게 받았다. 그의 시야에 비친 모든것이 경탄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수 없는 실로 경이적인 현상들이었다.

조선을 일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라고 하였다. 시마다는 그 부름의 진가를 이제는 석연히 느낄수 있었다.

모든 정책이 사람을 위해 수립되고 베풀어져있는 나라였다. 인간을 가장 귀중히 아끼고 진보에로 고무추동하는 세상이었다.

정녕 이 며칠어간은 시마다가 일생에서 처음으로 체현한 크나큰 감격의 나날이었다.

그런 어느날이었다. 대동강물위에 명멸하는 불빛이 찬연히 비껴있는 저녁, 시마다는 정향꽃향기가 함빡 풍겨오는 숙소에서 루잔스끼와 상봉하였다.

우연한 해후였으나 시마다자신은 이 나라에 도착한 날부터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은근히 바랐던 것이었다. 조선에 가보고싶다고 얼마나 절절히 외우던 루잔스끼였던가.

전에 모스크바에서의 어색했던 대면과는 달리 두 학자는 만나는 순간 서로 팔을 크게 벌려 뜨겁게 포옹하였다.

그때 루잔스끼는 곁으로 급히 다가오는 혼다 킁이를 보고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아, 혼다선생, 이거 몇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훌륭한 저술을 축하합니다! 보내준 도서를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광적으로 손을 잡아흔들며 연방 찬탄하는 루잔스끼를 향해 혼다는 도수높은 안경을 빗내며 겸허하게 받는다.

《무슨 그런 말씀을... 아직은 부족점이 많은 책입니다. 앞으로 좀더 깊이 터득하여 보충완성하겠습니다.》

세 학자는 해후의 기쁨과 안부를 서로 담담히 나누며 한동안 떠들썩하다가 차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밝고 아늑한 실내에는 장엄하면서도 서정이 짙은 음악이 흐르고있었다.

그들은 차탁을 앞에 하고 빙 둘러앉았다.

우아한 민족옷차림을 한 녀성접대원이 차잔을 들고와 학자들앞에 하나하나 놓고나서 조용히 물러났다.

세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그간 이 나라에서 보고 듣고 느낀 소감들을 교환하였다.

《당신들도 보았겠지만 나는 평양거리를 산책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대할때마다 실로 생각이 깊어지곤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것을 시사해주는 글밭입니까! 이는 오직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것으로서 그것이 곧 <주체>를 의미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마다가 묻는듯한 시선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하는 소리였다. 그도 이제는 어지간히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인민의 복지사회,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사회를 일떠세우는 주체사상의 위력에 끌리어 새로이 자기 신조를 정립해나가고있었던것이다.

그간 스승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의 정신적변화를 읽은 혼다였다. 하기에 그는 방금 시마다가 한 말의 폭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었다.

혼다는 서슴없이 그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저도 그 구호에 심원한 뜻이 새겨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도 사회도 사람을 위해 복무하여야 한다는 사상, 이를테면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정치, 바로 이러한 인간애호시책이 함축된 언어속에 웅건한 무게로 울리고있는것이 아닙니까...》

루잔스끼는 두사람의 대화에 잠시 침묵으로 지켜있다가 문득 큰 머리를 들더니 나직한 어조로 입을 떼기 시작하였다.

《이미 김정일령도자께서 분석평가하신것처럼 소련식사회주의의 붕괴, 이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규정하지 못하고 홀시한 정치로 하여 생겼습니다. 사상도 리론도 인민을 위해 필요한것일진대 이 지극히 당연한 리치를 외면한 결과가 종당에 그런 파국적사태를 빚어놓았던것입니다.》

사람위주로 전개한 사상처럼 현실적가치가 있고 위력한 사상이 또 어데 있습니까.

나는 주체철학에 접해서야 그것을 한층 온몸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러라도 자신을 단단히 가다듬고...》

루잔스끼는 갑자기 목마름을 느낀듯 말을 중도에서 끊고 성급히 커피잔을 들더니 입으로 가져갔다. 순간 그의 희멀쭉한 얼굴에는 결연한 기색이 불길하게 어리었다.

맑고 광만적인 조선민요의 선율이 간단없이 실내를 울리고있었으나 세 학자의 좌중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 시각 시마다교수의 심사는 류달랐다.

그는 루잔스끼의 마음이 헤아려졌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주의는 사회주의가 완전히 붕괴된것처럼 떠들고있다. 격변하는 정세하에서 사회주의의 운명과 전도를 두고 의혹과 우려속에 번민하는것이 현세계의 량심과 지성이 아닌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마다자신만이 아닌 루잔스끼도 그랬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고있는 이 나라의 약동과 활력에 넘쳐있는 모습은 시마다로 하여금 울렁이는 심장으로 자주의

새 력사가 펼쳐질 미래의 세계를 그려보게 하였던 것이다. 그의 사색의 새 세계를 현실로 펼쳐준것은 조선인민군창건 60돛기념 열병식장이였다.

이날 초대석에는 시마다 쇼지교수가 혼다와 루잔스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다.

시마다자신은 **김정일**령도자의 로작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절출한 사상리론대가에 대한 흠모의 정이 부풀어오르기만 하였었다. 그 위인의 모습을 먼곳에서나마 한번 뵈옵고싶은 간절한 소망이 벌써부터 그의 마음 깊은곳에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있던 광장을 뒤흔들며 만세의 환호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함성에 시마다는 부지중 눈이 번쩍 크게 띄면서 그의 온 넋은 어느새 주석단상으로 가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나오시였다.

이어 한 장령이 열병부대의 중심에서 최고사령관 동지를 향하여 경건한 자세로 사열보고를 하였다.

그에 대답하며 울린 그 순간의 위대한 령도자의 음성은 시마다교수의 먼 후날, 아니 한생의 마지막 고비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심혼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쟁쟁히 청각을 울리며 떠나지 않았었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고 열병부대들에 축하를 보내시는, 온 세계가 우러르는 **김정일**원수님의 퇴성도 누르는 승엄하고 청청한 젊음에 넘치신 음성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격동을 불러 일으키며 울렸다.

이때 시마다의 두손은 옆의 혼다와 루잔스끼의 손을 으스러지게 꼭 그려쥐고있었다. 허나 창졸간에 받아안은 충격이여서 그들 세사람은 누가 누구의 손을 먼저 잡게 되었는지 아무도 그것을 의식할 경황도없이 모두 온 정신이 주석단상에 쏠려있었다.

끓어넘치는 환희와 격동에 휩싸인 온 열병식광장은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님의 축하말씀에 화답하는 《**김일성**》, 《**김정일**》, 《**일심단결**》의 우렁찬 함성으로 천지를 진감하였던것이다.

최고사령관과 전사간에 오가는 그 목소리에서 시마다는 천군만마를 통솔하시는 강철의 령장의 비범한 기상과 무적무비의 담력과 의지를 가슴벅차게 느꼈다.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주석단앞을 지나가는 각 군종부대, 기계화부대, 창창한 푸른 하늘을 날르는 공군의 위용...

시마다는 조선인민군의 강대한 힘이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군술에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새로이 느끼며 온 시선을 모아 주석단을 우러렸다.

검소하고 인자하신 모습이였다. 예지와 담력이 불꽃처럼 어려있는 안광으로 친애하는 **김정일**원수께서는 환호하는 인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흔들며 따듯이 답례를 보내고계셨다.

(저 위대한분이 조선의 힘, 자주성의 상징, 사회주의의 수호신이시다!)

뜨거운 안개에 서린 두눈을 습벽이며 시마다교수는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웨치고있었다....

시마다 쇼지교수는 평양에서 셰드리 루잔스끼원사와 헤어져 도쿄로 돌아왔다. 혼다 경이씨는 용무가 남아있어 동행하지 못하였다.

하네다비행장에 당도한 시마다는 례외없이 여러 기자들의 포위진에 말려들었다. 그러나 전에 일부러 마스크로 입을 가리며 도망치듯하던 때와는 달리 그는 뼈젓이 나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당당히 대답하였다.

-격변하는 정세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을 가보니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미국은 사회주의가 마지막운명에 처했다고 환성을 울리지만 조선의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고있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물질중심의 선행리론에 교조적으로 매달리다보니 사회주의의 길을 중도에서 잃고 그 위업을 좌절당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결과 5대륙을 매혹시키는 사회도 건설할수 있었고 그 어떤 반공공세도 물리칠수 있는 혁명의 강력한 주체도 마련할수 있었다.

조선에 가보니 사회주의승리의 길이 환히 내다보였다.-

기자들속에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시마다 쇼지교수는 달아오르는 눈시울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의연히 그들의 물음에 일일이 침착하게 대답해나갔다.

주위가 열기띤 감탄의 소리로 갑자기 웅성거렸다.

기자들의 감동과 흥분에 싸인 분위기속에서 시마다교수는 불깃한 얼굴을 들어 머나먼 대공을 우러렸다.

창창하게 열려있는 조선의 하늘이 유난히 광채를 발산하며 온 누리에 눈부신 빛발을 뿌리고있었다.

## 새 봄

최용호

모든것이 눈속에 잠겨버렸다.

북천기슭을 따라내려가며 자리잡은 논밭들에도 눈, 산기슭의 아담한 살림집지붕들우에도 눈, 산굽이를 따라 휘우듬히 돌아간 길우에도 눈, 사뭇치며 흐르던 북천에도 두터운 얼음이 덮이고 그우에 한 뿔이나 되게 눈이 덧쌓였다. 산밭에 울창하게 들어선 소나무의 푸른 가지들우에도 흰눈이 무겁게 올라앉았다. 소대가리도 얼어터진다는 북방의 강추위에 줄아든듯한 겨울해는 세상만물을 덮어버린 눈바다에 기가 질렸는지 저쪽 서편 하늘가에서 맥없이 가냘픈 빛을 뿌린다.

저녁때가 되어오면서 눈보라가 터졌다.

우-우- 노한듯 무섭게 소리지르며 골안을 이리저리 마구 휩쓰는 눈보라, 마치 이 세상 모든것을 단숨에 날려보낼듯한 기세다. 태고연한 정적속에 잠들었던 밀림이 놀란듯 좌좌 설레인다. 소나무들이 몸을 뒤틀며 가지를 무겁게 짓누르던 눈을 털어버린다. 세차게 태질하는 바람에 휘말려오른 눈가루들이 골안에 가득 찼다. 해마저도 그 눈가루에 파묻힌듯 희뿌연게 멀리 바라보인다.

오후부터 시작된 협의회는 저녁이 가까와오는 지금까지 끝을 맺지 못하고있었다.

츠르릉츠르릉 창유리를 울리며 기승을 부리는 눈보라소리도 열띤 논의가 벌어지는 여기 관리위원장실에서는 마치 그 어떤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느껴진다.

불을 어찌나 많이 땀는지 벌겋게 달아오른 난로가 확확 열기를 내뿜는다. 속이 달아올라 숨웃단추들을 열어제친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땀기가 질펀하니 내뿜다.

《거 나무를 그만 넣소. 이거야 어디 숨막혀 살겠소?》

답답한듯 목단추를 벗기며 기사장이 소리쳤다.

지난해 주체87(1998)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대흥단군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자강도에서도 감자농사를 해야 한다고, 자강도에서는 잘하면 두벌농사도 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협의회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모두들 열의들이 높았으나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걸리는것이 너무나 많았다.

지금까지 농장에서는 강냉이를 기본작물로 심어

왔었다. 그런것만큼 감자농사는 누구에게나 생소했다. 농장원들이 집터밭에 감자를 심기는 했지만 그것은 말그대로 자그마한 터밭농사여서 넓은 포전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감자농사와는 대비도 되지 않았다.

또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자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통알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이때까지는 종자눈을 따낸 쪽감자를 심어왔고 감자농사는 웅당 그렇게 해야 하는것으로 알아왔다. 결국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두벌농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발고가 높은데다 봄이 늦게 오고 여름이 짧은 여기 자강도에서는 두벌농사가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었다. 사실 두벌농사는 간단한것이 아니었다. 한해에 한번 농사를 짓던 땅에서 두벌 농사를 지어야 하는것만큼 곱절품이 들고 모든것이 두배로 요구되었다. 로력도 그래, 거름도 그래, 영농자재와 농기구, 비료와 농약 등 모든것이...

관리위원장 박옥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연필 뒤통으로 톡톡 그루를 박으며 기사장의 말을 듣고있었다.

론리가 정연하여 어떤 문제에서나 기본고리를 찾아내고 사람들의 주의를 거기에 집중시킬줄 아는 기사장이었다.

《에-이렇게 놓고보면 감자농사, 두벌농사를 하는데서 가장 난문제로 나서는것은 크게 두가지, 즉 종자문제와 생육기일보장문제입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쪽감자를 심는 방법이 아니라 통알감자를 심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하는것만큼 종자를 새로 확보해야 합니다. 한두키로그람도 아닌 그 많은 종자를 이제 갑자기 어디서 가져오겠는가.

또 우리 농장은 지대적특성이나 기상학적특성으로 볼 때 적산온도가 2,800도정도밖에 안되며 하루 평균기온이 10도이상 되는 날이 160~17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1,400~1,800도, 배추나 무우는 1,500~1,700도의 적산온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자만 보아도 100~140일의 생육기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결국 두벌농사를 하자면 생육기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여름을 제마음대로 잡아늘쿨수는 없는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물론 그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그것

들은 우리가 아글타글 노력해서 어떻게든 해결한다  
치고...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는데  
집중해주시 바랍니다.》

산골농사물계에 환한 기사장이라 역시 문제의 본  
질을 정통으로 꼬집어냈다.

벽을 따라 돌아가며 붙여놓은 의자에 앉은 사람  
들은 서로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수군거릴뿐 누구하  
나 선뜻 일어서지 못했다.

누군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성격이 급하고  
덜렁덜렁하여 아무 일이나 제일먼저 뛰어들고 나서  
기를 좋아하는 3작업반장이었다. 그는 약간 쉼쉼하  
는 목소리로 웨치듯 말했다.

《거 종자는 농장원들에게 호소해서 집집마다 종  
자로 보관한걸 얼마큼씩 모아들이면 안될가요?》

기사장이 어처구니없다는듯 웃으며 펼쳐놓은 사  
업일지를 넘적한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렸다.

《아니 3반장동무, 동문 이때껏 귀를 막고있었소  
아니면 뜨끈한 난로곁에 앉아 졸고있었소?

우리가 하자는 감자농사는 하나의 혁명이란 말이  
요, 혁명. 종자논을 따낸 쪽감자가 아니라 밤알만큼  
씩한 통알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그래 동무네 집에선 어떤걸 종자감자로 보관했소?  
어디 동무 주먹을 들어보우. 아마 못해도 그떡메같  
은 동무 주먹만은 하겠지 응?》

사람들이 와- 웃음을 터뜨렸다.

3작업반장은 헛신은 웃음을 짓고 화끈 달아오른  
뒤통수를 썩썩 문지르더니 털썩 주저앉으며 게면  
썩은듯 중얼거렸다.

《하두 답답해서 하는 소리웨다. 이 판에 누가 줄  
구앉아있겠소, 제길.》

사람들이 또다시 웃어댔다. 박옥희도 입가에 빙  
그레 웃음을 띄웠다. 어쨌든 사람들의 활기에 넘친  
웃음소리를 들으니 답답하던 속이 얼마간 열리는것  
같았다.

기사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자, 그만들 웃소.

다시 한번 말하는데 통알감자재배의 우월성에 대  
하여 똑똑히 알아두어야겠소. 통알감자를 심어야  
우선 빈포기를 없애고 평당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  
여 소출을 높일수 있고 또 병해충과 가물의 피해를  
적게 받고 로력을 절약할수 있단 말이요. 그리고  
두벌농사는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 당이 내놓은  
방침이란 말이요.

그러니 저 3반장동무처럼 아닌밤중에 흥두께같  
은 소린 그만하구 다들 정신을 차리구 중 현실적인  
방도를 내놓아야겠소.》

3작업반장은 두툼한 입술을 삐죽 내밀고 못마땅  
한듯 뭐라 중얼거렸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 자기들끼리  
수군수군거릴뿐... 하기는 처음 해보는 일이고 파악  
이 없는지라 방도가 그렇게 쉽게 나서는 않을것  
이다.

박옥희는 후- 긴숨을 내쉬었다. 속에서 무엇인가  
알수 없는것이 치밀어오르는듯하며 달아오른다.

그는 움쭉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성애가 하얗게 불린 창유리너머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고있었다. 마당가의 살구  
나무가 더는 못견디겠다는듯 앙상한 가지를 흔들며  
마구 몸부림친다.

저쪽 산기슭으로 난 길로 거름을 실은 트랙토르  
한대가 달리는데 그뒤를 따라 뺨얗게 일어난 눈보  
라가 달리기경쟁이라도 하듯 냅다 쫓아간다. 어느  
결에 트랙토르에 하얀 눈가루를 들썩워놓고 따라앞  
선 눈보라는 멀리 강계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간다.

(눈보라... 지난해 이맘때, 그때도 눈보라가 저렇  
게 세차게 불었었지.)

조용히 입속으로 뇌이며 눈보라가 물러간 강계쪽  
하늘가를 이윽히 바라보는 박옥희의 눈굽은 뜨거  
워났다.

지난해 정초 온 나라 인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강  
행군전투에로 불러주시고 그 돌파구를 열어놓으시  
기 위해 자강도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눈보라 사납게 몰아치  
는 저 길로 장강군을 찾으시여 군내 인민들이 자체  
의 힘으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과 전기화된 살림  
집들을 보여주셨다.

자신께서는 대소한의 강추위속으로 하루종일 현  
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인민들이 전기화된  
살림집에서 따뜻하게 지내는것을 보니 저절로 힘이  
생기고 아무리 걸어도 힘든줄 모르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박옥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죽과 췌기밥으로 끼  
니를 에우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농사군의 본분  
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나  
라의 쌀독을 책임진 우리가 얼마나 제구실을 못했  
으면, 어려운 식량사정으로 고생하는 우리인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셨으면 우리 장군님께  
서 죽을 다 드시겠는가.

성난 눈보라가 우 몰아치며 창유리에 눈가루를  
뿌려던졌다. 마당에 길게 가로누운 백양나무그림자  
가 세차게 흔들렸다.

박옥희는 젖어드는 눈굽을 닦으며 입술을 감쳐물  
었다.

아니, 그럴수 없다. 이제 더는 우리 장군님께서  
죽과 췌기밥을 드시게 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우리  
를 잘살게 해주시려고 감자농사혁명방침과 두벌농  
사방침을 제시해주셨는데 그것을 관철하지 못한다

면 우리가 무슨 농사꾼이란 말인가. 장군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꾼이고 장군님의 전사란 말인가.

자연의 봄계절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찾아오는것이지만 우리는 그 봄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수 없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한겨울에도 봄을 당겨 꽃을 피워야 한다. 이 한몸을 불태워 저 눈을 녹이는 한이 있더라도...

박옥희는 창가에서 물러나 책상앞에 돌아와앉았다. 손세까지 써가며 론쟁에 열을 올리던 사람들이 말을 꼭 그치고 관리위원장의 근엄해진 얼굴을 쳐다보았다.

비록 키도 작고 체구도 작지만 이악하기로 소문나 일단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성미, 말은 적지만 실천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끌고나가는 관리위원장이다.

박옥희는 답답하나 절절한 어조로 말머리를 뺐다.

《동무들의 말대로 감자농사, 두벌농사가 처음해보는 일이고 또 험치 않은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국가계획으로 떨어진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무들, 지금 이 시각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방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이제는 한분밖에 안계시는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가시며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자강도사람들을 믿어주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려고계시는데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방침도 관철하지 못하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자강도사람들이라고 땀땀이 말할수 있겠습니까.》

방에는 숨엄한 정적이 깃들었다. 모두들 붉게 상기된 얼굴로 묵묵히 앉아있었다.

《물론 해본 경험도 없는 두벌농사를 하느라하면 걸리는것도 많고 고생도 많을겁니다.

하지만 이 길이 우리 장군님을 쌀로써 받드는 길이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우리가 잘사는 길입니다.

우리모두 논두렁이나 밭고랑을 베고 쓰러져 순직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려붙어 꼭 두벌농사에서 성공합시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더는 농사문제로 심려하지시 않도록 기쁨을 드립시다.

진심어린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법이다. 모두들 격양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두벌농사를 하자고 떨쳐나섰다.

회의에서는 두벌농사를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분공이 주어졌다.

...감자종자는 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확보한다.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각 작업반마다 거름원천을 찾아내고 소석회를 구워내며 매 분조마다 50톤씩의 생물활성퇴비와 흙포산비료를 생산한다. 농장 자체로 미생물비료공장을 크게 확장하고 복합미생

물비료생산실, 리미액생산실, 린세균비료생산실, 생물농약생산실을 꾸린다.

생육기일을 보장하는 문제는 농장원들과도 토의해서 방도를 찾기로 하였다.

...깊은밤, 대기는 싸늘하게 식어들었다. 하늘에 가득 널린 별들도 한자리에서 웅송그리고 오돌오돌 떨고있는듯했다. 길옆 우중충한 수림의 앙상하게 벌거벗은 이빨나무상수리우에 올라앉은 쪼각달이 희미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에 다져진 눈덮인 길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길가운데 움푹 패인 두줄기 바퀴자리를 따라 한녀인이 무거운 걸음을 옮겨놓고있었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결에 수림이 와스스 설렁거리군했다. 바람이 이리저리 얹힌 앙상한 나무가지 사이들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마치 휘파람소리처럼 들렸다.

밤길, 더우기 눈덮인 겨울날 산속의 호젓한 밤길은 언제나 야릇한 무서움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길바닥을 가로지르고 누워 흔들거리는 시커먼 나무그림자, 어디선가 멀게 들려오는 이름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 하얀 눈을 뒤집어쓰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산기슭의 울퉁불퉁한 바위들과 삐죽삐죽한 나무그루터기들, 이 모든것들이 푸르스름한 달빛아래서 시시각각 각이한 형상으로 변하며 까닭모를 공포감을 자아내군하는것이다.

허나 깊은 상념에 잠긴듯 고개를 수긏하고 걸어가는 그 녀인은 눈길한번 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걸어갈뿐, 이따금 호- 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군한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는 빠그크소리가 유난스레 울리군했다.

박옥희는 도농업대학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금도 그의 귀전에서서는 나이지속한 교원이 하던 말이 떠날줄 모른다.

《관리위원장동무의 심정은 알만합니다.

이전에는 두벌농사가 청천강이남지역에서만 가능한것으로 인식되어있었지요. 또 우리 자강도는 기후나 지리적인 조건이 엄혹하고 또 땅이 척박해놔서 두벌농사는커녕 자급자족도 하기 힘들다는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우리 농업과학자들이나 농업일군들속에서 굳어져있었지요.

그러던것을 자강도에서도 두벌농사를 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연구사업에 달려붙었지만 아직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남쪽 별방지대에 비해볼 때 여기는 봄이 약 한달가량 늦게 오는데 그 한달을 얻어낼수 있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는데...》

그러면서 그는 먼곳에서 우정 찾아온 녀성관리위

원장을 그냥 돌려보내는것이 미안한지 이제 좋은 방도가 나서면 꼭 알려주겠노라고 하였다. 그러며 이제 너자의 몸으로 어떻게 혼자서 수신탄밭길을 걸겠는가하고 하면서 하루밤 쉬고가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박옥희는 그것을 뿌리치고 부득부득 길을 떠났다.

이 며칠간 박옥희는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일도 같이하면서 토론해보았고 나이많은 이고장 토배기로인들도 여러명 만나보았으나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다.

늙은이들은 여직껏 농사를 지어오면서 두벌농사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저었고 개중에는 관리위원장이 너무 어벌이 크게 아닌가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젊은 청장년들은 기세들은 높았으나 역시 뽕족한 수는 내놓지 못했다.

허나 박옥희는 단념할수가 없었다. 기사장을 비롯한 기술일꾼들과도 토론을 거듭했고 농업과학기술참고서들도 뒤져보았다. 하지만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감자종자를 해결하기 위해 도농촌경리위원회에 올라갔던 길에 농업대학에도 들러보았던것인데...

박옥희는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비칠하며 흠칫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사방에는 피피한 정적만이 깃들었는데 어느새 하늘중천에 높이 떠오른 달이 홀로 밤길을 걷는 자기를 측은히 내려다보고있었다.

저 멀리 거무스레하게 보이는 산을 배경으로 불빛이 환한 읍전경이 바라보였다.

박옥희는 저도 모르게 호- 긴숨을 내쉬었다.

왜서인지 온몸의 기운이 일시에 빠져나가는듯 다리맥이 없어지고 그자리에 주저앉고만싶어졌다.

결국 방도가 없단 말인가.

한달, 한달이 문제였다. 그 한달을 찾아내지 못하면 두벌농사는 할수 없다. 날자로 보면 30일, 시간으로 치면 720시간, 기나긴 한생에서 보면 눈깜짝할 순간이라고도 볼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나 이 한달을 찾아내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수 있는 것이다.

박옥희는 막 안타깝고 눈물이 났다.

근 30년간 관리위원장사업을 해오지만 언제 한번 난관앞에 주저앉거나 눈물을 흘려본적이 없는 그였다. 그라고 어찌 눈물이 없으랴만 강의한 의지로 난관을 타개하고 나약해지는 자신을 이겨내며 일해왔었다. 하지만 이 순간만은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어쩔수 없이 저절로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박옥희는 얼어든 불을 타고 방울져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무거운 걸음을 옮겨놓았다.

공- 하고 잠결에 뒤채기는 소리가 들렸다.

책상에 마주앉아있던 박옥희는 그 소리에 뒤를

돌아다보았다.

둘째아들 상혁이가 무슨 좋은 꿈을 꾸는지 병국이 웃음을 지으며 푸푸 입김을 불어댄다.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군농기계작업소에서 일하는 상혁이다. 졸업까지만 해도 무슨 새 농기계를 창안한다며 종이우에다 선을 긋고 점을 찍고 무엇인가 계산을 하며 공공거리더니 어느새 저렇게 군잠이 들었다.

길동그스름한 얼굴에 코날이 오뎝한게 사내답게 씩씩한 맛은 없고 꼭 처녀애들처럼 곱살한 느낌을 준다. 흰칠한 이마에 곱슬곱슬한 반고수머리카락 몇오리가 흩어져내렸다. 꿈속에서도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벌쭉 웃군하는데 그럴 때마다 량천입구에 움푹하니 볼우물이 패운다. 곱살한 얼굴과 볼우물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집애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온 상혁이다.

아들 둘에 딸 둘, 네남매를 두었는데 다들 시집장가를 가고 막내 상혁이만이 집에 남아있다. 군 자체공급소에 다니는 남편 김정영이 출장이 잦은데다 자기 또한 관리위원장사업으로 바빠 돌아가다나니 저녁때면 땡땡그레한 집안에 혼자 앉아있는 때가 많은 아들이다. 어릴적부터 마음씨가 착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일손을 잘 도와주곤했는데 누나들까지 다 시집을 가고 없는 지금은 부엌일까지 곧잘 한다.

박옥희는 불현듯 가슴한구석이 찢르르해남을 느꼈다.

관리위원장으로 일해온지도 어느덧 30년,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그 기간을 봄부터 가을까지 벌에서 살다싶이하며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내고저 애써온 그였다. 닭이 첫해를 칠무렵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벌을 한바퀴 돌아보는것으로부터 하루일을 시작하는것이 이제는 어길수 없는 일과처럼 되었다. 낮에는 포전에서 농장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회의를 지도하고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책들과 씨름하고... 정말 일년 사계절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흘러가곤했다.

그 나날 농장의 알곡생산은 점점 높아지고 《일 잘하는 관리위원장》으로 소문이 났지만 집안일에는 전혀 무관심하였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는 날이 드문했고 회의요, 출장이요 군으로 도로 나다니는 때도 많았다. 그러다나니 집안일은 남편과 아이들이 도맡아하되싶었다.

언제 한번 남들처럼 가족들과 단란하게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어본적도 드물었고 자식들에게도 별로 애뜻한 정을 부어주지 못했다.

상혁이를 키울 때만 해도 그렇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젓조차 변변히 먹여보지 못했고 탁아소, 유치원에도 남편이 안고다니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상혁이를 볼 때마다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에 알찌근 해나곤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자기를 말없이 이해해주고 힘을 주며 도와나서준다는 남편과 자식들이었다.

박옥희는 아들의 이마우에 흠어져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려주며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다. 졸전에 있는 일이 생각나서였다.

…눈섭에 성애가 하얗게 불리고 온몸이 뽕뽕 얼어가지고 돌아와 저녁밥술도 제대로 뜨는등마는등하는 어머니를 눈여겨보던 상혁이가 근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요새 힘드신 모양이군요. 눈에 피발이 다 났어요.》

그러며 상혁이는 어머니의 무릎가에 바투 다가앉아 꺼칠꺼칠한 손등을 쓰다듬었다. 녀인의 손은 아침저녁 찬 가시물에 거칠어진지만 포전에서 따가운 해벌에 트고 벌바람에 더 거칠어진 박옥희의 손이었다.

박옥희는 아들의 손을 꼭 움켜잡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그래, 힘들구나. 하지만 나 하나 힘들구 피곤한 거야 뭐라냐. 그저 이 어머니가 아는게 적구 능력이 없단나니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그제 제일 안타깝구나.》

약간 갈린듯한 박옥희의 웅글은 목소리가 조용한 방안에 울렸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우리 농장에서두 두벌농사를 지어야겠는데 생육기일이 모자라는구나. 그런데 아직까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그러지 않니. 하루하루 날자는 가구 봄은 다가오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니…》

박옥희의 목소리는 어느새 저으기 젖어있었다.

상혁이는 저로서도 안타까운지 두손만 맞잡고 주물럭거릴뿐 말이 없었다.

《난 이런 때면 네가 대학에서 농기계가 아니라 육종이나 재배를 전공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드는구나. 그랬더라면 네가 이 어머니를 크게 도와줄수 있는건데…》

《참, 어머니두, 저를 대학으로 보내면서 꼭 좋은 농기계를 만들어서 힘든 농사일을 없애자구 하시잖았나요?》

상혁이는 싱긋 웃으며 볼우물을 지었다.

박옥희도 조용히 되뇌었다.

《그래, 그랬었지.》

꼭 같았든듯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상혁이는 우정 활기를 띄우며 쟁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너무 걱정마세요. 이제 다 잘될거예요.》

하자구 결심하구 나선 사람에게는 나갈 길이 열리고 방도도 생기는 법이거든요.

문제는 여기, 이 심장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데 달려있어요. 봄도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의 마음에 먼저 찾아오는 법이에요.》

상혁이는 제풀에 열이 올라 불끈 쥔 주먹으로 자기의 왼쪽 가슴을 두드려댔다.

박옥희는 그러는 아들이 대견스러워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너석두, 이젠 다 자랐구나. 이 어머니에게 힘을 줄줄 다 알구.

고맙다, 상혁아.)

상혁이가 벽시계를 힐끗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며 부산을 피웠다.

《어머니, 그러니 오늘저녁은 일찌감치 꼭 쉬세요. 벌써 12시가 돼와요.》

꼭 자고 거뜬한 머리로 생각하면 좋은 방도가 떠올라지 않겠어요?!》…

고즈넉한 정적이 깃든 방안에 전자벽시계소리만이 채깍채깍 울리며 새벽을 재촉한다.

박옥희는 아들의 머리맡에 그린듯이 앉아 상념에 잠겨있었다.

힘이 들고 맥이 진할 때마다, 자기때문에 고생많은 남편과 자식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는 나이도 있는데 힘든 관리위원장사업을 그만두고 그저 평범한 한 농장원으로 있는 힘껏 일하며 한가정의 주부로서, 다정한 안해로서, 다심한 어머니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며 살고싶은 생각이 불쑥 불쑥 들군하는 그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악쟁이》, 《불도젤》이라고들 불렀지만 그는 역시 녀성이었다. 한개 농장을 책임진 관리위원장이기전에 가정을 가진, 남편과 자식을 가진 녀성이었다. 남들과 다름바없는,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인정에 무르고 눈물이 헤쁜 녀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을수도 물러설수도 없었다. 태천의 평범한 농사군의 딸이었던 자기를 관리위원장으로 키워주시고 로력영웅으로까지 내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에 보답하기전에는 결코 주저앉을수 없는 그였다. 하여 박옥희는 그럴 때마다 약해지는 마음에 스스로 채찍질을 하며 강심을 먹고 일어서곤하였다.

박옥희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되새겨보았다.

봄은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드는 법이다.

(그래그래, 심장이 뜨거워야지.)

벽시계가 한점을 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벌써 새날이다.

몰아치던 바람소리도 어느덧 잠잠해지고 서컹하늘가에 비스듬하니 기울어진 쪼각달도 차거운 대기에 점차 식어드는지 별거우리한 빛을 맥없이 뿌리며 엷은 구름장뒤에서 끄뻑끄뻑 조을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래일에 대한 환희와 희망을 안고 단꿈속에 깊이 잠든 밤, 태고연한 정적만이 무겁게 내리드리웠다.

박옥희는 책상에 마주앉아 책을 펼쳐들었다.

…따사로운 해살이 환히 비쳐들어 얼굴을 간지럽히는 바람에 박옥희는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을 활짝 여니 시원한 바람결을 타고 그윽한 향기가 확



밀려든다. 아, 이 향기...

눈부리 시도록 무연하게 펼쳐진 감자밭에 하얀감자꽃들이 활짝 피어나 망울을 터쳤다. 말그대로 감자꽃바다다.

어느결엔가 박옥희는 감자밭 한가운데 서있었다. 무성한 푸른 잎새우에 피어나 바람결에 설렁이는 하얀 꽃송이들... 선명한 아침해살이 흰 꽃잎들이며 푸르싱싱한 잎사귀들을 포근히 감싸안는다. 무릎을 꿇고앉아 감자꽃 한송이를 소중히 꺾어들었다. 하얀 꽃잎에 맑은 이슬이 대롱대롱 맺혀있다. 맑은 아침해빛을 받아안고 구슬마냥 아름다운 빛을 뿌리는 이슬방울...

박옥희는 너무도 기쁘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길 수 없어 환성을 울리며 내달렸다.

가도가도 끝없는 감자꽃바다, 실하게 자라오른 줄기들이 밭목에 척척 와 감기며 걸채인다...

저앞에서 까만 승용차 한대가 경적소리를 울리며 달린다. 박옥희는 그 승용차를 뒤쫓아 정신없이 달리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차다. 아, 수령님... 얼마나 뵈옵고싶던 수령님이신가.

박옥희는 이를 악물고 내달렸다.

《어버이수령님!》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 또 부르지만 왜서인지 목이 짝 메이고 소리가 나가지 않는다. 눈물이 쏟아지도록 안타까웠다. 돌부리에 걸쳐 어푸러졌다. 벌떡 뛰쳐일어나 다시 내달린다.

또다시 어푸러졌다. 저만큼 멀어져가는 승용차의 뒤모습... 눈물이 솟는다. 아, 돌이 많은 이 땅... 어버이수령님을 이토록 험한 길에 모시다니...

또다시 일어나 내닫는다. 다리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지 확실히 알아가는듯하다. 또다시 가까와지는 승용차...

승용차가 저앞 갈림길목에서 스프르 멈춰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차에서 내려서신다. 자기를 보고 어서 오라 손짓하여 부르신다.

박옥희는 나는데 달려가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드렸다.

《어버이수령님, 안녕하십니까.

제 장강군 읍청동농장 관리위원장입니다.》

《아, 녀성관리위원장동무로구만! 수골 하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뛰어오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물으신다.

《수령님, 우리 농장 감자밭에 꽃이 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사를 지었더니 감자가 정말 잘되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기쁘신듯 환하게 웃으신다.

《그래, 김정일동지가 가르쳐준대로 했단 말이지.

웁소. 김정일동지가 하라는대로 하면 만사가 다 잘되는 법이요.》

어버이수령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하늘가에 울려간다.

《수령님, 우리 농장에 한번 들려주십시오.

활짝 핀 감자꽃도 보아주시고...

우리 농장원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박옥희는 두손을 모두어잡고 절절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가봐야지.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관리위원장동무랑 농장원들이 아글타글해서 지은 농산데...

내 꼭 가보겠소.

내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그러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꼭 들리겠소.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박옥희의 두손을 꼭 잡아주시고 차에 오르신다.

《예, 수령님. 기다리겠습니다.》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저만큼 멀어진다.

박옥희는 이 순간이 지나면 어버이수령님을 다시는 뵈옵지 못할것만 같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 더 생각할사이 없이 승용차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승용차가 다시 멈춰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차에서 내려서시며 물으신다.

《왜 또 따라오는거요?》

그래 무슨 일이 있소, 관리위원장동무?》

《수령님...》

박옥희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였다. 나라일을 돌보시느라 바쁘신 어버이수령님의 길을 지체시켰다는 죄송함이 가슴을 아프게 저민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박옥희의 마음을 알겠다는 듯 웃으신다.

《허허, 이 동무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모양이구만.

그럼 좋소, 차에 타오. 함께 갔다가 동무네 농장에도 들리지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차문을 열어주시며 어서 타라고 손짓하신다.

차에 오르려던 박옥희는 자기 옷주체를 살펴보았다.

아래도리가 이슬에 젖고 거름냄새나는 작업복, 흙이 잔뜩 묻은 로동화... 이 모양을 해가지고 어찌 어버이수령님의 차에 감히 오르랴.

박옥희는 주춤 한걸음 물러서며 말씀드렸다.

《수령님, 제 여기 이자리에서 기다리겠으니 돌아오는 길에 꼭 우리 농장에 들려주십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허허 웃으시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주시었다.

《약속하지요. 내 꼭 들리겠소.

그러니 여기 길가에 서있지 말고 농장에 돌아가 기다리라고.》

또다시 멀어져가는 승용차. 보는 사이에 저 멀리 곧게 뻗은 길을 따라 하나의 점으로 사라져 간다.

묵박힌듯 그자리에 점도록 서서 승용차를 바래우던 박옥희는 빨리 가서 옷도 갈아입고 농장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편득 들었다...

박옥희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방안은 고요했다. 채깍채깍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가락맞게 울릴뿐...

꿈인가, 아니 꿈같지 않았다. 꼭 이제 방금 있는 일같이만 느껴졌다.

아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아직까지도 귀전에 들려오는듯싶고 아릿하면서도 들크무례하고 그옥한 감자꽃향기가 풍겨오는상싶다.

박옥희는 머리를 흔들며 창가로 다가갔다.

흰꽃무늬가 다문다문 박힌 푸른 주단같이 끝간데 없이 펼쳐졌던 감자꽃바다는 보이지 않고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그러니 결국 꿈이었던 말인가.

가슴 한귀퉁이에서 무엇인가 든든한것이 덜컥 무너져내리는듯 마음이 불시에 허전해졌다.

애기주먹만큼씩한 소담스런 눈송이들이 어둑어둑한 밤공간을 짹 메우고 너울거리며 조용히 내리고있었다. 창문앞을 지날 때는 밝은 전등불빛에 불그스레하게 물들군한다. 언제부터 내렸는지 벌써 울타리우에도 푸실푸실한 눈가루가 두툼하니 쌓였다. 소리없이 내리고내려 포근한 숨이불로 깊이 잠든 대지를 덮어주는 눈송이들...

박옥희에게는 그 눈송이들이 마치 꿈에서 본 감자꽃송이처럼 여겨졌다.

문득 리문화회관쪽에서 방송개시를 알리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잇달아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고요한 새벽대기를 흔들며 울려 퍼진다.

새날이 시작된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별로 나갈것이다. 아직은 눈이 무릎을 칠만큼 쌓였지만 푸른 일새 설령이고 황금이삭 주렁질 풍요한 그날을 앞당겨 오기 위하여, 벌써 집집의 창가들에 하나 둘 불이 켜진다.

문득 농장에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자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생시인듯 귀전에 들려온다. .

평시에 바라고바라던것이 꿈에 보인다더니...

언제부터 가슴속에 품고사는 소원,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번 농장에 모시었으면 하는 그 소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각지의 공장, 기업소, 농촌들을 찾으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소원은 더욱 간절해졌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감히 입밖에 내어 말할수 없었으니, 과연 우리 농장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실만한 높이에 올라섰는가 하는 자격지심때문이었다.

꿈에서 돌부리에 걸려 어푸러지며 안타깝던 생각

이 불현듯 떠오른다.

돌이 울퉁불퉁하고 굵이굵이 돌아간 험한 길, 그 길에 어찌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실수 있으랴.

박옥희는 조용히 속으로 뇌이였다.

(아버이수령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은 험한 포전길을 걸으시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우리들인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있습니다.)

눈가에 핑그르 물기가 고여오르고 눈앞이 흐려진다. 박옥희는 흥건히 젖어드는 눈굽을 닦으며 눈내리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한동안 그린듯이 서있던 박옥희의 눈길은 창턱에 놓여있는 만수국화분에 멎었다.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싱싱함을 잃지 않은 푸른 잎사귀, 한창 물이 오르는 꽃망울... 상항이가 2월 16일을 맞으며 꽃을 피운다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며 정성스레 가꾸더니 어느새 저렇게 자랐다. 이제 머지 않아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옥한 향기를 풍길것이다.

순간 박옥희의 머리속에서는 무엇인가 섬광처럼 번쩍하는것이 있었다.

꽃, 화분... 저 만수국은 한겨울에도 더운 방안에서 저렇듯 푸르싱싱하게 자라 꽃을 피우지 않는가. 그렇다면... 감자도 저렇게 온실에서 키우면 안될가. 감자는 싹이 터나오는 기간이 보통 30일정도 걸린다. 그러니 미리 온실에서 싹을 틔워 밭에 내다심는다면 그만큼 생육기일을 보장할수 있을것이 아닌가. 그만큼 계절을 앞당기는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고구마는 더운 방안에서 싹을 틔워 그 싹을 밭에 내다심는다. 감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을것이다.

그렇다, 될수 있다.

문제는 온실, 온실이다. 온실만 있으면 두벌이 아니라 세벌농사도 지을수 있다.

저도 모르게 환성이 터져나간다.

《찾았다. 한달을 앞당길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

박옥희는 화분을 그러안고 푸르싱싱한 잎사귀에 불을 비비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소리없이 소복이 내려쌓이고있었다.

우등불이 활활 타올랐다.

삼단같은 불길이 대한추위에 새파랗게 얼어붙은 하늘을 단숨에 녹여낼듯 킁글 킁글 솟구며 타오른다.

굵은 통나무장작들이 연방 불속에 던져졌다. 그 때마다 새빨간 불씨들이 튕겨나 너울거리며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온실을 지을 자리의 언땅을 녹이기 위해 놓은 불이었다.

박옥희는 기사장을 비롯한 기술일군들과의 진지한 토의끝에 온실에서 감자의 싹을 틔워 밭에 내다심으면 생육기일을 보장할수 있을뿐아니라 소출도

높일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하였다.

관리위원장실에서는 다시 회의가 열리었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 파악이 없는 새로운 방법인 것만큼 한해 시험적으로 해보고 다음해부터 대대적으로 하는것이 어떤가, 또 땅이 깊이 언 겨울철에 온실공사를 진행한다는것은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박옥희는 결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물론 감자농사, 두벌농사가 처음 해보는 일이다 나니 아직 파악이 없는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신 일, 장군님께서 하라시는 일은 무조건 됩니다.

또 봄이 오고 땅이 녹은 다음에 온실을 건설하면 쉬운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당의 방침 관철이 한해 늦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뜨거운 심장의 열기로 언땅을 녹여서라도 온실을 건설하고 두벌농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2월까지 산기슭을 따라 계단식으로 된 3층짜리 온실을 건설할것을 결정하고 돌격대를 조직하였다. ...

불길이 어지간히 사그라지자 청년들이 달려붙어 삽으로 불붙는 나무토막들을 밀어제겼다. 땅에서 뜬김이 문문 피어올랐다.

곡괭이날이 힘있게 땅을 찍어넘기고 뒤따라 삽날이 폭폭 박혔다. 허나 위낙 돌이 많은데다 땅이 두텁게 얼어붙어 삽날 한기장을 넘어서기 바쁘게 언 땅이 딱딱 맞서고 곡괭이날에서 불꽃이 평곳평곳 일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리라 그럴수록 더욱 열이 올라 옷웃까지 벗어던지고 내의바람으로 힘차게 곡괭이를 휘둘러댄다.

삽질을 하던 박옥희는 한 처녀한테 삽을 빼앗기고 시큰시큰해나는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바람 한점 없는 쾌청한 날씨다. 강렬한 태양광선이 산천을 뒤덮은 흰눈에 반짝반짝 반사되어 부서지며 눈을 시그럽힌다. 차갑고 시원한 공기에 마음이 거뜬해진다.

사람들이 하얗게 덮인 산기슭은 온통 김천지이다. 우등불에 녹은 땅에서도 김이 그물그물 피어오르고 흰 입김을 확확 내뿜으며 걸싸게 일하는 청년들의 땀뿔은 얼굴과 몸에서도 김이 솟아오른다.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마냥.

저아래 북천에도 사람들이 한벌 덮였다. 두텁게 진 북천의 얼음장을 깨내고 온실을 건설할 돌을 채취하고있다.

산기슭으로 지나간 길로는 거름을 실은 트랙포르가 기세좋게 달리고 그뒤를 따라 거름발구를 끄는 황소들이 영각소리를 길게 내뿜으며 성큼성큼 걸어간다.

휴식구령이 울려퍼졌다.

사람들이 우등불가로 모여들었다. 땀이 번지르르

한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 봄을 당겨온다는 환희와 긍지가 가득 어렸다.

뒤이어 오락회가 벌어졌다. 청년들의 힘찬 노래 소리가 맑은 하늘가 멀리로 울려퍼진다.

박옥희는 그들이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얼마나 미덥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오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며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밝은 웃음과 명랑한 노래로 이겨나가고있는 사람들, 저렇듯 미덥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오늘의 겨울이 제아무리 엄혹하다 해도 우리는 이 땅에 강성대국건설의 새봄을 남먼저 당겨 올것이다.

이제 머지 않아 봄이 올것이다.

봄-환희와 희망의 계절, 약동과 신생의 계절.

그날이 오면 아득히 뻗어간 저 산밭들은 무겁게 짓누르던 흰눈을 털어버리고 푸른색으로 단장할것이며 북천으로는 봄시위물이 소리치며 흐를것이다. 그날이 오면 거름독이 올라 거밋거밋해진 대지에서는 새싹이 움트고 자라 하얀 감자꽃바다를 펼치고 그옥한 향기를 풍길것이다.

박옥희는 벌써 그날을 눈앞에 보고있었다.

산천을 울리는 힘찬 노래소리에서, 트랙포르의 힘찬 동음소리에서, 포전마다 쌓인 거름더미들에서, 황소들의 구성진 영각소리에서, 심장의 불길로 녹인 땅에서 봄날의 아지랑이마냥 피어오르는 김에서...

박옥희는 눈길을 몰어 련련히 뻗어간 산밭너머 먼 평양쪽 하늘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

이해의 봄은 류달랐다.

3월에 들어서기 바쁘게 북천의 두터운 얼음장에 왕금이 가고 산마다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골짜기들마다에서는 눈녹은 물이 도랑을 이루며 흘러내려 미처 녹지 못한 북천의 얼음장우로 질벅하니 넘쳐흘렀다. 얼음이 버석버석해지고 짹짹 금이 점점 넓어지는듯싶더니 삽시에 녹아내려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버리고말았다. 무섭게 불어난 북천이 탕탕 돌을 굴리며 흘러내렸다.

길바닥이 질적질적해지고 대지가 눈웃을 벗고 시커먼 생살을 드러내놓았다. 길가의 누렇게 말라 버린 묵은 풀잎사이로 뾰족뾰족 새움이 터나왔다. 먼 산밭들에 뾰얀 젖빛운무가 어리더니 점차 연록색물이 들기 시작했다.

레년에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올해는 봄이 일찍 온다고 기뻐들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너무나 때이른것이였다.

어느날 아침부터 줄금줄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점점 굵어지던 비발은 점심나절부터 진눈까비로 변하더니 잇달아 눈이 쏟아져내렸다. 그것도 주먹만큼씩한 눈송이가 하늘을 짹 메우며 평평 쏟아져 내렸다.

밤새도록 내리던 눈이 몇자 바람이 일었다. 앵앵 소리지르며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은 눈속에 묻힌 모든것을 꼼짝 움직일수 없게 그자리에 꽂꽂 얼구어버렸다.

봄이 왔다고 기뻐하며 새싹을 틔우던 못생명들은 된서리를 맞고 눈속에 묻혀버리고말았다.

허나 여기 해별이 따스하게 비쳐드는 온실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있었다. 거름을 두텁게 깎 바닥에서는 감자들이 계절을 앞당겨 싹을 틔우고 있

었다. 뒤벽에서는 부루, 쭈갓들이 함초롬히 젖은 푸르싱싱한 잎을 펼치고 자라고있었다.

여기는 봄이었다. 밖에서는 모든것을 눈속에 파묻은 겨울이 제노란듯 마지막기승을 부리고있었으나 여기 온실안에서는 겨울할아버지를 부질없다는 듯 비웃으며 봄이 태동하고있었다.

봄,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받드는 뜨거운 심장들이 안아온 새봄이었다.

## 작가일화

# 5살난 신동

매월당 김시습은 15세기후반기에 두각을 나타낸 진보적인 문인이다.

강릉에서 태어나 자란 김시습은 어릴 때부터 시를 잘 지어 사람들로부터 신동이라 불리웠다.

어머니무릎에 앉아 재물을 부릴 나이에 자연현상을 보고 시를 능란하게 지었고 이름난 문인들이 찾아와 시구를 대면 척척 대구하여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번은 기이하게 총명한 그에 대한 소문이 궁중에까지 알려져 국왕 세종이 5살난 시습을 왕궁으로 불렀다.

세종은 지신사 박이창에게 시습의 재주를 시험하게 하였다.

거의 땅에 닿을 정도의 작은 키에 자그마한 몸집을 본 이창은 입을 딱 벌리었다. 과연 이 조그마한 아이가 시를 짓는단 말인가, 박이창은 너무도 기이하게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박이창은 황궁하옵게도 삼감마마의 어명으로 내가 너의 재주를 시험하러 하니 그리 알고 잘 듣고 대구하라고 말하였다.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어린 시습이 《네, 성은 이 망극하옵니다.》하고 공손히 머리숙여 례를 표하니 좌중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와했다.

파시 신통스럽도다. 모두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윽하여 박이창이 첫 문구를 불렀다.

어린 아이의 배움은 흰 학이

푸른 하늘가를 날아서 춤추는듯하도다

눈을 반짝이며 듣고있던 시습이 대번에 대구를 불렀다.

어진 임금의 은총은 누른 룡이

푸른 하늘 한가운데서 번뜩임과 같도다

시습의 화답이 너무나 엄청나서 박이창은 물론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면서 저마다 들던 그대로 신동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다음에도 박이창은 몇번이나 시구를 대었으나 시습은 막힘없이 대구하곤하였다.

박이창의 말을 들은 세종은 시습을 대전으로 불러 만나보았다.

시습의 재능에 감탄한 세종은 그에게 상으로 비단 50필을 주었다. 그리고 네 힘으로 그것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옆의 대신들이 5살난 어린 아이가 그 많은 비단을 어찌 제힘으로 가져갈수 있느냐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으나 세종은 느슨하게 웃으며 어떻게 하나 보자는듯 시습을 보았다.

잠간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던 시습은 비단필을 모두 풀어 끝과 끝을 서로 이었다. 이렇게 50필을 이어놓은 시습은 세종에게 공손히 인사하고나서 비단필 한끝을 잡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혀를 차며 감탄하였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놀래우면서 장차 나라의 큰 인재로 되리라 확신되었던 김시습이었지만 21살나던 해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사건이후 삼각산에서 공부하던 책들을 불사르고 떠돌이생활에 몸을 잠그었다. 포악무도한 수양대군의 정치하에서는 학문을 닦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것이다.

그때부터 떠돌이생활을 하면서 시습은 현실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한 많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김시습의 작품들은 15세기후반기 우리 나라 진보적문학의 가치있는 유산으로 되고있다.

**석선영**

## 젊은 탄광지배인

김광남

탄광마을의 창가에서 하나 둘 전등이 꺼지는 이  
속한 밤이었다.

갱막장에서 침식을 하며 생산을 지휘하던 직동탄  
광 지배인 문명학은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섰다.

바느질감을 쥐고 앉아 졸고있던 안해 민향실이  
문소리에 놀라 급히 일어서며 가방을 받아들었다  
《밤도 깊었는데 앉아서 뭘하오.》

반듯한 이마에 흘러내린 콧수레를 머리칼을 쓰  
다듬어올리며 민향실이 정겹게 웃었다.

《어쩐지 당신이 꼭 들어올것만 같더군요!》

《하긴 나두 당신이 기다린다는걸 알았지.》

문명학은 빙긋이 웃으며 밧그레 상기된 안해의  
볼을 꼭 눌러주고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노란 장판  
구들에는 담요를 차던진 두 아들녀석이 머리를 가  
지런히 맞대고 뚫아떨어져있다. 중학교에서 나팔을  
불고있는 말이 철민이 머리맡에는 무슨 악보책이  
펼쳐져있었고 막내 철국이 어깨밑엔 체육잡지가 깔  
려있다. 나이에 비해 체격이 늘씬한 그녀석들은 년  
년생이어서 그런지 승벽이 여간 심하지 않다. 어떤  
날엔 그녀석들과 어울려 팔씨름을 한다, 태권도를  
한다 서로 붙잡고 돌아치다가 벽까지 찢어놓아  
할머니의 꾸중을 들으면서도 집안이 들썩하게 웃음  
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금도 자는 애들을 깨워 부둥  
켜안고 한바탕 돌아치고싶어 손이 근질거렸으나 얼  
핏 부모님들이 쉬고계시는 옆방을 걸논질해보며 조  
용히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안해가 밥상을 차리는것을 보자 그는 손을 흔들  
었다.

《막장에서 먹었소.》

《그래두 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

《우리가 결혼한지 열다섯해가 되는 날이에요!》

《오, 그렇소!》

안해가 음식을 차리는 동안 문명학은 책상앞에  
놓여있는 결혼식사진을 감회깊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결혼한것은 민향실이 스물일곱에 나던 해  
였다. 도인민병원에서 이동치료대로 나와있던 민향  
실은 황홀한 눈길과 늘씬한 몸매를 가진 쾌활한 처  
녀였는데 여간 눈이 높지 않았다. 제대군인, 당원,  
대학졸업생 등 여러가지 《조항》중 어느 한 《조  
항》에도 들지 못한 그에게 무엇을 보고 자기 일생  
을 맡겼는지 다는 알수 없었으나 15년을 하루와 같  
이 남편이 사사로운 일에 머리를 쓸세라 우로는 시  
부모를 공대하고 아래로는 두 아들을 키워가며 가  
정의 크고작은 일들을 걸싸게 해제끼는 더없이 귀

중한 안해였다. 이런 안해의 살뜰한 사랑속에서 공  
장대학을 졸업하고 갱기술공정원, 기사장 사업을  
하면서 그 어떤 책임적인 직무도 감당할수 있는 자  
질과 능력을 갖추수 있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크  
나큰 정치적인임에 의하여 30대의 젊은 나이에 큰  
탄광의 지배인 중책을 맡게 되었다.

《철민이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응, 당신생각을.》

《거짓말, 또 석탄생각을 하시구선.》

민향실은 남편을 곱게 흘겨보며 술잔에 넘쳐나게  
술을 부었다.

《진정 제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서 이 잔을 드세요.》

《고맙소!》

그는 술잔을 들었으나 선뜻 비우지 못했다. 오래  
간만에 안해가 부어주는 뜻이 깊은 술이다. 이 한잔  
의 술에 안해의 지극한 사랑이 다 담겨진것만 같다.  
그는 천천히 술잔을 입술에 댔다. 감미로운 술향기  
가 입안에 흘러든다. 순간 문명학은 놀란듯 흠칫 손  
을 떨었다. 술이 넘쳐나 무릎을 적시었다. 그는 단  
호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왜 그러세요? 어디 몸이 편치 않으세요?》

문명학은 놀라 굳어진 안해의 손을 잡아 곁에 앉  
혔다.

《아니, 그런게 아니요. 사실은...》.

문명학은 생각에 잠겨 나직이 입을 열었다.

...막장회의실에서 열렸던 월생산총화에서는 석  
탄생산실적이 떨어지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문명학은 석탄생산실적표를 들여다보며 파지고  
들었다. 얼굴이며 작업복이 온통 꺼먼 석탄먼지투  
성이인 1갱장이 유난히 희여보이는 이발을 반짝이  
며 먼저 입을 뻗었다.

《이미 마려된 탄발이 거덜나기 시작했습니다. 반  
북채탄으로 잔주를 털어먹다보니... 새 탄발을 마려  
하지 못한다면 이제 몇달후엔 아예 손을 털고 나갔  
게 됩니다.》

동발이나 폭약, 이러저러하게 걸린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다른 갱들의 실래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니 또 굴진에 걸린것이다.

《굴진갱장동무.》

《보이질 않수다.》

《그 사람 뒤편이 생기니 슬그머니 몸빼길 한 모양  
이구만.》

사람들은 석탄생산이 떨어지는것이 마치도 굴진

갱장의 탓이거나 한듯이 저들끼리 불평을 털어놓았다.

《제가 대신 왔수다.》

뒤쪽에서 허리가 구부한 사람이 일어섰다. 그는 굴진갱에서 고문으로 일하는 로진삼아바이다. 이제 며칠후면 생일 60상을 받게 되는 그는 문명학에게 처음으로 안전모를 씌워주고 착암기잡는 법을 배워주었으며 탄부들이 담배와 술을 마시는 도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통제하면서 이끌어준 탄광생활의 첫 스승이었다.

로아바이는 못마땅한 눈길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알지도 못하면서 뒤소릴 말라구. 갱장은 운산에 갔수다. 정알을 구해오자구...》로아바이는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비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굴진막장에선 착암기소리가 완전히 멎었수다.》

웅성거리던 장내는 순간에 조용해졌다.

탄부들은 착암기소리가 멎었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굴진은 탄광의 생명선이다. 굴진을 앞세워야 새 탄밭을 제때에 마련할수 있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굴진을 3년분이상 앞세울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탄광에선 6개월분도 선행시키지 못한 형편인데 착암기소리마저 멎었다니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같은 소리다. 굴진을 앞세우지 못한것은 일꾼들이 목전의 석탄생산에만 급급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중요하게는 정알(정질합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것이다. 탄광에서 필요한 량의 심프로도 공급받지 못하고있다. 문명학은 그런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인계받는지 한해가 넘도록 몇몇 자재일군들에게만 맡기고있는 자신의 실책이 뉘우쳐졌다. 뒤늦게나마 대책을 세워야 했다.

회의가 끝나는 길로 굴진막장에 들어간 문명학은 굴진공들과 협의하고 특수강과 레루강을 잘라서 정머리에 꽂고 써보았다. 겨우 2구멍(2M)도 뚫지 못하고 엇가락처럼 녹아붙었다. 너무도 약했다. 정알은 50구멍이상 뚫는것이다.

《하루종일 정알만 교체하다나면 맥이 다 빠집니다.》 젊은 굴진공들은 투덜거리며 버럭돌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렇다고 가만 앉아있겠소. 하루 한구멍 뚫어도 좋으니 무조건 하시오.》

《...》

문명학은 어성을 높이고 나서 로아바이를 쳐다보았다. 로아바이는 아무말없이 담배만 푹썩푹썩 태우고있다. 탄광초급당위원인 아바이가 이런 때 한 마디만 해주어도 굴진공들에겐 힘이 될수 있으면만

고집스레 침묵을 지키고있다. 하긴 나이를 먹으면 젊은이들의 집이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것이다.

문명학은 가볍지 못한 걸음으로 갱을 나섰다. 그는 몇몇 기술일군들과 정알문제를 풀 방도를 논의하던 끝에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때 유능한 기술일군인 홍동무가 이렇게 말했다.

《올라못갈 나무는 쳐다보지 말랬다고 석탄이나 캐는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정알을 만들겠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어느 한 나라에서도 간고하게 경질합금을 만들어내고는 이 이상 더 강한 금속이 없다고, 승리했다는 의미에서 <뽀베지트>라고 이름 붙였겠습니까.》

홍동무는 석탄생산에서 중요한 여러건의 창의고안과 발명을 내놓은 년장자이다. 기술실무에 밝을 뿐아니라 판단이 명철하고 정확하여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늘 그의 도움을 받곤했다. 하긴 그의 말이 옳았다. 다년간 굴진공으로 일해온 문명학은 정알을 잘 안다. 특수강이나 레루강보다 몇십배 더 강한 초강도금속이다. 전문공장에서도 걸리는것이 많아 제대로 생산 못하는것을 탄이나 켄줄 아는 탄부들이 만들어보겠다는것은 너무 어빌이 큰 생각이다. 그렇다고 가만 앉아있을수도 없다.

이튿날 문명학은 관리국상사에 올라가보았으나 정알이 언제 들어오겠는지 막연했다. 책임일군들을 만나 제기도 해보았으나 모두 머리만 흔든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탄광으로 내려오는 문명학의 마음은 버럭돌마냥 무거웠다. 차창밖으로 얼핏얼핏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무심히 내다보며 담배를 붙여문 그는 한숨이 담긴 질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막장에선 착암기소리가 멎었는데 정알이 공급되는것은 없다. 석탄생산은 계속 떨어지고... 마치도 적들이 까맣게 밀려드는 벼랑끝에서 탄알이 떨어진 빈총을 들고 적수공원으로 서있는 병사의 심리를 체험해보는듯했다. 진퇴량난이란 이런걸 두고 하는 소리같았다.

타들어간 담배불에 손가락을 데이며 급히 재털이에 비벼끄고난 그는 길옆으로 비켜서는 로아바이를 보고 차를 세웠다.

《어디로 가십니까?》

로아바이는 들고가던 큼직한 보꾸레미를 등뒤로 슬며시 감추며 중얼거렸다.

《저... 뭘 좀 바꾸려고.》

《예?》

돈과 물욕에 눈이 어두우면 사람질을 못한다고 하면서 것처럼 고정하고 잡념을 모르던 로아바이가 이런 길에 나섰단 말인가.

《좀 보여주십시오.》

로아바이는 한걸음 뒤로 물러섰으나 문명학은 술한고뿌도 나누어마시며 허물없이 지내던 그때처럼

무릅없이 보꾸레미를 앗아들고 헤쳐보았다.

《락원술》상표가 붙은 여라문병의 술과 여러 파의 고급담배였다. 60뽕생일때 쓰라고 그가 보내준 것이 분명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요즘 생활이 몹시 어려운 모양이군요.》

《그런게...》 로아바이는 갑자기 터져나오는 기침을 참지 못해 쿨럭쿨럭 기침을 하고나서 숨이 차 헐떡거렸다.

《아바이, 이제 60뽕생일상이나 받고는 집에서 쉬십시오. 생활은 제가 어떻게 하나 도와드리겠으니 이런걸 들고다니지는 마십시오.》

《60뽕생일상이 다 뭘이겠수. 지배인이 막장에 왔다간후 레루강으루 굴진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쓰러질 지경이웨다. 굴진속도도 말이 아니구. 그런데 정알을 구하러 간 갱장은 오지 않지! 그래 생각다 못해 이걸 들구나셨수다. 정알을 구해보려구.》

《참 아바이두...》 문명학은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담배를 꺼내 아바이에게 권하고 자기도 붙여물었다.

60이 다된 몸으로 막장을 떠나지 못하는 아바이, 오죽했으면 60뽕생일상에 놓으라고 보내준 술담배까지 들고나셨겠는가. 이런 아바이를 순간이나마 오해했던 자신을 돌이켜보며 머리를 숙였다.

《아바이, 용서하십시오. 제가 구실을 못했습니다.》

《원 별소릴. 다 사정이 그런걸 어찌겠수.》

《그래 어디 가서 정알을 바꿉니까?》

《성천광산엘 가겠수다. 전문 채굴만 하는곳이니 정알이 좀 있겠지요.》

《그 먼델 어떻게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앉아있을수도 없구.

위대한 장군님께선 우리 인민이 유족하게 살 강성대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찬죽으로 끼니를 예우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데 내 아무리 나이를 먹었대도 성천쫘이야 못가겠수.》

문명학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우리 탄부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실현하자구 이처럼 아글타글 애쓰고있는데 지배인인 나는 무엇을 하였던가. 우에서 주지 않는다고 타발이나 하고 아래사람들에겐 작업조건도 마련해주지 않고 무작정 해내라고 내리먹이기만 하였으니 이게 어찌 생산과 탄부들의 생활을 책임진 일군의 자세라고 할수 있는가. 그렇다. 강성대국 건설에서 나의 몫을 찾아야 한다.

문명학은 뼈마디가 불거진 아바이 손을 잡았다.

《로아바이, 정알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로아바이는 못미더운지 머리를 기웃거렸다.

《왜 만들어내겠수?》

《해내야지요.》

이 순간 문명학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미처 느끼지 못했다. 일군들앞에서도 결심하지 못했던 심중한 문제를 로아바이앞에서 결심하게 된 자신이 스스로도 놀라왔다. 그와 함께 지고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듯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로아바이와 헤어지후 달아올랐던 심장의 박동이 고르로와지고 현실적인 사고로 돌아온 문명학은 자기가 좀전보다 엄청나게 더 큰 짐을 걸머진듯 두어깨가 무거워짐을 의식했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려던 그는 로아바이 생각을 하며 손을 내리웠다.

탄부생활에서 땀수 없는 술과 담배였다. 벽찬 기쁨과 환희, 엄혹한 시련과 고난이 수시로 교차되는 탄광이다. 자연과의 무자비하고 힘겨운 대결속에서 무슨 일인들 없었겠는가.

교대를 마친후 인차 기다리는 시간마저 참을수 없어 바삐 일어나온다. 목욕을 한 뒤 영양제식당에서 술 한고뿌를 마시고 담배를 붙여무는 맛이란 얼마나 흐뭇하고 즐거운것인가. 이렇게 몸에 배인 술과 담배였으나 정알을 구해보려고 들고나선 로아바이를 그려보니 눈곱이 젖어든다.

탄광의 운명이 정알과 굴진에 달려있는 긴장한 이때 태연히 담배를 붙여물 정신적여유를 가진 자신을 찾아보며 깊은 자책으로 얼굴이 뜨거워났다.

문명학은 담배를 꺾 움켜쥐고 부스르뜨려 길가에 내던졌다.

내 정알을 만들어내기전엔 절대로 술담배를 입에 대지 않으리라...

이야기를 마친 문명학은 량해를 구하듯 안해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민향실은 어리광이 어린 애툷한 음성으로 속삭였다.

《그래두 오늘만은 한잔 드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우리 둘뿐인데...》

《난 내 량심과 의지 앞에 한 결심이지 그 누가 알아봐달라고 한것이 아니요. 여보, 내가 왜 당신의 마음을 모르겠소. 하지만 안돼오. 이제 정알이 성공되는 날 제일먼저 집으로 달려와 당신이 부어주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겠소.》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민향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찌다 만나게 되는 남편을 사랑이 한껏 실린 그옥한 눈길로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당의 신임에 의해 남편의 중책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만나는 시간은 점점 짧아만졌다. 늘 막장에 붙어살다보니 한달치고 닷새도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나 어찌다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그동안 간직했던 사랑을 한순간에 다 주려는듯 부모에겐 더욱 효성스러웠고 애들에겐 더욱 다심했고 안해에겐 더욱 뜨거웠다.

하기에 그들은 간혹 만나게 되는 짧은 시간에도

남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맛보지 못할 뜨거운 정을 나눌줄 알았다.

서로 깊이 이해하고 믿는 참된 사랑은 시간과 상봉의 부족을 느끼지 않는 법이다.

×

공무직장 한구석 창고로 쓰다버린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경질합금작업반》을 조직했다.

《연구집단》이 아니라 작업반으로 이름붙인것은 이 분야를 전공하는 단 한명의 기술자, 전문가도 없었고 탄광의 여러 갱들에서 뽑아온 평범한 탄부들이였기때문이다. 어느날인가 갱지령실에서 일하는 로아바이의 딸 금실이 찾아왔다.

《지배인아저씨, 나도 정알작업반에 보내주세요.》

《그래!》

굴진공시절, 문명학은 명절때면 로아바이집에 찾아가곤했었다. 그때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아버지, 술을 마시면 나쁘대.》, 《그러니 이담에 너의 집에 찾아가면 술 한잔 안주겠구나.》, 《그대신 사탕물을 줄래.》 하고 말해서 즐겁게 웃기던 금실이였다.

《네가 이제 다 자랐구나! 그럼 우리 함께 정알을 만들어보자.》

정알작업반장으로는 공무직장 주물공인 함참문을 임명했다. 한것은 그에게 형타에 쇠물을 녹여 부어 여러가지 주물제품을 만드는 재간이 있었기때문이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경질합금이란 쇠를 녹여붓는 주물과는 아무런 련관이 없는 무기화학공업에 기초한 분말야금공학기술이였다. 녹이는 기술이 아니라 가루내어 압착하는 열가공기술이였다. 말그대로 빈터였다. 화학원소의 주기표나 리해하는 탄부들이 현대화학공업의 첨단기술의 산물인 정알을 만들려고 미증유의 탐구와 실천을 위한 간고한 행군을 시작했다.

경질합금을 만들려면 화합물의 초순도를 보장해야 하는데 기본원료로서는 순수한 코발트와 탄소가 있어야 하며 염산도 수소도 다 자체로 만들어야 했다.

시약만도 수십가지가 넘었는데 그 이름마저 기억하기 어려웠다. 어느 한 자재일군은 페놀부타인이라는 시약명칭을 그만 삭갈려 페놀과 부타인을 따로따로 얻어오는 웃지 못할 어이없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염산생산공정을 꾸릴 때엔 비닐관이 걸리자 반장 함참문은 자기 집의 비닐굴뚝까지 뽑아내왔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땅속에 묻힌 수십미터의 비닐관을 파내고 철관을 교체하여 풀었다. 온 탄광, 온 판리국이 떨쳐나서 도와주었다. 모두가 합심하여 이 악하게 노력한 결과 반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모

든 생산공정이 다 꾸려졌다.

석탄밖에 켈줄 모르던 탄부들이 수십수백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소금물에서 염산을 뽑아냈다. 수소소폭발로 화상을 입으면서도 끝끝내 물에서 수소를 분리시키고야말았다.

물러설수 없는 절대적필요성은 그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낳기마련이다.

헤아릴수 없는 간난신고끝에 드디어 첫 시제품 10알을 만들어냈다.

환원, 탄화, 프레스성형, 소결 등 십여공정을 걸친 정알을 소결로에서 꺼냈다.

문명학은 두꺼운 철관우에 정알을 올려놓고 기술 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을 둘러보았다.

《자신있는 사람은 망치를 쥐시오.》

초보적인 강도시험이다. 망치가 아니라 5합마(5kg)의 타격에도 견뎌내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있다. 문명학이 망치를 들고 정알앞으로 다가섰다. 옆에 서있던 금실이 두손을 가슴에 모아쥐였다. 망치가 정알우에 떨어지며 둔탁한 금속음을 내자 사람들은 가벼운 탄성을 터쳤다. 정알이 깨지지 않은것이다. 그러나 문명학은 머리를 흔들었다. 자신심이 없다보니 망치의 타격이 너무 약했다는것을 의식했기때문이다. 그는 더 높이 망치를 쳐들었다.

정알이 유리처럼 부서지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났다.

《어마나.》 금실이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다. 한알 또 한알 매번 부서져나가는 조각이 심장에서 떨어져나가는듯했다. 다섯알도 쳐보지 못했는데 문명학의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온몸의 피가 깡그리 빠져나간듯 망치를 쳐들 기운마저 없었다. 문명학은 끝내 망치를 내려놓고 주저앉고말았다.

소결장은 초상난 집을 방불케 했다. 녀인들은 슬그머니 돌아서서 눈굽을 훔쳤고 남자들은 서로 눈길을 피하며 담배만 태웠다. 형클어진 명주실오리마냥 자욱한 담배연기가 사람들에게 감겨돌았다.

문명학은 간절한 담배생각으로 목이 타드는듯했다. 한모금만 빨아도 마음이 진정될것 같다. 아니 그저 코에 대고 냄새만 맡아도 만족할것이다. 그는 술담배를 끊는다는것이 이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울리라는것을 미처 느껴보지 못하였다.

이때 소결장 출입문이 열리며 민향실이 큼직한 보따리를 안고 들어섰다.

《당신이 어떻게?》

《오늘 정알시제품을 만든다기에 뭘 좀...》

민향실은 산에서 뜯어다 정성껏 만든 술잎차며 오미자시럽, 파릇한 풀색으로 먹음직한 썩떡, 채소빵과 함께 몇명의 도토리술까지 사람들에게 놓았다. 사람들은 민향실이 가져온 소박한 음식으로 실패



의 아픈 마음을 녹였하였다.

문명학은 말라드는 입술을 감쌀며 저도 모르게 술고뿌쪽으로 손을 뻗었다. 압축공기마냥 터져나오는 강렬한 욕망을 더는 참지 못한것이다. 그가 술고뿌를 잡으려는찰나 부드러운 손이 술고뿌를 덮었다. 놀라서 머리를 드는 순간 련민의 정이 실린 안해의 눈길과 마주쳤다. 말은 없으나 얼마나 깊은 뜻이 어려있는 안해의 눈빛인가.

그는 술잔에서 슬며시 손을 떼며 마음속으로 속보였다.

(여보, 고맙소!)

문명학은 그자리를 피해 운반갱으로 나갔다. 요즘 탄차베아링이 걸려 석탄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갱목이 걸린 채탄장이며 폭약문제, 식량공급소와 학교와 탁아유치원은 물론 부모없는 애들을 말아 키우는 합숙에도 가보고 관심을 돌려야 했다.

...

망치의 타격으로 부서져나가는 파편조각과 함께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고심어린 나날이 흘렀다. 드디어 몇개의 정알이 완성되어 최종시험을 거쳤다. 수십개의 구멍을 뚫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때가 일렀다. 오작품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데 어느날 소결해낸 수백개의 정알이 몽땅 오작품이 된 사고가 일어났다.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원인규명을 해보았으나 그 원인을 도저히 밝혀낼수가 없었다.

《경질합금연구에 계획에도 없는 자금과 설비가 엄청나게 투하되고있을뿐아니라 거듭되는 실패로 자재와 자금 낭비가 엄청난 상태에 이르고있습니다. 대포로 새를 잡는 격이지요.》

기술일군 홍동무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것입니까?》

《지금 석탄계획만 하자고 해도 자금과 로력이 모자라 가두녀성들까지 동원되어 수집탄을 하는 형편입니다. 경질합금까지 끌어안고 나가다가는 국가에 큰 손실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지칠대로 지쳤지요. 기회를 보아 다시하던가 잘 타산해야 합니다. 현상태에서도 정알을 그만둔다고 해도 크게 손해볼것은 없습니다. 이미 꾸려놓은 화학공정을 그대로 리용하면 탄산소다와 염산을 생산하여 필요되는 자재와 정알을 <사업> 해올수 있습니다.》

론리정언하고 분석적인 의견이었다.

문명학은 손끝으로 책상을 다독이며 생각에 잠겼다. 하긴 사람들도 지쳤다. 며칠전엔 설비부기사장이 소결현장에서 쓰러졌다. 정알은 실패만 거듭하는데 석탄계획마저 못해서 법적추궁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말 호미난방격이다.

파연 우리 힘으로 정알을 만들수 없단 말인가. 펴

요한 정알은 계속 《사업》해다 쓰고... 아니 그것도 험한 일이 아니다. 운산에 갔던 굴진갱장이 몇줄 못되는 정알을 가지고 어깨가 처져서 돌아왔고 성천에 갔던 로아바이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는가.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풀수 없다.

문명학이 한동안 침묵을 지키자 홍동무가 또다시 말을 이었다.

《좀전에 알게 되었는데 상사에 정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언제 성공할지 모를 정알을 믿기보다 현실적으로 상사에 들어온 정알에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사와 잘 교섭해서 정알을 많이 받도록 사업조직을 해주십시오.》

문명학은 천천히 책상위의 전화기를 잡았다.

《자재상사에 대시오. 제 문명학입니다. 정알이 들어왔습니까? 얼마 안된다고요.》

사람들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탄광에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다른덴 못주더라도 우리한테만...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두 다른 탄광에 돌려주십시오. 우린 어떻게 하나 정알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일군들은 아연해서 입을 벌렸다.

전화를 놓은 문명학은 단호한 결심이 어린 눈길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신 강성대국 건설은 그누구의 도움이나 방조를 바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자력갱생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입니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 맡은 단위와 초소들에서 자기 몫을 찾아야 합니다. 강성대국 건설에서 우리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알을 비롯한 걸린 고리들을 제 힘으로 풀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일부 생산공정을 더 확장하여 탄산소다와 염산을 비롯한 화학제품들도 만들어야 합니다. 탄산소다와 염산만 있으면 종이와 질 좋은 식료품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제지공장과 식료공장도 새로 꾸리고 필요되는 종이와 식료품도 우리 힘으로 풀어 탄부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추켜세울 때 강성대국 건설의 원대한 구상이 하루빨리 실현될것입니다.》

정알은 단순한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우리 탄광의 운명문제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수소폭발과 화학시약에 취하여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현장을 떠나지 않은 그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우리에게만 공급하겠다는 정알을 다른 탄광에 돌렸습니다.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업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때엔 보다 능력이 있고 전투력이 강한 새 일군들에게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제 의견과 달리하는 동무들은 자리를 떠도 좋습니다.》

웅성거리던 말소리가 일시에 끊어지고 물속같이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어디선가 조심스러운 기척 소리와 삐걱거리는 의자소리가 들려올뿐 그 누구도 일어서는 사람은 없었다.

×

그날저녁 문명학은 로아바이를 찾았다.

《아바이, 저의 주관적욕망과 지나친 독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사에서 주는 정알을 다른 탄광에 돌렸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듣고난 로아바이는 무릎을 치며 통쾌하게 웃었다.

《저참 멋있구만. 역시 젊은 지배인이 달라. 내 이제야 믿겠네. 솔직히 말하네만 자네가 정알을 만들겠다고 장담해나섰을 땐 잘 믿어지질 않더구만. 젊은 혈기에 한번 해보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암, 물러설 자리가 없구말구. 착암기정머리처럼 완강하게 뚫고나가야 하네.》

《고맙습니다. 아바이!》

《참, 담배 넣은게 있나?》

《없습니다. 전.》

《됐네. 내게 마라초가 있어. 말기가 시끄러워 그러지 마이야 구수하지. 자 한대 말라구.》

《생각없습니다.》

《왜 입이 높아졌나.》

《그런게 아니라 요즘 담배맛이 없어서…》

《너무 피곤하면 담배맛도 없지. 몸을 돌보면서 일하라구.》

로아바이는 담배를 말아 붙여물고 깊숙이 들이 빨았다.

《저 이보라구, 지배인. 이젠 정알문제와는 판에 끼지만 생활이니 어찌겠나. 저 우리 금실이한테 대상자가 생긴가보네. 같이 일하는 곱슬머리 제대군인총각이라나. 가정이 프르르하고 술한 처녀들이 줄줄 따라다녀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누만. 가만 눈치를 보니 짝사랑하는것 같더라니 한마디 해줬지. <그따위 허파에 바람찬 녀석한테 눈을 팔지 말구 정알 만드는데 정신팔아라.> 그랬더니 글썽 <아버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동문 정알생산에 한몫 단단히 하는 좋은 동무예요.>라구 하면서 눈물이 글썽해지지 않겠나. 허참, 아무래도 그 곱슬머리녀석한테 훌쩍 반한 모양이야. 어찌겠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고보니… 자네가 오빠처럼 생각하고 잘 도와주게나.》

《그거참! 정알 만드는 일보다 더 힘들것 같습니다.》

그날밤 문명학은 사고원인을 해명하려고 기술서적과 씨름했다. 이렇게 몇밤을 새웠다. 한편 화학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협의도 하고 조언도 들었다. 언제 잠을 자고 언제 밥술을 들어야 하는가도 다 잊어버렸다.

그러나 오작의 원인은 좀처럼 밝혀지지 않았다.

어느날 참고서들을 가지러 집에 들렀던 문명학은 방문턱을 넘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쌓이고 쌓인 과로에 인한 정신육체적긴장성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의 탕개가 풀리면서 견잡을수 없는 허탈과 함께 심장경련이 왔던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민항실이 방금 응급처치를 한듯 주사기를 한 옆에 놓은채 손발을 주물려주고있었다.

《난 빨리 현장에 나가야 하오.》

《당신은 현장이 아니라 병원엘 가야 해요. 그 몸을 해가지고도 그저 탄밖에 모르시니…》

민항실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난 지금까지 당신이 없는 나를 생각해본 적이 없듯이 석탄과 나를 떼놓고 생각해본 일이 없소. 내가 젊은 나이에 지배인중책을 맡은것도 그 탄때문이 아니겠소.》 문명학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탄광에서 일하는 과정에 군대초모생들을 최전연초소가 아닌 탄광으로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였소. 탄광도 조국을 지키는 총포성없는 전선이였소. 그때 다시 군사동원부에 찾아가 부장의 팔소매를 잡고 군대에 보내달라고 떼를 쓰던 철부지를 나라의 석탄전선을 지켜선 책임일군으로 키워주지지 않았소. 지금 이달 석탄계획이 걸려있는데 내가 어찌 몸이 아프다고 누워있겠소.》

결혼식 첫날밤에조차 안전등을 쥐고 갯으로 들어간 남편이다. 영광스러운 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준 당의 믿음에 보답하려고 두 아들을 낳고 15년나마 살아오지만 언제 한번 집에서 편히 자본일이 있었던가. 잠꼬대를 하면서도 석탄을 찾는, 오직 석탄밖에 모르는 그를 이해하였기에 수많은 청혼자들을 물리치고 탄부의 안해가 된것이 아닌가.

민항실은 남편의 몸을 안아일으켰다.

《여보,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했다는걸 그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되오. 알겠소.》

문명학은 안해에게 손가락을 내밀었다.

《당신두 참, 애들처럼.》

《난 당신앞에선 언제나 큰아이가 되고만다니까.》 문명학은 소리없이 웃었으나 민항실은 머리를 돌리고 눈굽을 훔쳤다.

《청년갱》지령실에 들러 석탄생산실적을 알아보고 부족되는 동발을 비생산단위로력으로 끌어내릴 데 대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고나서 문명학은 경질합금작업반을 찾았다.

담배연기 자욱한 휴게실에서 작업반원들이 오작난 정알을 앞에 놓고 어성을 돌고있었다.

《어이구, 곱을 잡겠습니다.》

《범을 잡아야지요.》

누군가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바람에 모두 웃음

을 터뜨렸다. 거둬되는 실패속에서도 비판을 모르는 그들을 보니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작업반원들을 둘러보던 문명학이 나직이 물었다.

《금실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 요즘 무슨 심각한 고민이라도 있는지 머리를 푹 떨구고 통 말이 없더니 어제부턴 몸이 아프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병문안을 가봅시다.》

문명학이 손전지를 켜들자 홍동무가 따라나섰다. 로아바이는 갥에 나가 없었고 옷방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금실이 밤중에 간식구레미까지 들고 찾아온 지배인을 보자 황급히 일어나 옷을 걸쳤다.

《병원엔 갔겠니? 약이랑 먹구?》

금실이는 까실까실한 입술을 감뻘며 손가락으로 방바닥을 긁고있는데 아래방에서 기웃이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푸념처럼 중얼거렸다.

《글쎄 감기 한번 앓지 않던 애가 며칠전부터 저러지 않수. 병원에도 안가고 어디 아픈가 물어봐도 통 말이 없으니 원...》

문명학은 슬며시 목소리를 낮추었다.

《너 혹시 총각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냐.》

금실이는 놀란듯 피뚝 문명학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문명학은 무슨 말인가 더 묻고싶었으나 두불이 푹 꺼지고 수척해진 금실이 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금실이, 며칠 푹 쉬면서 치료를 잘해라.》

문안을 마치고 대문을 나서는데 금실이 뒤따라 나왔다.

《왜, 누워있지 않구.》

《지배인아저씨, 전... 전 죄를 진 나쁜 여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금실이는 어둠속에서 소리를 죽여 흐느끼며 사연을 털어놓았다.

침출세척공정에서 일하던 그는 100도에서 열번 세척해야 초순도를 보장할수 있는 화합물을 피곤한데다가 판생각을 하다보니 온도를 제대로 높이지 못했을뿐아니라 세척도 아홉번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후 정알이 몽땅 오작이 난후 사고심의회때 겁이 나서 사실을 숨겼었다는것을 솔직히 실토했다.

《참 한심하구만, 한심해.》

홍동무는 쓰거운지 입을 찹찹 다셨으나 문명학은 말이 없었다.

《전 래일부터 갥에 들어가겠어요.》

《그건 왜?》

《이제 무슨 낫으로 작업반사람들을...》

《안돼. 잘못은 고치면 되는거지. 탄부처녀답지 않게.》

금실이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회의를 열고 문제를 단단히 세워야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홍동무가 이렇게 말했지만 문명학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금실이 가 고백한대로 그의 잘못으로 초래된 실패의 원인인지는 다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엄중한 결함을 말하지 못한 량심의 가책으로 것처럼 고민하고 모대기다가 솔직히 털어놓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했던것이다.

《내 생각엔 금실이 결함을 공개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심중한것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나이찬 처녀인데 정알때문에 허물을 만들어줘서야 안되지요.》

《...》

금실에 대한 문명학의 우려는 공연한것이였다. 이튿날 아침모임때 금실이는 눈물이 그렇게서 자기 잘못을 스스로 내놓았던것이다.

솔직한 마음은 아름다운것이다. 그 아름다움앞에서 사람들은 감동되고 동정을 표시하면서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되였다.

미분공정의 김동무가 실패만 거둬하자 자신심이 없어지고 긴장이 풀려 72시간동안 미분해야 할 화합물을 정전이 되어 기대를 멈춘 시간을 가산해주지 않아 분말도를 보장 못한 결함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환원공정의 한 처녀는 순수한 화합물들의 융합에서 엄격히 지켜야 할 0.001g의 차이를 그쯤이야 하고 무시해버렸던 실책을 고백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기들의 결함을 내놓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문명학은 크게 감동되어 금실을 만났다.

《네가 나보다 생각이 깊구나. 역시 탄부처녀가 달라. 그런데 너의 그 곱슬머리총각은 무슨 말이 없더냐?》

《아저씨가 어떻게 그걸 다...》

금실이는 얼굴을 활짝 붉혔다.

《지배인이야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있어야지. 허허.》

《아이참, 아버지가 끝내...》

금실이는 아버지를 나무라면서도 환희에 넘쳐 속살거렸다.

《그날저녁 그 동무가 만나자고 하더군요. 아마 단단히 비판을 하려는구나 하고 가슴을 조이며있는데 그 동무가 내 손을 꼭 잡고서 <난 금실이 마음이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줄 몰랐소.>라고 하면서 당장 부모의 승낙을 받겠다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전 머리를 흔들었어요. <지금은 안돼요. 이제 정알을 만들어낸 다음 그땐 우리 부모를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역시 금실인 내가 생각해온 그런 처녀

요. 우리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자구!>라고 하면서 빙긋이 웃더군요.》

금실이는 이야기를 끝내고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다.

《결국 그 정알이 중매군노릇을 한셈이구나!》

석탄은 비록 검은것이지만 탄부의 량심은 백옥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 옥에는 티가 있을수 있어도 탄부의 량심에는 티가 있어서는 안된다. 가장 깨끗한 량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초강도의 금속인 정알은 자기의 비밀을 내놓게 될것이다.

×

번개가 일고 대줄기같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날 밤이었다. 탄부들에게 공급할 식량문제를 풀기 위해 숙천군의 어느 한 농장에 나가있던 문명학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뭘라고요? 이백알이 다.》

수화기도 제대로 놓지 못한 그는 급히 운전사를 불렀다. 그달음으로 탄광에 달려왔다.

문명학이 가쁜숨을 몰아쉬며 소결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문명학은 정알을 철판우에 올려놓았다.

《함마를 가져오시오. 누가 때려보겠습니까?》

그러자 흥동무며 작업반원들이 저마다 함마를 쥐겠다고 나선다. 지어는 금실이를 비롯한 녀인들까지 남자들을 밀어내는판이다.

문명학은 믿음어린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며 웃었다.

《아, 이러다간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디 내가 쳐봅시다.》

그는 큼직한 함마를 쳐들고 주저없이 힘껏 내리쳤다. 정알마다 끄떡없이 타격을 이겨냈다.

정알이 깨지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열알, 스무알, 계속 무거운 함마를 쳐드는 문명학의 가슴은 뜨거웠다.

이 한알한알의 정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 못할 사연과 소박한 희망, 깨끗한 량심과 뜨거운 열정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정알생산을 위해 진심으로 도와준 미더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보며 문명학은 힘든줄 모르고 정알을 치고 또 쳤다.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헤아려보자면 수백수

천개의 정알을 쳐본대도 모자랄것이다.

문명학의 눈굽에는 맑은 이슬이 고여올랐다.

정알은 단순한 화합물이 아니었다. 백번천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 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고야말리라는 탄부들의 불굴의 의지와 깨끗한 량심의 결정체였다.

《고난의 행군》은 어려웠다. 하지만 깨끗한 량심을 가진 인간들은 강해졌고 고난을 이겨냈다.

고난속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진 새 인간들이 탄생하였는가!

이런 인간들이 우리 장군님을 변함없이 받들고 따르고있기에 우리 조국은 강성대국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문명학은 정알 하나를 집어들었다. 윤기도는 정알을 보느라니 기다리는 안해생각이 났다. 한달음으로 집에 달려가 안해가 부어주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나서 담배를 붙여물리라. 오래간만에 피워보는 담배연기에 개끼워 기침을 하면서 아들녀석들과 한바탕 갈겅질을 하면서 즐기고싶다. 그러느라면 그간 쓰러질 지경으로 쌓이고 엉킨 피로가 순간에 쭉 풀리고 심신이 거뜰해질것만 같다.

그는 정알을 손바닥에 꼭 눌러쥐었다. 울고웃으며 서로 불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기쁨과 환희의 도가니속에 남겨둔채 조용히 소결장을 나섰다. 조급한 마음에 비해 발이 말을 듣지 않아 허둥거리며 달렸다. 뒤미처 따라나온 운전사가 차에 발동을 걸며 소리쳤다.

《지배인동지, 차를 타십시오.》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니까.》

문명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불빛이 환한 탄광마을이 아니라 굴진막장으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섰다.

로아바이와 함께 정알을 쫓고 착암기를 틀어잡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던것이다.

전조등을 비쳐주며 따라오던 승용차는 문명학이 지름길로 꺾어들자 어쩔수없이 벗어나며 전조등을 켜다. 그러나 굴진막장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은 어둡지 않았다. 이밤에도 꺼질줄 모르는 전차의 푸른 섬광이 그의 앞길을 밝혀주었던것이다.